



2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2호

(루계 제724호)

차례

김정일장군찬가	4
2월의 아침이 오니	5
김정일동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문학령도업적을.....	6
더욱 빛내여나가자	6
레성강의 새 전설.....	13
고향으로 가는 길.....	14
다시 찍은 사진	16
주체문학의 대강	17
해뜨는 아침에	17
전선길에 별무리 흐르네	17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18
등 귀 신	18

영원한 승리의 보검	20
믿음의 세계	21
종군작가의 전형으로 영생하는 시인	32
아들과 딸.....	34
고향집	35
우리의 선군길 좋아	36
금강산의 새 절경.....	37
금강산의 둥근달	39
종자탐구의 고전적본보기.....	40
태양의 꽃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형상.....	44
우리 설명절	46
언제나 조국과 함께	47
경구 격언.....	47
위인의 《하루길》에 대한 감동깊은 서정의 세계.....	48
농민의 마음	52
래일에 대한 이야기	53
라태, 태만.....	54
진달래 꽃필때	55
병사의 모습	64
풍자작가 썬커리	65
병사는 조국의 대지우에 편지를 쓴다.....	66
병풍덕.....	67

리원명과 《동야휘집》	76
운동주의 애국적인 시세계	78
《조선문학》 축전상 시상결과	80
《B.C》, 《A.D》	80

김정일장군찬가

류동호

내 마음은 지금 해맞이순간
눈부시고 환희롭고 신비로운 백두의 해돋이
그 광망, 그 열기로 가득찬
매혹과 승배의 최절정에서
선군태양 만세를 심장으로 터칩니다

이 행성을 품어안고
온 누리가 환하도록
건강에 넘치신 장군님밝게 웃으시니
봄빛이 가득찬 사회주의 내 조국입니다
해빛이 쏟아지는 인민의 봄세상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아들이 되시고
조국을 위하여 백두산이 되신분
스스로 말은 력사의 중임
세기의 위업을 걸머지시고
한생을 불태워 진함없는 이 땅의 봄빛이
되시고도
언제 한번 마음속에 쌓인 장설 녹은적
있었습니까
초행길에서 조여매신 신들메 푸신적 있었습니까

전선길의 눈비에 젖고 성에 불린 야전복에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감싸안고
천만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한평생은 헌신입니다
우리 장군님 한평생은 애국입니다

정을 다 기울여 인민의 진심을 얻고
사랑을 다 바쳐 천하를 얻은 우리 아버지

그 품이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그 한생이 내 조국이 되었습니다
한손에는 선군장검을
한손에는 붉은기를 틀어쥐시고
반미대결전의 패권을 장악한 빨찌산야전장군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더 맑게 열어
강성대국의 러명을 펼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백두령장의 그 자욱자욱을
선군혁명동지의 걸음맞춰 따르고 받들며
우리는 장군님을 승리로 알았습니다
온 세상으로 알았습니다

인민을 위해 동지를 위해 조국을 위해
심장을 바치고 한생을 불태우시는 장군님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삶을 빛내주신
아버이를 위하여
천만심장 하나같이 바쳐 행복을 찾으렵니다
그 심장으로 결사옹위성세를 더 높이 쌓고
그 붉은 피로 **김정일**붉은기폭을 더 붉게 물들여
기어이 강성대국 승리봉에 휘날리렵니다

아 우리의 사랑하는 **김정일**장군이시여
부디 건강하시고 길이 행복하시라
사회주의 이 조선엔 백두산같이
온 세상의 하늘가엔 태양과 같이
영원하시라
무궁하시라

2월의 아침이 오니

김창호

어쩌면 간밤에도
그 어느 전선길에 계시지 않으셨는지
2월의 아침이 오니
더더욱 못 견디게 그리운 장군님

새해 첫 아침 길을 떠나시어
온 한해 전선에서 전선으로
어느 하루 편히 쉬신적 있었던가
지난해 《삼복철강행군》의 피로도
아직 푸시지 못하신채...
목메여
간절한 그리움속에 우르르노라면
끝없이 파도쳐오는
인류의 마음 축원의 인사도
우리 장군님
달리는 야전차에서 받으시는것 아니라

끝없이 걷고걸으시는 길을 따라
강성대국의 려명은 밝아왔어도
그 힘찬 발걸음
순간의 멈춤도 없으시는 장군님

해마다 이맘때면
더더욱 눈굽이 달아오르나니
천만자식 우리모두에게
크나큰 행복을 주시고
자신은 그 행복을 지켜
머나먼 전선길에 계시고...

그렇게 걸으시는 선군의 길우에서
꽃피우신 선경은 얼마이던가
사랑으로 넓혀주신 토지정리 넓은 벌 지나
대홍단의 감자꽃 한품에 안으시며 가시는
천만리

그 길우에
오곡이 무르익은 미루벌의 환희가 물결쳤고
12월의 레성강에 봄경치 펼쳐져
미곡벌 집집마다
사랑의 전설 끝없이 전해지나니

그래서 온 세계의 마음들
그리도 흠모의 열풍으로 굽이치며
오늘을 명절중의 명절
새 세기 태양의 날로 맞이하며
감격에 설레이는것 아니라

아 수령님유훈대로
내 나라 내 조국에 강성대국의 새봄을
꽃피우시며
이 아침도 붉은기행군의 진두에 서계시는
장군님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온 세계 자주화위업을 위해
안녕하시라
부디 건강하시라!

가사

김정일동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림철

백두가 안아키운 인민의 아들입니다
반만년 민족사를 빛내준 위인입니다
조선을 위하여 태어나신분
아 **김정일**동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총대로 민족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사회주의진지를 사수한 장군입니다

조선의 운명지켜 령장이 되신분
아 **김정일**동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만민이 따르는 친근한 아버지입니다
자자손손 높이 모실 회세의 령도자입니다
조선의 하늘에 태양이 되신분
아 **김정일**동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문화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자

최연경

우리는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더 활짝 꽃피워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는 일찌기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20세기 말엽의 대정치과동속에서 그 참된 진로를 고심참담하게 모색하고있던 인류문학예술앞에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었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아래 전군, 전민을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반제결사항전과 강성대국건설에 불려일으키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문학예술이다. 그것은 군사에 능통하고 정치와 군사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만이 불러올수 있는 특이하고 리상적인 예술, 오직 그이의 존함과 더불어서만 부를수 있는 문학예술이다.

선군혁명문학예술에는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정치리념, 그이의 숭고한 사상과 감정 그리고 그이의 신념과 의지가 빛나게 구현되어있다.

거기에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그이의 배짱과 담력, 그 어떤 대적과 맞서도 끝까지 싸워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려는 무적필승의 의지,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오로지 자기 령도자만을 하늘처럼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군대와 인민에 대한 철석의 믿음과 열혈의 사랑, 위대한 령장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간직되어있는 그 거룩한 모든것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우리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탁월한 예술철학의 구현이며 그 빛나는 결정체이다.

바로 여기에 그 어느 문학과도 비교할수 없는 선군혁명문학의 전대미문의 위력과 혁신성의 근본원천이 있다.

위대한 정치철학에 의하여 고무되는 문학만이 인류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혁명적문학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전백승의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우리의 문학이 이 위대한 선군정치의

본질적특성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인류문예사가 처음보는 선군혁명문학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 그것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된 필승불패의 정치이며 혁명의 영원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오직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완성된 사회주의정치방식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와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련전련승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될수 있었으며 선군혁명문학의 자랑스러운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선군혁명문학, 그것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예술철학의 빛나는 구현이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가 천만자루의 창점을 대신할수 있다는것이 그이의 위대한 예술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예술의 위력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 원수를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고 굳게 믿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것은 하나의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노래의 철학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노래로 시작되고 전진하여온 혁명을 노래로 완성하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음악철학, 예술철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반제군사전선이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우리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제일생명선으로 되고있는 선군시대에는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백배해진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어 나가는데서 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은 선군혁명령도의 위력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예술이 선군시대를 선도하고 추동하는 시대적사명을 다할 때 당의 선군령도는 불패의 위력을 더 높이 발휘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사에는 성스러운 빠리콤포의 예술적산아인 《인터나쇼날》과 제2차 세계대전시기 파쑈도이첼란드를 전률시킨 가요 《정의의 싸움》과 같이 사람들을 혁명투쟁과 반제성전으로 불러일으킨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예술도 없지 않았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문학예술이 노는 인식교양적의의를 강조한 지도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느 정치지도자도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한 힘을 정치와 옮겨 결합시키지 못하였으며 더더구나 문학예술의 위력으로 총대의 힘을 백배케 하지 못하였다.

정치와 문학예술, 총대와 문학예술을 그리도 조화롭게 리상적으로 결합시키고 예술의 위력으로 총대의 힘을 백배케 한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세출의 위인상이며 선군정치와 혁명적문학예술을 통일시킨 우리 장군님의 정치야말로 세계정치사와 인류문예사가 처음보는 위대한 정치이다.

선군예술정치, 이것은 참으로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하고 특출한 우리 장군님의 예술정치방식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예술의 영재이시다. 그러나 그이의 위대성은 그 비범한 예술적천재성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군정치와 그리도 리상적으로 결합시킨데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총대철학과 함께 독특하고 탁월한 예술철학이 이 땅우에 세상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새시대를 불러왔다.

21세기를 맞으며 온 행성을 《아리랑》충격으로 들었다놓은 《김일성상》계관작품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웅자와 그 황홀경이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예술의 궁지로운 모습을 빛나게 상징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웅당한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예술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문학예술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하는것이다.

진정 선군혁명문학, 그것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념을 그대로 체현한것으로 하여 일찌기 인류가 체험한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로 력사에 기록된 레닌그라드의 봉쇄를 훨씬 초월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락관으로 비판을 이기고 랑만으로 절망을 짓부셔버린 선군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핵탄보다 더 위력한 인간정신력의 결정체, 그 최고의 정화로 되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것처럼 위대하고 강력한 이 창조물을 우리 군민에게 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장장 수천만리 선군혁명문학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선군혁명문학의 영광에 찬 력사는 그대로 위대

한 장군님께서 자욱자욱 새겨오신 성스러운 선군장정의 길이고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실록이였다.

우리 인민은 높은 령 눈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며 머나먼 최전연을 끝없이 찾으셨다는 노래의 구절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엇때문에 아스라한 오성산벼랑길을 오르시였고 눈벼랑길에 몸소 차를 미시며 철령고개를 넘으시기를 그 몇번 그리고 그이께서 어찌하여 351고지 일선참호와 적들의 총구가 눈앞에 맞서있는 판문점에까지 나가시였는가를 폐부로 절감하였다.

락원의 길을 여시려 강계를 찾아 몇천리 한강기죽도 나누며 장군님 헤쳐가신 시련의 그 자욱을 우리는 잊지 않으리라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민은 수천리 북방의 눈보라를 헤치시는 아버지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그려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였는가를 가슴터지게 절감하였다.

실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였던 주체84(1995)년으로부터 주체89(2000)년까지의 6년동안에만도 수많은 작품을 지도해주시고 우리 문학운동에 대한 많은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것이 그 어느 아늑한 창작실이나 뚝치수려한 정원길,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눈비내리고 총포성울리는 전선길에 기록된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문학령도의 자욱자욱을 눈물없이, 걱정없이 되새길수 있다.

이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군인문화를 본보기로 내세우시여 그 모범을 따라배우게 하시여 온 사회에 혁명적인 창작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으며 명작창작강행군전투에 우리 작가들을 불러일으키시여 선군혁명문학의 대화원을 가꾸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여 일찌기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며 각종 형태의 예술이 범람하고있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선군혁명문학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한것은 태양민족의 영원한 자랑이고 행복이며 김정일시대에 살며 창작하는 우리 세대 작가들의 더없는 행운이다.

우리는 이 영광, 이 궁지, 이 행복을 가슴깊이 새기고 아버지장군님의 거룩한 헌신과 성스러운 령도가 깃들어있는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 전취물인 장군님의 선군혁명문학령도업적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높은 창작실적으로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군혁명문학의 향도적기치이며 그 찬란한 개화발전의 무한대한 원동력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문예사상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창작실천에 철저

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류레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 준엄한 나날에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것처럼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저술하시고 귀중한 명언을 려이어 주시여 시대와 혁명,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선군혁명문학이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문제, 주체의 사회주의리념을 확고히 고수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사업을 앞세워 튼튼히 들어쥐고나가갈데 대한 문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문제 등 실로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져 있다.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리론과 정치철학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함으로써 선군시대 우리 문학은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학으로, 전대미문의 영광에 찬 선군혁명문학으로 그 위용을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리론에서 선군시대의 특징과 선군정치방식을 정식화하신것은 선군혁명문학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확고한 기초로, 출발점으로 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정식화하시고 위대한 총대철학을 빛나게 구현하신것은 참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에게 있어서 운명적의의를 가지는 세계사적사변이고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기본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의 본질과 요구를 뚜렷이 밝히시여 우리 문학이 시대의 참모습을 옹계 창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선군시대의 시대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의 본질을 밝히시고 전체인민이 따라배우도록 하심으로써 창작되는 작품들마다에서 시대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여 주체문학을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실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밝혀진 위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문학을 선군혁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참다운 선군혁명문학으로 향도해준 사상리론적지침으로,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장구한 인류사에 비하면 력사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짧은 력사의 순간에 그 포괄범위에 있어서 이처럼 방대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이처럼 심오

하며 그 세계사적의의에 있어서 영원토록 길이 불멸할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신것은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성인중의 성인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대업적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사상을 높이 받들고 끝까지 결사옹호, 관철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예술철학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는 선군미학사상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위대한 예술의 철리에는 그 거대한 인식교양적기능과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핵탄보다 더 위력한 시와 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원한 사상이 태양의 빛발처럼 눈부시게 빛나고있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1970년대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던 나날에 그리고 1990년대에 내놓으신 주체문학대강인 **《주체문학론》**에서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신 불멸의 명제이다.

허나 이 위대한 명언의 참뜻이, 그 불패의 위력과 진리성이 오늘처럼 빛난적은 일찌기 없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포악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총포성없는 전쟁을 치르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시와 노래를 주어야 할 때이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시대 명작창작의 진로를 밝히시면서 이 위대한 예술의 철리를 우리 작가들의 심장마다에 다시금 더 깊이 새겨주시며

그것이 선군혁명문학의 고무적기치로 그 진두에 펄펄 휘날리게 해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모든 문예사상과 귀중한 명제들은 어느것이나 문학 그 자체에 내재하는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만 머물지 않으며 가장 원대하고 성스러운 목적, 문학과 예술을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하는데로 일관하게 지향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선행한 그 어떤 문예사상도 도저히 따를수 없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문예사상의 절대적인 위대성과 독창성이 있다.

세상에는 애국의 끓는 피를 시줄에 쏟아 병사들을 고무한 명장도 없지 않았으나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시와 노래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하나의 전투나 전쟁만이 아니라 정치의 높이에까지 올려세우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오직 정치와 군사에 막힘이 없고 예술에 만능하며 그모두를 하나의 성스러운 목적, 혁명에 복종시킬줄 아는 위대한 장군형의 정치가만이 이룩할수 있는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을 옹호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선군시대 명작창작의 뚜렷한 길을 밝힌 선군혁명문학의 대강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명작창작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시대의 미룰수 없는 요구와 조성된 정세 그리고 우리 당앞에 나선 중대한 과업을 명철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선군시대 우리 당이 요구하는 명작의 본질을 완벽하게 정식화하시고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명작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우리 시대 명작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정식화는 오랜 세월 세계문인들과 리론가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해보았으나 그 참된 진수를 알수 없었던 명작의 참모습을 뚜렷이 밝힌것으로 하여 불멸의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져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정식화에는 명작의 본질을 종래의 견해들에서와 같이 작품의 방대한 규모나 그 어떤 특출한 예술적기교에서보다 그가 담고있는 사상적내용을 기본으로 보고 규정하여야 한다는 혁명적이고 독창적인 사상이 담겨져있다.

여기에는 또한 선군시대를 주도하고 향도하는 시대정신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독창적사상이 빛나고있다.

참으로 선군시대의 명작에 대한 고전적정식화에는 고금동서명작에 정통하시고 명작창작원리에 능통하실뿐아니라 몸소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필하시어 그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예지가 눈부시게 빛발치고있으며 그 어떤 기성의 리론이나 명제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개작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혁명의 새로운 요구, 시대의 지향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풀어나가시는 전대미문의 독창성이 빛나고있다.

우리는 마땅히 선군시대 명작창작의 불멸의 대강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다양하고 풍부한 명작대풍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전체 작가들은 사상리론의 대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창작하는 선군조선의 작가된 크나큰 긍지와 존엄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의 사상과 리론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 사상리론의 위대한 정신과 넋이 우리가 쓰는 시와 소설의 글줄마다에, 자자구구마다에 세차게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문학령도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선군혁명문학의 진수이며 그 핵인 수령형상문학의 성과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데서이다.

수령형상문학의 전례없는 일대 개화기를 마련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문학령도사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대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수령영생문학의 새 전기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충정에 떠받들리어 우리 문학은 아버지수령님의 빛나는 태양상을 변함없이 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길이 전하게 되였다. 이것은 백수십년 국제로동운동사에 있어본적 없는 특출하고도 거대한 사변이다.

수령영생위업이란 말은 그 어느 백과사전에든 올라본적이 없으며 더더구나 수령영생위업이 창시되고 실현된 곳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가장 정의롭고 결출한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경우에조차 생존시에는 것처럼 높이 찬미되고 칭송되다가도 그의 서거와 함께 점차 력사무대에서 사라져버린것이 레상사였다. 기껏해야 사후에 인민의 기억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추억되면서 그 탄생일이나 국가적인 명절날에 그 묘소에 꽃다발과 꽃송이가 진정되는것이 전부였다.

수령영생위업은 선대수령에 대한 단순한 기념이 아니며 과거에 대한 추억은 더더욱 아니다.

수령영생위업,그것은 위대한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로서 조국과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한다는 절대적 신념이며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과 그 불멸의 업적에 대한 철저하고도 영원한 계승이며 수령의 사상과 유훈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받들고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가장 숭고하고 성스러운 위업이다.

수령영생위업은 그 후계자의 빛나는 위업이며 그 숭고한 뜻을 따르는 인민대중의 가장 성스러운 위업이다. 수령영생문학의 창조와 발전은 바로 이 위대한 수령영생위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이다.

지난 시기나 지금이나 수령영생위업이란 말자체가 없었던것만큼 그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수령영생문학이 창조될수 없었던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나 현시기나 때로 력사의 갈피들에서 수령의 형상을 볼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작품들에 국한된것이며 당과 인민의 수령영생위업의 전일적인 한부분으로, 필생의 위업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문학의 새 전기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수령영생위업의 한부분으로 전환시키시였을뿐아니라 그것

을 선군혁명문학의 최고정수로 내세우시었다.

바로 여기에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불세출의 위대성과 빛나는 업적이 있는것이다.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후 피절은 5년동안에만도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에 바쳐진 시와 가사가 수많은 창작되었다는 력사에 없는 기적을 두고 우리는 수령영생문학을 위해 바친신 우리 장군님의 심혈을 가슴뜨거이 되새기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국가와도 같은 시대의 걸작으로 완성시켜주신 수령영생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하여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과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와 같은 수령영생문학명작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수령영생위업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참으로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문학의 새 장을 펼치시여 이 땅우에 문학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수령님 생존시나 다름없이 더 즐거차게 끝없이 흐르게 하신 것은 김일성조국과 함께 길이 빛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이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수령영생문학을 영원토록 개화발전시켜나아가야 할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영생문학의 사상적핵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이와 함께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데로 모든 형상을 집중시키고 지향시키는것은 수령형상문학에서 변함없이 나서는 근본요구로, 원칙으로 된다.

수령의 위대성형상에 이바지하지 않는 그 어떤 기교도 무의미하며 불필요하다.

수령이 위대하여 조국이 위대하고 민족이 위대하며 개인의 운명도 빛난다는 혁명의 근본철리를 깊이있게 밝혀내는데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수령형상문학의 높은 세계가 있다.

수령영생문학과 함께 위대한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의 빛나는 정화로서 선군혁명문학의 정수를 이룬다. 선군혁명문학이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형상창조를 초미의 과제로 내세우고 그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놓은것은 인류문예사가 맞이한 대경사이며 인류의 절절한 념원에 대한 빛나는 실현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우리의 김정일동지》, 《장군님

은 빨찌산의 아들》, 《조선의 장군》,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들과 서사시 《인민의아들》, 《백두산은 웨친다》와 많은 서정시들 그리고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인 《력사의 대하》, 《총대》, 《총검을 들고》, 《강계정신》, 혁명전설 《백두광명성전설집》 등은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의 눈부신 개화를 뚜렷이 상징해준다.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은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사상예술적품격을 최상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체현하고있을뿐아니라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되는 일련의 고유한 사상예술적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이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빛나는 형상문학이라는데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를 비롯한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은 그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드시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령도하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의 력사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이며 송가라고 말할수 있다.

특히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룩하지 못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위업에 대한 불멸의 화폭이다.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되는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의 사상예술적특징은 또한 그가 반영하고있는 력사적전환기의 시대적특징을 뚜렷이 보여주면서 새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옳바른 사상예술적해답을 준데 있다.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이 체현한 력사적시대, 그것은 일찌기 력사에 없었던 대정치파동과 준엄한 시련으로 가득찬 시대였다.

바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극적사변의 시대,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와 인류를 위하여 것처럼 거대한 운명적의의를 가지는 새시대의 엄숙한 물음과 요구에 가장 진실하고 공명정대한 해답을 주어야 할 력사적사명을 지니고 세상에 탄생한 문학이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이다.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은 그 거대하고 심각한 운명전환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세상에 태어난것으로 하여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문학으로 된다.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란 하나도 없다. 시대와 더불어 격동하는 이 세계의 중심에 그 운명을 한몸에 체현하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계신것이다.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되는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의 가장 중요하고 주되는 사상예술적특징은 또한 수령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체현하면서도 특히는 탁월한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기본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한데 있다.

일찌기 세계 그 어느 명장도 지니지 못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 적들보다 백수, 천수를 앞질러 내다보는 기묘한전법,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드물지 않는 철의 담력과 의지, 태양보다 뜨거운 애국, 애족, 애민의 정, 이것은 천출명장이신 **김정일** 장군님께서만이 체현하실수 있는 가장 절충한 위인적품목이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정을 안고 위대한 선군령장을 형상한 문학을 보다 높은 최상의 경지에서 창조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형상에 모든것을 집중시켜야 할 수령형상창조의 일반적원칙과 함께 특히 판단이 정확하고 결심이 단호하며 타격이 무자비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신념과 의지의 최강자, 제일배짱가이신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 장군님의 형상을 최상의 높이에서 그려내는것이다.

이와 함께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철학적성을 최고의 경지에서 구현함으로써 선군령장을 형상한 작품의 격을 응당한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세계, 그 한없는 위인의 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매우 어렵고도 더없이 중요한 창작적과제이다.

또한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송가명작도 많은 우리 문학의 귀중한 전통을 계속 빛내여 선군령장을 형상한 송가문학의 보다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노래도 많고 전설도 많은 내 나라, 내 조국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애도하여 상복을 한듯 한 흰새들이 만수대언덕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에돌고 우리 장군님 판문점에 나가시였을 때 수호신처럼 펼쳐진 흰안개를 어찌 전설같은 현실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내 나라, 내 조국에서는 오늘도 수령의 노래가 많지만 래일도 영원히 수령의 노래가 더 많이, 더 힘차게 울려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문학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문학작품들에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이 더 힘차게 나래치도록 함으로써 선군혁명문학이 사람들을 선군영웅들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이다.

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와 가치는 그것을 주도하는 시대정신의 높이에 중요하게 기인된다.

오늘 우리 시대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위대한 선군시대이다.

혁명적군인정신에는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가 퍼덕이는 붉은 기폭처럼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의지의 구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간고하고도 준엄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며 억척만반 사선의 고비를 넘나드시면서도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자는 불굴의 의지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 그것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없는 주체의 신념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승리는 하늘이 주는 기적도, 남이 주는 선사품도 아니며 최후승리의 봉우리에 가장 빨리 오를수 있는 길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맞받아 뚫고나가는데 있다는 억척의 신념을 지니시고 언제나 공격전에 계신다.

혁명적군인정신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미래관, 혁명적라관주의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장군님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신 혁명적라관주의의 최고화신이시다.

참으로 위인의 거룩한 넋을 그대로 받아안음으로써 혁명적군인정신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아름다운 인간정신의 정화로 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혁명적군인정신의 기본핵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권위를 지켜 죽음도 맞받아나가고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절대적인 충실성이며 그 어떤 특정한 계기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에 발현되어야 할 가장 순결한 사상감정이다.

결사관철의 정신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투철한 신념,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목숨도 기꺼이 바쳐 기어이 관철하고야마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다.

결사관철의 정신은 수령의 명령관철에서 발휘되는 무비의 헌신성과 영웅적희생정신에서 뚜렷이 과시된다.

실로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군대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창조할수 없고 발휘할수 없는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이 성스러운 혁명적군인정신을 사상정신적바탕으로 함으로써 선행한 모든 문학과 구별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학으로 되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발현으로서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은 총서 《불멸의 향도》중의 장편소설들인 《총

검을 들고》, 《총대》와 가요 《높이 들자 붉은 기》, 《우리는 맹세한다》, 《신심드높이 가리라》, 《승리의 길》 등 시대의 명작들에 투철하게 구현되고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은 분당 수십톤의 압력으로 쏟아지는 석수를 한가슴으로 밀막으며 착암전투를 벌였고 굴속에 물이 차면 폐목우에서 착암을 하고 함마질을 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두손을 쓸수 없게 되면 어깨로 착암을 하고 버럭광차를 밀었으며 필요하다면 한몸이 그대로 《퇴관》이 되고 《폭약》이 되어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쳤다.

200미터구간의 경사갱이 봉락으로 완전히 메꾸어진 최악의 정황에 처한 50여명의 병사들은 기아와 질식에 직면하여서도 압축공기관으로 주먹밥을 넣는 시간이면 압축공기를 더 보내달라고 하면서 《적기가》를 부르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세상에 이런 불사신의 인간들이 또 어디 있으며 이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당할자 어디 있겠는가.

전투훈련중 풍랑속에 표류된 대좌 김동환이 지휘하는 경비함 《101호》의 군인들은 로케트포까지 쏘아대는 수만명의 대적과 끝까지 맞서 결사전을 벌리다가 혁명의 신념과 의리를 지켜 전원 자폭하였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군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대만이 발휘할수 있는 혁명적 군인정신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우리의 로동계급은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를 지펴올렸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들인 《강계정신》과 《북방의 눈보라》는 이 숭고한 강계정신에 대한 불멸의 화폭이다.

올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이 뜻깊은 해에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가 력력히 맥박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작품마다에 더욱더 투철하게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을

투철하게 체현한 김책형의 충신들인 강태혁과 같은 인간전형, 선군시대 충신의 전형을 더 높은 사상정신적높이에서 더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선군혁명문학의 주인공들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전형들과도 달리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가장 숭고한 수준에서 체현하고있으며 그들의 충실성은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육탄정신에서 그 최고발현을 보이고있다.

일찌기 력사에 없었던 가장 숭고한 높이의 혁명적주인공들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이야말로 선군혁명문학의 주되는 혁신적특징이며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후로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이와 함께 우리 작가들은 선군혁명문학의 전위대이며 그 본보기인 혁명적군인문학의 창조정신과 창작기풍을 끊임없이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정신과 량심의 대변자로,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결사전의 기수가 되고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정신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쓰자면 작가 자신부터 견결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순결하고 깨끗한 량심을 가져야 한다.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오직 깨끗한 마음, 순결한 량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손끝재간을 피울것이 아니라 피끓는 심장파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글을 써야 하며 시 한줄, 소설 한페지를 써도 만사람의 량심에 불을 지필수 있도록 진심이 통하게 써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붓을 쥐고 글을 쓰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명작을 창작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작가들은 우리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이해에 인민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혁명승리에 힘이 되고 량식이 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실적을 내는 실력가,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문학의 앞날은 더없이 휘황찬란하다.

우리 전체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문학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알찬 창작성과로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레성강의 새 전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의 발자취가 송엄히 아로새겨지는 거리와 마을, 일터가 천지개벽이 되고 그이의 손길이 가닿는 곳에서는 산을 떠옮기고 바다도 메워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먹장구름과 뽀얀 안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령을 지켜선 성새와 같고 사납게 휘몰아치던 바람도 그이앞에서는 삼가 머리를 숙이는 특이한 사변을 매일, 매 시각 낚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이다.

몇해전 레성강반에서 일어난 신기한 자연조화도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이심을 만사람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김정일동지는 모든 성공과 승리의 상징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몇해전 12월초 어느날이였다.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레성강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여 그곳 일군들이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아직 아침해가 퍼지지 않은 때였다.

초겨울이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내려간 기온으로 하여 날씨는 쌀쌀하기 그지없었다. 이처럼 찬 날씨에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게 된 안타깝기 이를데없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바재이게 하는것은 어느때없이 짙게 서린 안개였다.

어느때갈으면 한눈에 확 안겨울 발전소건설장이 한치의 앞도 가려볼수 없는 날씨로 하여 뿌옇게 보이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용을 쓰며 일떠서는 발전소건설장의 전경을 그대로 보여드리지 못하게 된 안타까움으로 일군들의 가슴은 참으로 바질바질 타는듯 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과 천기에 대한 신비스러운 일화들이 머리에 밝혀와 이제 안개가 가서지겠지 하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차가 적들의 감시가 미치는 구간에 들어서는 시각 강철의 선군령장을 호위하러는듯 갑자기 먹장구름들이 몰려들어 대덕산일대의 하늘을 뒤덮었다가 차가 그 구간을 지나 대덕산으로 오르기 시작하니 다시 하늘이 환히 개이지 않았던가.

어디 그뿐인가.

초도방어대와 판문점초소, 저 멀리 이국의 거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런 신비한 자연현상들이 일어나 사람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리였던가. ...

드디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설장에 도착하실 시각이 다가왔다.

순간 기다렸다는듯 안개가 언제 끼였던가싶게 하늘에서 태양이 눈이 부실 지경으로 밝은빛을 뿌리였다.

더욱 황홀경을 이룬것은 레성강기슭의 나무아지들에 정가로이 서리꽃이 피어난것이였다.

전설로만 전해오던 신기한 자연현상을 직접 목격한 일군들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현지에 도착하시여 발전소건설장을 한눈에 바라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쁨은 참으로 크시였다.

레성강발전소는 설계부터가 실리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잘된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었던것이다.

거창하게 일떠서고있는 언제와 발전기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선군시대의 훌륭한 창조물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얼마나 만족해하시였던가.

선군의 위용을 떨치며 거창하게 변모되어가는 레성강의 모습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드릴수 있게 된 일군들의 가슴은 솟구치는 걱정으로 바다처럼 끝없이 설레였다.

과연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은 어버이수령님과 똑같이 천기를 안고다니시는 위인, 하늘이 낸 전설적위인이시다!

일군들의 가슴은 진정할수 없는 걱정으로 끝없이 설레였다.

예로부터 날씨의 조화는 하늘만이 안다고 하였다.

전설적애국자, 비범한 선군령장앞에서는 하늘도 삼가 머리를 숙이는 전설 아닌 현실을 가슴벅차도록 체험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더욱 강대하고 부강할 내 조국의 래일을 더욱 굳게 확신한다.

고향으로 가는 길

최남순

평양행 열차는 남으로 달리고있다.

몇시간전까지만 하여도 차창밖으로는 북방의 우중충한 산발들이 다가들더니 지금은 나지막한 야산들이 비껴든다.

백두산에서 돌아오는 나의 마음은 마치 백두에서부터 뒤편히 뻗어내린 이 나라의 산발들을 계단삼아 추억추억 밟고내리는듯싶다.

무릇 산이란 오를 때보다 내릴 때가 쉽다고 하더니만...

아니다. 오를 땀, 오를 때에는 너무도 쉽게 올랐던 백두산이다. 한장의 답사권을 그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고 답사배낭에 손풍금과 기타를 얹은 대학생들과 함께 탔던 북행열차는 얼마나 커다란 흥분속에 떠들썩했던가.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의 시가 요란한 박수갈채우에 떠실려 올랐고 《백두산으로 오르자》라는 노래가 경쾌한 손풍금반주속에 그칠줄 몰랐었다.

지금은... 나는 대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누구라없이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들이다.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쉼내려가다가 수첩에 펜대를 꼭 눌러박고 움직일줄 모르는 녀대학생도, 바람집을 차분히 접은채 그리움이 한껏 어린 눈길로 차창밖을 내다보고있는 손풍금수도 무척 감회깊은 인상이다.

열차는 앞으로 달리고있어도 백두산이 안겨준 숭엄한 그 모든것을 가슴벅차도록 껴안고 가는 저 마음들은 지금도 백두산을 내리지 못하고있으리라. ...

나 역시 귀기울이면 기차의 규칙적인 동음소리가 아니라 스치는 바람결에도 누군가를 부르는듯싶던 이갈숲의 설레임소리가 들리어온다. 눈을 감으면 믿어지지 않을만큼 자그마한 트랙에 낮은 추녀를 이고 서있던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생생히 밟혀온다. 더우기 고향집앞트락에서 있었던 일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것 같다. ...

우리가 백두산고향집을 다 돌아보고 단체별로 고향집을 배경삼아 사진을 찍을 때였다.

먼저 사진을 찍고싶은 마음은 아이들마냥 뽀박질을 해도 온 나라가 찾아온 백두고향집앞이교보니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이때 우리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류다른 행동이 온 답사대오의 관심을 끌어당기였다.

그들은 우리와 한열차를 타고 온 과학원의 청년과학자들이었는데 모두 손에 무엇인가 정히 퍼

들고 사진을 찍는것이였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최근 한두해동안에 그들이 받은 과학기술발명증서들이였다.

답사대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서른안팎의 젊은 그들속엔 나라가 인정하는 박사도 있고 공훈과학자도 있다는것이였다. 사진사가 《하나, 둘—》하며 사진을 찍는 순간 답사대원들속에서는 약속이나 한듯이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정말 대단한 젊은이들이예요.》

《고향집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을 두고 의미심장한 말들이 사람들속에서 오고갔다.

문득 답사를 떠날 때 역에까지 나와 바래주며 나에게 하던 한 대학일군의 말이 다시금 귀전을 두드리였다.

《이번에 학생들과 백두산바람을 마시고 와서는 학급을 학사학급으로 만드는 일을 좀 본때있게 해봅시다.》

그 일군은 우리모두가 저 청년과학자들처럼 의젓한 모습으로 백두산에 오르기를 그때 벌써 바랐던것은 아닌지...

그러니 우리와 같은 열차를 타고 같은 답사로정을 밟아 여기, 백두산으로 왔어도 저 청년과학자들의 걸음의 무게는 우리들에 비할바없이 무겁고 값있는것이였다.

그들은 고향집앞에 몇몇이 설수 있는 이 한순간을 위해 실패로 아픈 하많은 밤을 지새워야 했고 탐구의 먼길을 견인불발의 의지로 헤쳐야 했으리라. 그렇다. 그들은 백두산으로 힘들게 왔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왔다. 힘들게 온것만큼 공지높은 그들앞에 나는 부끄러워졌다. 백두산엔 누구나 다 올순 있어도 백두산에 오를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것은 아니였다. ...

소백수물가에서 휴식을 하며 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중 한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는가고 조용히 물어보았다.

《우리가 무엇인가 좀 큰일을 하고 백두산으로 몇몇이 다시 오자고 결심하게 된것은 몇해전 봄이였습니다. ...》

그때 그들은 정기답사차로 백두산에 왔었다고 한다. 저녁녘에 백두산답사숙영소에 짐을 풀 그들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다.

바로 그날 아침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삼지연읍 거리를 몸소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는것이다.

그때 그 기쁨과 환희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으랴. 그도 그럴것이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게 되어있는 백두산고향집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오실수 있다는, 꼭 오시리라는 예감과 흥분이 청년과학자들의 온몸을 뒹산았기때문이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척에 계신다는 기쁨, 장군님을 백두산고향집트락에서 몸가까이 뵈울수 있다는 환희는 그들을 잠들수 없게 하였다.

숙영지의 밤이 짧았던지 길었던지, 이른아침 숲길에 헤치고 다우쳐 걷는 행군길이 가까웠던지 멀었던지...

허나 그들이 들어서는 백두산밀영고향집의 트락은 너무도 조용했다.

이깁나무아지에서 서리꽃이 피어나는 소리마저 들릴듯싶은 밀림의 고요, 누군가 금방 열고 들어간듯싶은 고향집의 문.

그렇게 한달음에 달려왔건만 정작 고향집트락 앞에 서고보니 그들은 선뜻 걸음을 내어짚을수가 없었다.

쿵—쿵— 심장의 고동소리만이 울리는것 같은 그들의 답사대오앞에 나선 처녀강사의 얼굴도 발그스름하게 상기되어있었다.

청년과학자동지들은 오늘 고향집의 첫 손님이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도 축축히 젖어있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오시지 않은것이였다.

지척에 있는 고향집엔 들리지 못하시고 또다시 멀리 전선길로 떠나가신것이였다.

고향집 무쇠가마에선 어머니께서 끓이시던 산나물국의 구수한 향내가 금시라도 하얀 김을 피어올리며 풍겨올듯싶는데, 사연길은 쪽무늬이불은 오늘도 어머니의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며 넓게만 펼쳐질듯싶는데...

백두산마을—삼지연을 고향이라고 부르며 태어나 자라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번듯하고 훌륭한 거리를 마련해주시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고향이 주는 소박하고 부드러운 추억속에 잠기시여 겹쌓인 피로를 푸시며 고향집트락을 거니는 순간마저 뒤로 미루셔야만 했을 경애하는 장군님!

더욱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안고 찾아오실 불타는 맹세로 가슴속에 사무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달래이시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향 백두산을 떠나시였으리라. ...

자욱자욱 그리움을 남기시고 장군님께서 떠나가신 그 길을 걸어 백두산고향집을 찾아오는 아, 이 나라 사람들의 걸음걸음이어!

《우리가 너무 쉽게 백두산고향집으로 들어섰다는 자책이 가슴을 찔습니다.

너나없이 입버릇처럼 고향이라 부르며 자란 우리의 백두산이 아닙니까. 예로부터 <금의환향>이라고 고향집

문턱을 쉽게 넘어선 애국자는 없었지요. 그때부

터 백두산에 뿔뿔이 오르자고 뭔가 하느라고 했는데... 이번에 고향집에 와보고보니 우리 걸음이 아직도 가벼운것 같습니다.》

소박한 그의 이야기는 끝났어도 나는 청년과학자들이 남겨준 여운을 안고 소백수물가를 거닐고 또 거닐었다.

그 순간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고향집과 그리멀지 않은 북방의 감자포전길을 걸으시는것만 같았고 백두산기슭

귀여운 아이들의 수업을 또 보아주시는것만 같았다.

그이의 가슴속엔 자신의 소박한 고향집에 들리는 기쁨보다도 강성대국의 려명이 불타오른 이땅,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는 거대한 행복감이 용솟음치리라.

문득 해방후에도 항일의 20여성상 그토록 그리시던 고향집이었던만 만경대를 자주 찾으실수 없으셨던 우리 수령님 생각이 났다.

고향에 쏟고싶으셨던 뜨거운 사랑을 이 나라 인민에게 주고 또 주시며 한평생 험한 길만 걸으시던 우리 수령님!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가파로운 오성산과 철령의 전선길을 넘으시고 비내리고 눈내리는 공장길, 농촌길을 끊임없이 걷고 또 걸으신다.

어찌하여 백두산위인들의 귀향길은 그리도 멀고 험해야 했으며 자욱자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이기는 헌신과 로고의 길이여야만 했던가.

그것은 그분들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신 까닭이리라.

언제 어느때 들어서도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조국애가 넘치는 잊지 못할 자장가소리가 들리어 오고 위대한 성장에 바쳐진 부모님들의 뜨거운 숨결이 사무쳐와 혁명의 먼길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는 고향집.

거기엔 조국과 민족을 부락하신 부모님들의 절절한 당부가 세월이 가도 진함이 없을 고향의 사랑으로 깃들어있기에 백두산위인들은 마음속에 고향집의 문턱을 스스로 높이 쌓으시고 고향으로 가시는 길에 조국을 위해 불태우신 청춘을 없으시였고 인민을 위한 한생을 세우신것이였다.

그렇다. 오늘도 장군님 가시는 그 모든 길은 백두산에 잇닿아있는것이 아닌가.

장군님의 그 고향길에 마음을 합치고 순결한 삶을 따라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조선사람이 아니며 백두산에 오를 자격이 없다.

아, 너무도 작고 가벼운 나의 발자국도 흰눈덮인 고향집 정갈한 트락우에 찍게 해준 우리모두의 백두산은 떠나는 나에게 이렇게 웨치는것만 같았다.

—우리 장군님처럼 고향을 사랑하라고!

백두산의 그 절절한 당부를 품어안고 렬차는 달린다.

차창밖을 내다보니 이제는 드넓은 전야가 펼쳐진다.

허나 나는 20대 초엽의 쟁쟁한 학사가 된 제자들을 앞세우고 백두산으로 오르려고 마주 달려오는 앞날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조국의 무게를 더해줄 가치있는 창조물을 안고 또다시 고향집으로 달려가는 청년과학자

들의 래일의 모습도, 이 땅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어버이장군님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오른 온 나라의 모습도 다 본다.

어제도 오늘도 자식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인양 눈보라를 흰저고리고름처럼 날리며 우리를 그냥 그냥 지켜보아줄 백두산이여!

시대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영원히 사랑하는 고향길—백두산길에서 내리지 않을 나의 인생을 축복해달라, 그리고 믿어달라.

담시

다시 찍은 사진

김정경

못내 기쁘셨네
장자강에 일어선 또 하나의 발전소
일일이 돌아보신 우리 장군님
정말 수고했다 치하하시며
기념사진 남기자고 일군들을 부르셨네

전경도앞에서 찍으면 좋겠다고
발전소구내에서 찍으면 좋겠다고
일군들은 저마다 말씀올리며
들먹이는 마음 감출줄 모르는데

—아니요
청년들의 위훈이 제일 잘 보이는
장쾌한 언제를 배경으로 찍자구
장군님은 즐겁게 말씀하시며
뜨거운 피약별이 내려쬐이는
퍼그나 먼곳까지 걸어나오시었네

행복한이 순간이 하냥 좋아서
일군들은 칠없는 아이들마냥
장군님 가까이에서 서고싶어 안절부절
그 순간을 영원히 멈춰세우는
샤타소리 찰작 울린 때에야

아뿔싸!
그만에야 지배인은 생각이 났네
행복의 이 순간에 없는 당비서

영광의 이 자리에 자신만 서있음을
—장군님
사진을 한번만 더 찍어주십시오
너무나 버릇없는 행동인줄 알면서도
소탈하신 장군님의 인품에 끌려
지배인은 주저없이 말씀올렸네
—당비서동무가 지금 배전반실에서 근무를…
—허, 이런 랑패라구야
일군들을 둘러보며
장군님은 호탕하게 웃으시었네
그러시면서도 그 지배인이 대견해
다시 바라보시고…
—어서 데려오라구
아무리 같길이 바빠도
우린 여기서 기다리자구

피약별은 뜨거이 내려쬐이고
장군님은 한나절이라도 기다려 서계실듯
달려가는 지배인은 나래가 돋힌듯
(아무렴, 우리 장군님이시니
이런 외람된 청도 기꺼이 들어주시는게지)

이렇게 다시 샤타소리 울렸네
한 평범한 당일군에겐
영원한 행복의 웃음이 찍히고
우리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엔
송송히 땀이 맺혔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품모와 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후계자는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뛰어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이다. 후계자는 수령의 활동을 몸가끼이에서 보좌하고 수령의 위업을 받들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반을 조직령도하는 과정에 누구도 허물수 없는 혁명업적을 쌓아올린다. 문학에서는 후계자가 이러한 혁명업적을 통하여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하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품모를 감동깊이 형상하여야 한다. 후계자는 선행한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후계자이지만 인민과의 관계에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문학에서 후계자의 형상을 창조할 때에는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하여야 한다.》

해뜨는 아침에

김효수

해가 뜨면 전선길의 아침이
시작되는줄 알았더니
우리 장군님 벌써
전선에 나가계셨네

새벽잠은 꿀잠인데
우리가 너무 서두른것 같다고
지금쯤 우리 병사들 달콤한 꿈속에서
고향에 가있을거라 하시며
장군님 조용히 운전사에게 이르신다
경적소리 내지 말라고
그리고 초소앞 고개아래
멈춰세우라고

오, 모닥불이 타오른다
우리 장군님
삭정이를 모으시여
몸소 지피신 모닥불

병사들의 행복의 꿈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불길되어 타오르는 모닥불

저 모닥불에서
밝아오는것 아니던가
전선길의 새 아침
병사들을 위하시는 뜨거운 사랑
내 조국의 아침해가 되어 떠오르는가

아 장군님은 전선에서
내 조국에 사랑의 새 아침 펼쳐주시네

가사

전선길에 별무리 흐르네

주광일

굽이굽이 전선길에 밤은 깊어가는데
야전차 차창가에 별무리 흐르네
그리워 달려오는 병사들의 눈빛인가
장군님은 못 잊을 모습들을 그려보시네

한번 보면 다시 또 보고싶은 얼굴들이
장군님을 반기며 밝은 빛을 뿌리네
한품에 안고싶은 미더운 병사들을
눈앞에 그리시며 험한 령을 넘으시네

동이 트고 날이 새면 이밤은 끝나도
전선길의 별무리는 끝없이 흐르리
그이 품에 행복한 병사들의 모습인가
전선길의 별무리는 야전차를 따라서네

아 전선길에 별무리 흐르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나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먹으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한 그의 인생은 첫시작부터가 남다른것이였습니다.

김정일이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수 있는것은 선천적인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기때문입니다.

김정일이 어린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조숙한것도 빨찌산의 물을 먹으며 자랐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빨찌산들이 지니고있던 고결한 감정정서는 풍만한 자양이 되어 그의 녀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백두산의 뒤편처럼 억센 그들의 기질은 그의 남아다운 성격에 피와 살을 보태주었습니다.》

백두산전설

등 귀 신

아시아의 《맹주》가 될 어리석은 망상이 고무 풍선처럼 부풀어있던 일제는 광대한 중국대륙을 깡그리 삼켜보려고 마지막발악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김일성장군유격대에 번번이 발목을 잡혀 아우성을 쳤다.

김일성장군유격대를 《소멸》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어렵다는것을 깨달은 일제는 제놈들의 군대, 경찰들을 총동원하여 일격에 없애버릴 《동기대로벌》 작전을 폈다.

그해 겨울은 수십년 이래 처음보는 강설로 매일과 같이 눈보라가 기승을 부렸고 령하 40도를 오르내려 얼어죽은 짐승들의 시체가 밭에 걸채었다.

왜놈들은 제놈들의 《토벌작전》으로 하여 유격대는 《얼어죽고말것》이라고 장담했다.

어느 한 지구 《토벌》대를 책임진 하시모도사령관은 유격대소부대의 꼬리를 쥐자 내심 패채를 올렸다.

(이 겨울은 우리 황군에게 행운의 겨울이 될것이다.)

온몸을 눈만 내놓고는 털로 칭칭 감은 왜놈들은 검질기게 유격대의 뒤를 쫓았다.

그렇게 쫓느라 언젠가는 유격대가 허기지고 지쳐 쓰러져 얼어죽고말것이라고 《토벌》대사령관 하시모도는 생각했다.

유격대도 인간이다. 그럴진대 먹고 입어야 할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지금 유격대의 형편은 어떠한가. 적들의 형편에 비해볼 때 너무도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

검질기게 꼬리를 쥐고 놓지 말라.

박달나무도 쨍쨍 얼어터지는 어느날의 깊은 밤 부관이 흐뭇한 보고를 가지고 들어왔다.

《보고! 또 한명의 유격대가 쓰러져 부축되는것을 척후대가 발견했습니다.》

《그래?!... 또 한명이라...》

어제도 그런 보고가 들어왔었다. 분명 유격대에 식량이 떨어진것이다. 먹지 못하고서야 몇날을 갈텐가.

《좋아, 좋아. 우등불을 피우고 몸들을 녹이게 하라.》

《हां!》

얼마 안 있어 《토벌》대의 숙영지들에서 모닥불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온종일 몸들이 얼어든 졸병들이 껍뻑 고아대며 서로 불을 쪼이겠다고 아귀다툼이다.

그런데 별안간 사방에서 쿵뽏뽏 하는 총소리가 터지더니 귀전으로 탄알이 뿔뿔 지나갔다.

《유격대다!》

그 자리에 머리를 구겨박는 놈, 산으로 들구 뛰다 꼬꾸라지는 놈, 공중에 대고 헛총질을 하는 놈, 아버지환이 일었다.

총소리가 멎은 뒤에도 어디서 또 유격대가 나타날지 몰라 온밤 불도 피우지 못하고 지내었다.

어찌된 일인지 밤이 되어 불만 피우면 어김없이 유격대가 나타나는것이였다.

이제는 불을 못 피운지도 며칠이 잘되였다. 이제는 밤잠도 제대로 잘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시모도는 새벽이 되면 영악없이 졸병들을 다시 일으켜세워 《토벌》대로 내몰았다. 이번에는 기어코 유격대를 전멸시키고말겠다는 야심이 가슴속에 해불처럼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졸병들이 눈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얼어죽는다고 우는 소리를 해도 하시모도는 검질긴 추격을 멈추지않았다.

하시모도는 장교들에게 이렇게 지껄이곤 했다.

《조금만 더 참아내라. 우리 형편이 이러하니 유격대는 곱절이나 더 지쳤을것이다. 며칠째 난알구경도 못하였으니 이제 얼마 못 가서 다 쓰러지고

말것이다. 자, 행군속도를 높이라. —》

하시모도사령관은 한편 척후대에 유격대의 꼬리를 바짝 따라서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척후대에서 들어온 보고에 그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보고! 유격대는 지금 오락회를 벌리고있습니다.》 《오락회?!...》

하시모도는 머리를 흔들었다. 유격대가 며칠째 잠을 못 자더니 정신착란이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다 쓰러질 때가 됐으리라 믿었는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있다니... 아니 저들이라고 무쇠로 만든 인간이 아닐진대 어떻게?...

하시모도사령관은 그길로 척후대가 차지한 계선으로 나갔다. 제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웠던것이다.

그곳에서 유격대의 숙영지가 지척인듯 보였다. 우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속에서 하모니카소리가 울리고 그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돌아가는 유격대가 보였다. 이거야말로 귀신이 곡할노릇이다.

하시모도는 자기가 꿈을 꾸고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꼭 어떤 귀신에게 홀리운것 같은 미심쩍은 예감이 등골을 선뜩하게 했다.

자기들은 유격대가 무서워 볼도 못 피우고 추위에 떨며 이밤을 새우고있는데 유격대는 태평스럽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시모도사령관은 겨우 자기 몸을 가다듬고 숙영지로 돌아왔다. 여기저기 되는데로 쫓그리고 앉거나 자빠져 펴고있는 졸병들이 발에 걸채였다.

가까이에서 소곤소곤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라다, 마사무네. 자네들 귀신이야기 아는가?》

《귀신?!》

《무슨 귀신이란 말인가?》

《이 만주땅엔 귀신이나 아주 많다. 산에 가면 산귀신이 있고 물있는 곳에 가면 물귀신이 있다. 모두 사람을 잡아먹고산다. 우리 황군만을 잡아먹는단 말이다.》

《재수없게서리 무슨 왕청같은 귀신소린가?...》

듣는 놈도 무섭증이 나는지 불평했다. 그러나 귀신소리를 꺼낸 놈은 계속 지껄여댄다.

《그러나 그쯤한건 넘려할것 없다. 이런 밀림에서 제일로 무서운것은 동귀신이다. 우리 사령관님이 언제인가 수하병졸들을 동귀신에게 다 먹히우고 가까스로 살아남은걸 아는가?》

하시모도사령관은 저도 모르게 손이 칼집에 갔다. 순식간에 여기에 모인 놈들의 목을 땡겨땡겨 베어버리고싶었다. 그러나 그놈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슴을 섬찝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 가까스로 참아냈다.

참으로 그런 일이있었다.

그때 하시모도는 《토벌》대를 이끌고 지금처럼 유격대를 찾아 헤매던 중에 부후물등판에서 **김일성**장군부대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을 목표표로 기를 쓰고 추격전을 벌렸다.

꼬박 사흘간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피오줌을 싸면서...

그런데 방금 지나간듯 한 발자국은 있으나 유격대는 통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나 정신없이 따라왔는지 자기들은 깊고깊은 원시림속에 들어와있었고 방향도 가늠할수 없었다. 달빛도 별빛도 이밤에는 사라지고말았다.

마침내 그 발자국마저 없어졌다.

하시모도는 자기가 귀신에게 홀리웠다고 생각했다.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찾아들었는가?

사방에선 우—우— 하는 승냥이울음소리만이 들려왔다.

이때였다. 갑자기 앞쪽에서 걸어가던 한 졸병이 욱 하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자빠지는것이였다.

《뭐야?》

하시모도가 졸병을 일으켜세웠다.

그런데 졸병놈은 반정신이 나갔는지 손가락으로 밀림속 한곳을 가리키며 《귀신이다! 동귀신이다! —》 하고소리를 질러댔다. 하시모도는 무섭증이 오싹했으나 참고건디며 졸병놈의 따귀를 쳤다.

《귀신이나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가?》

《사... 사령관님! 저기 흰옷입은 귀신이 오락가락합니다요.》

《흰옷입은 귀신?》

하시모도는 사방을 잔잔히 둘러보았다.

분명 밀림속 나무들사이로 무엇인가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듯 했다.

백곰인가? 하지만 곰갈지도 않았고 사람갈지도 않았다. 굳이 말해야 한다면 눈사람이라고 해야 옳을것인데 바람처럼 오락가락하는것이 이상했다.

이때 하시모도의 뇌리를 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언젠가 선임 《토벌》사령관이 자기에게 들려준 말, 백두산대장수께서는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리시는데 눈덩이 하나를 창턱에 빚어놓고 능히 생명을 불어넣어 일본군대를 쓸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였다.

그러니 필경 저 눈사람들 아니, 동귀신들은 백두산대장수께서 조화를 부리시는것들이다.

하시모도는 저도 모르게 권총을 뽑아들었다.

《야, 저기 어슬렁대는것들은모두 우릴 일궈죽이려는 동귀신들이다. 모두다 일제사격!》

《토벌》대는 절망에 빠져 몸부림쳤다. 어떤자는 공중에 대고 총을 쏘는가 하면 또 어떤자는 신령

님에게 살려주십사 빌고있었다.

그밤 아닌게 아니라 동귀신이 덮쳐들었다. 하여 부대의 과반수가 얼어죽고만것이다.

하시모도는 죽은자들의 털외투를 벗기고 그것을 뒤집어쓴채로 몇 안되는 살아남은자들과 함께 수림을 빠져나왔다. ...

지금에 와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

그 불쾌한 일을 되살려준 졸병놈들이 꽤쌌했다.

정말로 그때의 그 동귀신이 우리를 노려보고있는것이 아닐까. 하시모도는 다시 사위를 둘러보았다. 저 어둠에 덮인 장막의 한쪽에 그때의 동귀신이 웅크리고있는줄 누가 알랴.

생각할수록 머리칼이 쭈뼛 일어서는것 같았다. 며칠났, 며칠밤을 유격대를 《추격》했다. 아니 끌려다녔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혹 이것이 동귀신의 작간이 아닌지...

이제는 유격대를 피해 돌아설래야 돌아설수도 없는 신세였고 우등불조차 피울수 없는 형편이었다.

불을 지필라 하면 어느새 유격대가 나타나 불벼락을 안기군 했던것이다.

울며 겨자먹는다고 싫든좋든 공손하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만것이다.

유격대의 숙영지에선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노래소리가 울리지만 하시모도의 《토벌》대에서는 동귀신에게 홀리워 얼어죽는 졸병들이 매일 밤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시모도는 자신도 이제는 마지막기력이 쇠잔해지고있음을 느꼈다.

아, 이렇게 죽고마는가. 부귀와출세, 승진일로의

무지개꿈은 과연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어느날 유격대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보고섰던 하시모도는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 환각에 스스로 주저앉았다. 그러다가 버쩍 눈을 떴다.

순간 보기에도 차디찬 얼음발수염에 얼음눈섭을 한 동귀신이 하시모도를 향해 히물히물 웃으며 다가오고있었다.

《다... 당신은 누구요?...》

하시모도는 입안이 얼어들어 겨우 이 말을 떠듬거렸다.

《난 이 땅에 사는 동장군이다. 너희들의 말로는 동귀신이고... 너희들은 왜적의 무리로서 신성한 이 땅에 더러운 자옥을 남겼은즉 살아서 돌아가길 바라지 말아라. 이것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과업이다.》

하시모도는 동귀신의 손에서 몸을 빼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안타깝게도 손가락 하나 움직여지질 않았다.

아, 동귀신이라는게 무언가 했더니 이런것이구나. 우리 《황군》만을 데려간다는 동귀신...

하시모도는 종시 눈을 뜨지 못하고 《동귀신》의 손에 고스란히 운명을 맡기고말았다.

그후 왜놈들속에서는 동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입 두입을 건느는 과정에 보태여지고 가지를 쳐서 누구나 제가 본듯이 말을 하고 제가 겪은듯이 말을 옮기군 했다고 한다.

김종석

가사

영원한 승리의 보검

백두의 뉘를 재워 흔들림없고
설한풍에 버리어 서슬푸르다
장군님 기상어린 이 총대우에
강성대국 봄하늘이 창창 열렸다
아, 백두산총대는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보검

이 총대 높이 든 선군의 길은
백승의 천만리로 뻗어있어라
장군님신념 비끼 이 총대앞에

침략자는 멸망을 피할길 없다
아, 백두산총대는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보검

정의의 이 총대 나가는 길에
김일성조선의 번영이 있다
장군님 선군혁명최후승리를
백두산총대로 이룩하리라
아, 백두산총대는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보검

류정실



김룡연

날은 벌써 어두웠다.

해가 떨어진지 오랜 대기는 산뜻하게 차다. 그러나 오진우는 그 모든것을 전혀 감촉하지 못하였다.

그는 며칠째 이맘때면 혼자 정원에 나와 거닐면서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제는 수십번도 더 돌이켜보는일이다. 일생에서 요즈음처럼 마음이 괴롭고 후회가 커보기는 처음인것 같았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어느분들의 앞이라고 한생 군복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그런 외람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단 말인가.

내가 얼마나 불충분한 인간인가. 그처럼 큰 믿음과 기대에 철없는 아이처럼 행동하다니…)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또 가슴이 뻘뻘 달아올랐다. 자각지심정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분같은것이 격렬하게 끓어번졌다.

목단추를 끌러놓았으나 가슴은 여전히 달아오르고 답답하였다. 옷단추 두개를 또 벗겼다. 그런데도 시원하거나 마음이 가벼워지는감은 없다.

오진우는 손을 앞으로 모두어 꼭 움켜잡은채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걸었다. 그때 있었던 일은 돌이켜보기조차 두렵고 송구스러웠다.

오진우가 부름을 받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방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도 함께 계시었다.

《범이 체소릴 하면 온다더니 옛말 그른데가 없는것 같군. 허허…》 《그런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 만면에 미소를 담으시고 말씀하시자 김정일동지께서도 동감을 표시하시며 밝게 웃으시었다.

무슨 말씀을 주고받으셨는지 두분은 기분이 대

우 좋으시었다.

《어서 들어오오. 이쪽으로 와서앉소.》

수령님께서서는 영문을 몰라서 좀 어정쩡해있는 오진우더러 한쪽에 놓여있는 소파를 가리키셨다.

김정일동지께서 마주 걸어나오시여 오진우의 한쪽팔을 잡아주기까지 하시었다. 오진우를 앉힌 다음 자신께서도 그옆에 자리를 잡으시었다.

《그래 요즈음 건강은 어땡소? 최전연에랑 나가서 며칠씩 지낸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몸도 돌봐야 하오.》

《전 별일 없습니다. 수령님께서와 지도자동지께서 밤을 지새시며 너무 무리하게 일하시는게 오히려 걱정됩니다.》

《난 조직비서동무가 잘 돌봐주어 아무 넘려가 없소. 김정일동무가 자기 몸을 너무 혹사하는게 탈이지.》

수령님께서서는 두팔을 드시여 우쥌 힘을 주시며 김정일동지를 바라보시었다.

《나야 아직 젊지 않았습니까.》

《젊어도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매일 밤을 새다 싶이 해서야 강신들 견디겠소.》

《웁습니다. 저희들이 제구실을 못하다보니 지도자동지께서 모든 일을 다 맡아안으시고…》

오진우가 죄송스러운듯 조심스레 일어서며 말쑤드렸다.

《오진우동지, 젊은 사람을 놓고…》

김정일동지께서 오진우의 군복뒤자락을 가볍게 잡고 도로 앉히시며 조용히 나무람하시었다.

《우리 김정일동무의 사업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합시다.》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밝으신 얼굴로 나직이 뇌이시었다. 그러시고는 오진우더러 다시 물으시었다.

《지금 오동무의 나이가 어떻게 되드라?》

《한일도 없이 올해 예순두살이 됐습니다.》

오진우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마주잡
았던 손을 옆으로 붙이며 대답을렸다.

《았소.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수령님께서 손을 드시여 오진우가 앉을 때까
지 아래로 자꾸 흔드시었다.

《예순두살이라, 예순두살이면 정숙동무와 동갑
이구만. 세월이 참빠르기도 하오. 열다섯살나는
홍안의 오창묵(오진우의 본명)이 나를 찾아와 유
격대에 입대시켜달라고 조르던 일이 었그제 같은
데 벌써 머리에 흰서리를 었다니...》

수령님께서 방금전에 지으셨던 미소대신 추
연한 안색으로 창박을 바라보시었다.

복중의 무더위에 시달리던 정원수들이 날씨가
선선해지자 한결 생기를 되찾은듯싶었다. 파란 잎
새들이 해빛을 가다가득 받아물고 바람에 조용히
흐느적이다. 부리가 긴데 비해 몸집이 그리 크지
않은 메새 두마리가 나무아지에 앉아 목을 이쪽
저쪽으로 가웃거리며 경쟁이라도 하듯 깃을 부지
런히 다듬었다.

생은 어디서나 약동하고있다.

수령님께서 그런 바깥풍경을 한동안 바라보
시다가 시선을 옮기시여 다시 오진우를 일별하시
더니 말씀을 이으시었다.

아까보다 펍 심중하신 목소리였다.

《오늘 오진우동무를 이렇게 부른건 한가지 중
요한 문제를 상론하고싶어서입니다. 동무도 알고
있지만 얼마전에 인민군총정치국장사업을 하던
서철동무가 당중앙위원회로 소환되었습시다.

그래서 당에서는 그 직무에 오진우동무를 겸임
하게 하자고 토론중에 있습니다. 방금 김정일동무
와도 그 문제를 의논하던중입니다.》

《제가 총정치국장을 맡입니까?》

오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몹시 놀라는
것 같았다. 아까와는 달리 두손이 바지흔술에 꽂
곳이 붙었다.

《그렇소. 인민무력부장동무에게 총정치국장의
직무를 겸직시키자고 그럽니다.》

《겸직 맡입니까?》

오진우는 또 한번 흠칫하며 이번에도 수령님의
말씀을 되받아 외쳤다.

침착하고 과묵한 오진우에게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일이었다. 그만큼 마음의 안정을 잃고 흥
분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수령님께서 온몸에 강직이 온것처럼 굳어진
채로 서있는 오진우더러 다시 앉으라고 손짓하시
였다. 그러나 그는 좀처럼 움직일념을 못했다.

《왜 그렇게 놀라면서 그러오?》

수령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으나 오진우는 머리
를 수그린채 아무 대답도 못 드렸다. 한초한초가
천년처럼 길었다. 한참만에 머리를 들더니 주눅이

든 몹시 저어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령님...》

애원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깊이 생각던 끝에
결심하고 하는 목소리 같았다.

그러나 더 다음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머리를
수그렸다.

《뭘 그렇게바재이면서 그러오? 어서 말하오. 동
무야 이미 총정치국장사업을 해본 경험도 있지
않소?》

수령님의 그 말씀에 오진우는 이번에도 머리를
번쩍 들고 그이를 우려했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
는 아까보다 더 짙은 고뇌와 번민이 그림자가 비
껴있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답을 못 드렸다.

《내앞에서 〈알았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하는 대답밖에 모르던 오진우동무가 오늘은 웬일
이요?》

수령님께서 오른손으로 책상을 가볍게 다독이
시며 창박으로 다시 시선을 보내시었다.

깃을 부지런히 다듬던 두마리의 메새는 어디로
날아가버린것 같다. 정원수들의 잎새에 비껴있던
빛도 아까보다는 펍 엷어졌다. 그래서인지 나무들
은 다가오는 락엽계절을 근심하는것처럼 좀 시들
해보였다.

두손을 마주잡고 소파에 정중히 앉아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 오진우의 옆모습을 한참이나 바
라보시었다. 그러시다가 수령님께서 말씀이 없으
시는 기회에 나직이 부르시었다.

《오진우동지.》

그이의 안광에서는 따뜻한 미소가 흐르고있었
다.

오진우는 아직도 두팔을 바지흔술에 꼭 붙인채
김정일동지쪽으로 몸을 약간 돌렸다. 무슨 구원이
라도 청하는 사람처럼 그이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러는 오진우에게 의미깊은
시선을 보내시며 조용히 이르시었다.

《오진우동지, 힘이 좀 부치면 우리가 곁에 있지
않습니까. 혁명동지들과 젊은 사람들이 힘껏 돕게
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의미있는 시선과 고무에 오진우
는 한결 힘을 얻은듯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답
이 있을줄 알았다. 하지만 또 머리를 수긋하고 침
묵을 지켰다. 좀 있다가는 가는 한숨이 새어나왔
다.

수령님께서 그러는 오진우를 바라보시다가
가볍게 웃음을 터치시었다.

《허허... 내 앞에서있는 사람이 우리와 50년 가
까운 세월 혁명을 같이해온 오진우가 웅건 웅소?
생관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것 같구만. ...》

수령님의 목소리는 헉헉하시였으나 존안은 여
간 서운한 기색이 아니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겨계신듯 싶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 조용히 일어나시여 수령님께 나직이 말씀드리시었다.

《오진우동지는 원래 일을 두고는 흥정을 모르는 무관형의 지휘관인데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까지 책임지라고 하니 심중해지고 걱정이 커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언제인가도 새 세대 지휘관들을 맡아 교양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진우동지는 근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멋들어지게 해냈습니다.》

《하긴 우리가 빨찌산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년 세월 혁명을 해오면서 보면 요란한 혁명적언사는 없어도 말없이 고지식하고 속이 깊은 사람들이 실속있고 일을 잘한것만은 사실이요. 그렇지만 오진우동무의 경우야 언제 내가 주는 명령이나 과업을 놓고 우물쭈물하거나 대답을 못해본적이 있소? 내 기억엔 그런적이 한번도 없는것 같은데...》

수령님의 어조에는 한없는 따사로움과 너그러움이 담겨져있었다.

오진우는 안타깝고 송구스러웠다.

김정일동지께서 못하게 노는 자기를 힐책할 대신 오히려 편역을 드시는것이 아닌가.

김정일동지께서 방금 수령님께 말씀드린 그일로 말하면 오진우자신이 멋들어지게 해내기는커녕실은 그이께서 방법론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신대로 하였을뿐이었다.

그때도 오진우는 싸움을 하거나 다른 군사과업같은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교양하는수완같은것은 없다며 몹시 망설이고 걱정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러는 오진우더러 대답이 앞서는것보다 일을 두고 걱정하는걸 보니 잘 해낼수 있을것 같다고 오히려 만족해하시었다. 어느날에는 그와 함께 산책하시면서 한생 지침으로 삼아야 할 뜻깊은 말씀도 해주시었다. 운치를 돌구는 어느 한 정원수앞에 이르렀을 때 그 나무를 가리키시며 하신 말씀은 지금도 가슴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있다.

정원에 있는 이 나무도 처음 산에서 떠났을 때에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춘 나무가 아니었을것이다.

이 나무가 여기 정원의 운치를 돌구는 값진 나무로 된데는 아지를 칠것은 치고 다스릴것은 다스리면서 나무를 키우는데 기울인 원예사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과 정성이 깃들어있다.

우리가 지휘성원들을 키우는것도 리치는 마찬가지이다. 원예사가 밀거름을 주고 결가지를 다듬으며 나무를 가꾸듯이 공력을 들여 일군들 한사

람한사람을 잘 키운다면 그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일군으로 키울수 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꼭 잘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대답을 올릴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만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진우가 끝까지 시원한 대답을 못하자 수령님께 그가 좀더 생각해볼 말미를 주자며 담화를 끝낼것을 말씀드리었다.

《그렇게 합시다. 조직비서동무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오진우동무는 다시 잘 생각해보시오.》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힘을 보태드리지는 못할망정 심중에 섭섭함과 시름을 덧었다니... 김정일동지께서는 또 얼마나 나를 민망스럽게 행동한다고 나무람하실가!)

오진우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혼신의 기력이 다 발밑으로 쭉 빠져 달아나는듯싶었다. 두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눈을 꼭 감은채 한자리에 서버렸다.

이제라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앉아 용서를 빌고싶었다. 미력하지만 맡겨주시는 새 직무를 한몸바쳐 잘 수행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싶었다.

내가 왜 수령님과 김정일동지앞에서 선뜻 하겠다고, 해낼수 있다고 시원스레 대답을 올리지 못했던가.

신념이 약해진탓인가.

벌써 혁명에 권태감을 느꼈는가.

아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시각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신념에는 추호의 드림이나 흔들림도 없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해방하고 수령님의 품에서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온 세상이 보란듯이 세우자고 백두광야에서 선혈을 뿌리며 싸운 혁명동지들, 전우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쟁쟁한데, 나라의 절반땅이 아직도 미국놈들의 군화밑에 짓밟혀있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했는데 혁명대오에서 물러나려 했는가?...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육체의 기력이 쇠진해져 중임앞에서 겁을 먹은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자신들의 한몸은 조금도 돌보이지 않으면서 혁명전사들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사랑이란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에 안겨살기에 이 오진우는 오히려 정신력이건 육체건 갱소년하고있다. 이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고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주저한것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용서를 빌자!

그러나 다음순간 오진우는 전기에라도 감전된 사람처럼 와들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도리머리질을 했다.

(안돼! 안되구말구. 내가 무슨 망녕된 생각을... 아, 희세의 위인들을 받들어모시고 보좌하기에는 이 오진우의 능력이나 힘이 너무도 미력하고 보잘것 없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곱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 뺨을 타고 드르륵 굴러떨어졌다. 자신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가슴에 서려돌았다.

갑자기 눈앞이 흰한감이 들었다. 감고있던 눈을 떠보니 정원등이 켜져있다.

등뒤에서 조심스러우면서도 빠른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오진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문대는데 척 하며 눈귀를 주근주근 놀렸다.

부관이 손에 봄가을외투를 들고 다가와서 옆에 조용히 선다.

《방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나왔나?》

《방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지도자동지께서?!》

오진우는 지금까지 고뇌에 있던 사람같지 않게 황급히 부관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말씀이 계셨소?》

《인민무력부장동지가 지금 어데 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밖에 혼자 있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벌써 밤날씨가 산산한데 감기에 걸리겠다고 걱정하시며 당장 봄가을외투를 가져다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구 밖에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하라구 하셨습니다.》

《학명이, 공연한 말씀을 올려가지구.》

오진우는 곱지 않은 눈길로 부관을 흘겨보았다.

《다른 지시나 전화를 바꾸라는 말씀은 안 계시구?》

오진우는 자기가 전화를 받지 못한 불찰이 마치 부관에게 있기라도 한것처럼 여전히 목소리가 투명스러웠다.

《다시 전화를 걸어주시겠습니까.》

《그래?! 가자! 어서 가자!》

오진우는 부관이 내미는 외투를 받아들기는 했지만 입을넘은 앓고 어디로 가자는것인지 두서없이 허둥거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서 헤여진 후에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두번씩이나 오진우를 불러주시었다.

그때마다 그는 또다시 그 임명문제를 놓고 자기의 의향을 물으시거나 앓을가 하고 은근히 마음을 썼다. 만약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기만 한다면

면 자신의 고뇌와 번민에 대하여 죄다 말씀드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수령님과 김정일동지앞에서 무엄하게 침묵하고있었던 그날의 자기행동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싶었다.

하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감감 잊으신듯 묻기는커녕 전혀 상기조차 하지 않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 하루는 오진우를 불러 사격장에서 함께 권총사격을 하신적이 있었다. 《빨찌산 때부터 오진우동지의 사격술이 보통이 아니라고 수령님께서와 우리 어머니께서 자주 외우시는것들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어디 솜씨를 좀 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 까만 윤이 나는 권총탄창에 손수 탄알을 한발두발 채우시며 말씀하시었다.

《무슨 파찬의 말씀을... 제 사격술이야 그저 보통정도입니다. 이리 주십시오. 제가 장진하겠습니다.》

오진우는 송구해하며 말씀을 받으면서도 칭찬에 성수가 나서 사격에서는 아직 남에게 양보하고싶지 않다는듯 팔소매까지 쓱쓱 걷어올렸다.

《자신있다는 기센데 그럼 한번 겨뤄봅시다.》

이날 사격은 두번 하였는데 한번에 각각 세발씩 쏘게 되었다.

처음 한번은 먼저 오진우가 쏘고 같은 목표판에 후에 김정일동지께서 사격하시었다. 다음 한번은 새 목표를 내다세우고 김정일동지께서 먼저 사격하신 다음 오진우가 후에 쏘았다.

그런데 사격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오진우가 쏜 탄착점은 두 목표에서 다 목표의 중심환에서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 김정일동지께서 쏜 탄착점은 도무지 한구멍밖에 찾을수 없는것이였다. 목표수들은 물론 오진우까지도 처음 한동안 어리둥절하였다.

《오진우동지의 사격솜씨에 놀라 내가 쏜 총탄들은 다 물먹으러 달아났는가. ... 덤비지 말고 잘 찾아보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유모아로 말씀하시었다.

다음순간 목표판앞에 섰던 사람들은 환성을 질렀다. 두 목표판의 제일 중심환에 류달리 큰 통구멍이 나있었던것이다. 자세히 보니 분명 세발의 총탄이 한곳을 뚫고나간것이다.

김정일동지의 사격술이 놀랍다는 소문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오진우자신이 여러번 목격하였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통구멍난 목표판을 보니 놀랍고 신비스럽다는 말로도 그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도 김정일동지께서는 오히려 오진우의 사격술을 치하하시었다.

《나는 오늘 저 목표판을 보면서 우리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싸우던 빨찌산투사들이 다르

다는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쏘신 목표의 중심에 항일투사들이 따라서 통구멍을 뚫었던것처럼 우리 전체 인민군군인들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격에서 통구멍난 저 목표판은 매우 상징적이고 뜻이 깊은것입니다. 오늘 사격하는것을 보니 오진우동지는 예나 다름없이 우리 혁명의 전열에서 전진하고있습니다.나는 이것이 기쁩니다.》

또 한번은 김정일동지께서 오진우를 데리고 어느 한 인민군구분대에 나가셨는데 그가 전사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무릎싸움도 하는것을 보시고는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그때 오진우는 그이를 모신 기쁨에 만시름을 다 잊고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자기를 찾아주시겠다는것이다. 그날부터 그리움은 더욱 못견디게 가슴을 흔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약속대로 전화를 걸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처 인사를 올리기도 전에 오진우의 안부부터 물으신 다음 야전복차림에 장화를 준비해가지고 어느 한장소에 도착하라고 이르시였다.

《장화 말입니까?》

《오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따뜻함이 어려있었다. 그 목소리를 놓치기라도 할가봐 오진우는 두손으로 송수화기를 꼭 잡은채 오래도록 귀에 대고있었다. 징— 하고 전류흐르는 소리가 난지도 이속해서야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전화를 놓았다. 그리고도 또 전화종소리가 울릴것 같아 그 자리에 한참이나 서있었다.

기다리겠다고 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떠올라 그는 황황히 차비를 하였다. 야전복차림에 장화를 신었다. 군복우에 혁띠까지 띠었다. 혁띠구멍이 전보다 한개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몸이 준것인가. 아니, 꼭 조여서 그런지 모른다.

김정일동지께서 야전복차림으로 오라고 하실 때는 무슨 중요하고 긴급한 과업이 제기된것이 틀림없다. 전선시찰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오진우는 따라서는 부관을 떨구어두고 혼자서 차에 올랐다.

오진우가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벌써 거기에는 김정일동지께서 나와계시였다.

(이제 무슨 인사불성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다리시게 하다니...)

오진우는 멀찌감치에서 차를 멈추게 하고 창황히 땅에 내려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길가에서 조금 떨어진밋밋한 등성이에 서계시였다.

아직 푸른빛이 많은 잔디와 키낮은 풀들이 한 벌 쪽 깔린 등성이였다. 풀판 여기저기에는 철늦어 피는 들꽃들이 다문다문 무슨 무늬처럼 박혀있었다. 풀잎과 꽃잎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방금 떠오른해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이였다.

그이께서 서계시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뒤에는 세필의 백마가 서있었다. 네다리가 쩍충하고 허리가 늘씬한 백마들이였다. 털이며 갈기며 꼬리까지 숫눈처럼 희여 여간 정갈해보이지 않았다. 두눈망울과 벌름거리는 코구멍, 주억거리는 주둥이만이 먼발치에서 까만점처럼 보였다. 백마들은 이따금 머리를 들어도 보고 몸을 흔들기도 했다. 그때마다 목덜미에 소담하게 자란 갈기들이 부르르 춤을 추었다. 그중 한필은 긴 꼬리를 보기 좋게 몇번 휘휘 내젓더니 머리를 수그리고 가담가담 풀을 뜯어보았다.

수원들과 무슨 말씀을 하고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는 오진우를 보자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마주 내려오시였다.

오진우가 올리는 거수경례에 답례를 하고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런 차림을 하니 인민무력부장동지가 더 패기있어보입니다. 싸움마당에 나가는 장수같은게...》

《장수야 무슨 장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아직 이팔청춘입니다.》

《이팔청춘이란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어디 한번 거뒸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으로 엇끼셨던 팔을 풀어 내리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거뒸보다니? 흑시...)

오진우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좌우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영문을 알수 없었다. 김정일동지를 수행하여나온 일군들 몇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단정한 양복차림이였다. 무슨 체육경기나 오락, 사냥경기 같은것을 준비하고있는 기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곧 여기서 수령님께서 나오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오늘 인민무력부장동지와 나 셋이서 경마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경마 말입니까?》

오진우의 습썹습썹하던 눈이 둥그래졌다. 그이의 가까이로 한걸음 나서기까지 했다.

《왜 그렇게 놀랍니까? 자신 없습니까? 하긴 인민무력부장동지야 경마보다 씨름을 한다면 더 좋아할터인데...》

《씨름 말입니까! 제가 무슨 씨름을 한다고...》

오진우는 놀라던 때와는 달리 시무룩이 웃으며 앞으로 모아잡은 손을 비비적이었다.

《내가 모르고있는줄 압니까? 다 알고있습니다. 그전에 백두산에서 싸울 때 왕청4중대의 꿈같은

대원을 등배지기로 떠서 댔다끈진 일이랑 말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손세까지 써가며 말씀하시자 한결을 뒤에 돌려섰던 일꾼들이 귀를 강구었다.

《동무들은 모르지. 인민무력부장아바이가 몸은 이렇게 호리호리한것 같애도 유명한 씨름군인걸 말이요.》

《모르고있습니다.》

일꾼들 더러는 저들끼리 수군수군하며 오진우의 아래우를 슬그머니 살펴보기도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비행길 태우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오진우는 당황해하며 한손을 일꾼들쪽으로 내뻗쳐 좌우로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공연히머리에 쓴 모자를 들었다놓았다 하였다. 장령별을 여러개씩이나 단 오진우에게서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몹시 난처한 때 하는 버릇이기도 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오아바이는 미국땅에서 가난한탓에 씨름을 배웠습니다. 오아바이는 어릴 때 항학열이 남달리 높았지만 집안살림이 제지게 가난하다보니 학습장 한편, 연필 한자루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걸 구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씨름경기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상을 타는것이였습니다. 그때 그가 살던 백초구마을에는 조선사람들이 많았는데 해마다 봄에 한번, 추석에 한번씩 어른들과 아이들 씨름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씨름경기에서 이겼을 때는 학습장과 연필을 상으로 주곤 하였습니다. 그 씨름에서 이기자고 오아바이는 강변의 모래불에서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밤을 지새기도 하고 무르팍에 피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진우동지가 수령님을 따라 나라를 찾는 길에 나서서 혁명가가 되고 오늘은 인민무력부장의 중책까지 지냈습니다. ...동무들은 오아바이가 씨름을 하잔다고 해서 호락호락 나서질 마오. 뭇모르고 덤비다간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신세가 되오. 허허...》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였다. 그의 말씀을 재미나게 듣고있던 일꾼들도 따라웃었다.

오진우만은 두눈을 슴뻑스뻑하며 앞으로 모아잡은 손을 아까처럼 흔자서 비비적이였다. 그러는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번뜩이였다.

《허허... 그제 어느 소시적 일이라구. ...》

오진우는 자신의 기억에서도 삭막해가는 아득히 흘러간 10대, 20대 흥안의 시절에 있었던 일을 김정일동지께서 자상히 알고계시는것이 놀랍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하였다.

《아무리 소시적 일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싸우던 시절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퍼그나 높이 떠오른 아침해를 가늠해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오진우는 그이께서 자기의 씨름이야기를 우연히 하신것이 아니라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경마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수령님과 김정일동지와 감히 이 오진우가 경마를 하다니...

오진우는 며칠전에 있었던 일로 하여 죄송스러움을 금할수 없는데 오늘 또다시 이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게 되니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씀올려야 할지 도무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수령님께서는 잠시후에 그곳에 도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김정일동지와 오진우인민무력부장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으시였다. 오진우앞에서는 그의 차림새를 류달리 자세히 살펴보는듯싶었다.

《차림새를 보면 오진우동무가 오늘 틀림없이 우승자가 될것 같소. 혁띠를 두르고 장화까지 신으니 진짜 경마수같지 않소? 날과람있어보이구...》

수령님께서는 오진우의 아래우를 다시 살펴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년세가 높으신데도 심신에 정력이 넘쳐나셨다. 목소리도 우렁우렁하셨다. 마디마디에 다 헤아릴수 없는 아버지의 뜨거운 정이 어려있었다.

수령님의 말씀에 오진우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자기의 차림새를 새삼스레 훑어보았다. 자기만이 야전복에 장화에 혁띠까지 띠었다. 오진우가 좀 연구해하는것을 알아차리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였다.

《야전복차림과 장화는 제가 미리 귀띔해주었습니다.》

《허허... 비밀을 〈투설〉한건 아니요?》

수령님께서는 마음이 몹시 즐거우신듯 룡조로 말씀을 건네시였다.

《비밀을 〈투설〉한건 없는데 인민무력부장동지가 군사가이고 로장이니 무슨 김새를 알아채고 이런 만단의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그 룡말씀이 즐거우신듯 이렇게 말씀올렸다. 오진우를 바라보시면서는 빙긋 웃음을 짓기도 하시였다.

《아닙니다. 전 그저... 전선시찰을 나가시는줄 알...》

《그렇다면 좋소. 경기는 경기인것만큼 나도 알고싶은 생각은 없소. 허허...》

수령님께서는 어린애도 아닌 오진우가 것처럼 순진스럽고 끝이끝대로 듣는것이 재미있는듯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자, 그럼 오래간만에 한바탕 달려볼가!》

한 일꾼이 흰 장갑을 수령님께와 김정일동지께 드렸다.

수령님께서 장갑을 받아끼시며 우선우선한 안색으로 말씀하시었다.

《오늘 경마에서는 누구 얼굴 볼래길 하지 맙시다. 양보라는것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요. 누구나 자기의 승마술을 다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경기지. 그렇게 약속합시다.》

《수령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갑을 다 낀 두손을 서로 엮어보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오진우도 장갑을 받았다. 그러나 선뜻 낀 용기를 못내었다.

《빨리 끼시오. 복장은 달라도 장갑만이라도 통일시켜 경기에 나가는것으로 합시다. 오진우동지도 수령님분부대로 해야 합니다. 한번 숨씨를 보여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진우에게 이르시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시었다.

수령님께서 별써 말에 오르시었다.

결에서 책임부관과 수원들이 부축하려 하였으나 움쩍 거들지 못하게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별로 힘들지 않게 말에 오르시었다. 아직도 백두산시절의 기상과 정력이 심신에 넘쳐나시었다. 수령님께서 타신 말은 방금까지 투레질도 하고 갈기를 부르르 떨기도 하고 꼬리를 휘휘 내젓기도 하더니 곧손히 머리를 숙이고 얹전히 서있었다. 두귀만 약간씩 쭈깃쭈깃할뿐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타시는 말은 오르시려는 순간 뒤다리를 반쯤 꺾고 몸자세를 낮추는것 같았다. 그이께서 고삐를 거머쥐고 몸을 약간씩 추스르시며 안장에 자리를 잡자 앞다리를 하늘로 쥘쥘 쳐들며 《오호흥...》 하고 투레질을 하였다. 그때 목덜미에서 소담하게 아래로 내리드리웠던 갈기가 우수수 흔들렸다.

하지만 그 말도 인차 공손해졌다.

드디어 세필의 말이 앞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말들은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리거나도 한것처럼 배허벅에 박차가 가해지자 네굽을 안고 질주하였다. 여무진 말발굽소리가 지심깊이 두드리며 퇴성처럼 울렸다.

수령님께서 타신 말이 제일 앞서나가는가 싶었는데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말이 바짝 뒤를 따랐다.

밋밋한 등성이를 지나 좌측으로 약간 휘우듬히 뻗어나간 길로 세필의 말은 살같이 내달렸다.

오진우도 말타는 숨씨가 보통이 아니였다. 말고삐를 바투 감아쥐고 몸을 바짝 낮춘 다음 배허벅을 힘껏 쳤다.

심호흡으로 깊이 들이쉬었던 숨을 천천히 내뿜으며 앞을 주시하였다. 말은 네굽을 안고 달렸다. 귀가에서 휘파람소리같은것이 들렸다. 처음에는 시원하였는데 인차 선뜩선뜩 찬기운이 느껴지는

맞바람이 얼굴을 들때렸다.

수령님께서 타신 말은 속도를 늦추지 않는것 같더니 앞이 흰히 트이고 저 멀리서 아득히 뻗어있는 길에 접어들어서서는 한옆으로 약간 비껴서는것 같았다.

수령님께서 낮추셨던 몸을 펴시며 한손을 드시여 뒤따르는이들더러 앞서라는 신호를 하시었다. 바짝 뒤따르던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말이 약간 주춤하는것 같았다. 수령님께서 다시 손짓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신호를 알아차리신듯 자세를 더 낮추시더니 말의 배허벅에 또 한번 박차를 가하시었다.

백마는 활줄에서 튕겨난 살같았다. 갈기가 기폭처럼 나뭇기고 번뜩였다. 길게 드리웠던 꼬리까지 수평으로 내뻗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호같이 내달리는 그 준마우에서 허리를 펴시더니 한손을 드시여 해를 가늠하시고 천하를 굽어보시었다.

길은 아득히 뻗어있는것이 아니라 그 기세앞에서 열리고 생기는듯싶었다.

높고낮은 산발과 대지는 그 담대한 기상과 불가항력에 뒤로 떠밀려가는듯싶었다.

아침노을을 서서히 거두며 더 높이 솟아오른 태양을 향해 돌진하는 김정일동지의 모습은 마치 신화에서 나오는 성인마냥, 거인마냥 눈부시고 황홀하고 신비스러움을 자아냈다.

후날 우리 창작가들은 김정일동지의 이런 말타시는 모습을 보고 노래를 지었는지도 모른다.

달린다 달려나간다

백마 달려나간다

흰갈기 날리면서 질풍같이 나간다

김정일장군님 백마 타시고

천만의 대군을 이끄신다

썰렁썰렁 백마타고

장군님 달리신다

달린다 달려나간다

백마 달려나간다

산발이 절로 열리고 강물이 비껴선다

김정일장군님두리에 뭉친

일심의 인민들 신심드높다

썰렁썰렁 백마타고

장군님 달리신다

...

오진우도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보았다.

한순간에 났을 다 빼앗겼다.

고삐를 더 바투감아잡고 런거퍼 박차를 가하며 따라잡으려 했으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숨이 턱에 닿고 얼굴이며 등골에서 땀이 흘렀다.

마침 수령님께서 타신 말이 습보로부터 구보로 속도를 늦추더니 나중에는 평보로 스펙스적 걸었다.

오진우도 속도를 죽이었다.

수령님께서 말우에서 뒤따라서는 오진우를 건너다보시며 웃으시었다.

수령님의 이마에도 땀발이 섰다. 관자노리에서는 백색머리칼과 함께 가는 땀방울이 햇빛에 반짝이였다.

《오진우동무, 김정일동지한테 안되겠소.

나도 왕청시절부터 백마를 타서 승마술이 어지간하다고 생각했는데 김정일동지한테만 안되겠다 말ियो.

그는 오늘 말타는것만 보아도 과시 장군ियो! 온몸에서 영웅남아다운 기상과 무비의 담력이 그대로 내뿜는것 같소.》

《그렇습디나, 수령님.》

그때 김정일동지께서는 승마주로의 마지막계선을 표시한 저쪽 붉은기발이 나뭇기는 지점을 향하여 최후돌진을 하시는것 같았다. 출발하실 때의 속도 그대로였다. 아니,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이 오히려 질주가 더 드세진것 같았다. 질풍노도 같았다.

저쪽에서 대기하고있던 일군들과 수행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올렸다.

촬영가 여러명이 그 력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후세에 길이 전하라고 이쪽저쪽으로 뛰어다니는것이 보였다.

수령님께서 뒤에서 승용차를 타고 따라온 책임부관이 내미는 수건을 받아 땀을 닦으시며 자못 기쁘신듯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바라보시였다.

《영웅호걸답소. 드놀줄 모르는 백두산장군의 드센 배짱과 신념이 그대로 느껴지오!》

《수령님, 정말 그렇습디나.》

오진우도 땀을 닦고 바라보며 감격해하였다.

《김정일동지의 기상은 꼭 지칠줄 모르고 전진하는 우리 조선의 기상ियो.

김정일동지는 저 하늘의 태양, 태양ियो. 태양이 빛나는 조선, 김정일동지가 이끄는 우리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해...》

수령님의 만족해하시는 목소리가 맑은 공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울려갔다.

《오진우동무, 동무나 나나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합시다.》

《알겠습디나, 수령님!》

오진우는 이름없는 환희와 감격이 가슴속에서 끓어번졌다.

김정일동지가 이끄시는 우리 조국은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며 또 얼마나 높이 우뚝솟아 빛날것인가.

김정일동지의 품에 안겨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행복할것인가.

수령님께서 이 오진우더러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하자신다.

얼마나 크나큰 믿음과 신임이 변함없이 안겨지고있는것인가. 이 오진우가 당대만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위대한 수령을 모신다는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나!

그러던 그는 며칠전 자기더러 인민군총정치국장직무까지 맡아 수행해야겠다던 수령님의 말씀이 떠오르자 다시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그런 신임과 믿음에 도저히 보답못하는 자신이 끝없이 안타깝고 민망스러웠다.

수령님품에 안긴 날부터 이날 이때까지 그이를 받들어 몸과 마음 다해 일한다고는 했건만 바친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걱정과 사업부담만 얹어드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내가 오늘에 와서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김정일동지의 부담을 덜어드리지 못하면서도 사랑과 배려만 받아안는다면 이런 불손한 처사가 어디 있고 배은망덕이 또 어데 있단 말인가.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기에는 이 오진우의 지력이 너무나 모자란다. 방금 수령님께서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올렸지만 내 정말 대답대로 살수 있을가.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가슴이 찢릿하게 아프고 마음은 무거워졌다.

수령님께서 오진우의 심중에서 생긴 번뇌를 다시금 감촉하시였다.

그러나 아직 내막은 알길 없으시였다. 분명 며칠전 새 직무에 점임하려고한다는것을 말해주었을 때의 일과도 별개는 아닐것이라는 짐작도 드시였다.

무엇때문에 주저하는것일까.

무슨 일로 하여 피로와하는가.

그에게 힘을 주고싶으시였다. 왕성한 정력과 로당익장을 안겨주고싶으시였다.

그의 가슴속 피로움을 말끔히 가져주고싶으시였다.

그것은 수령님의 마음이자 김정일동지의 심정이기도 하였다.

실은 오늘의 경마도 김정일동지께서 그래서 조직하신것이였다.

그러나 아직은 수령님께서 아무 내색없이 말씀을 이어가시였다.

《오늘 보니 오진우동무는 아직 기력이 쫄쫄하오. 말타는 솜씨도 웬간한 젊은 사람들보다 낫소. 사격술도 여전하구 병사들과도 잘 섞쏠린다면서? 좋은 일ियो. 앞으로 김정일동지를 따라 많은 일을 할수 있겠소.》

《수령님, 고맙습디나. 사실 저도 그러고싶습디나. 그러나 제 능력이 욕망을 따라가지 못합니

다.》

《그런 말을 마오. 난 나와 함께 백두산에서 싸워온 동무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오. 동무들은 나를 받들어 일을 잘해왔구 오늘은 **김정일** 동지를 받들어 일을 잘 하고있소. 난 이것이 대단히 기쁘오!》

《수령님, 저희들은 **김정일** 동지께 그저 훌쩍 반해서 진심으로 따르고있습니다.》

《허허...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 매혹됐다구.》

수령님께서는 말고삐를 느슨하게 늦추어잡고 저 멀리로 련련히 물결쳐간 산밭을 바라보시었다.

알릴듯말듯 마주 불어오는 바람에 그이의 성긴 머리카락 몇오리가 가볍게 날리었다. 이젠 검은 머리카락보다 센 머리카락이 더 많으시었다.

백마는머리를 수긋한채 그이의 말쑤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걷는듯싶었다. 오진우를 태운 말도 한결을 떨어져 솟쳐어하며 걸었다. 말뭇하는 말들도 네굽을 놓으며 성갈사나와질 때와 지금처럼 온순하게 조심조심 걸어야 할 때를 아는 모양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한손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리시고는 오진우에게 말쑤를 계속하시였다.

《혁명위업계승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 김일동무들 비롯한 투사동무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뭐랬는지 아오? 내가 10대에 벌써 혁명의 길에 나섰고 20대에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였으며 30대에 조국을 해방하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는데 **김정일** 동지의 나이가 그때의 내 나이와 같은 30대라는거요. 그러면서 나의 뜻은 100프로 체현하고 령도자의 품모를 완전히 갖추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하루빨리 추대하자는거요. 허허... 김일동문 그때 눈물까지 글썽해서 제의는 이 김일이 하지만 우리 항일투사들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이구 소망이라는거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 그렇게 격동하구 그렇게 절절하게 말하는걸 참 봤소.》

《웁습니다, 수령님! 그건 저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내 동무가 했다는 말도 들었소. 오진우동문 **김정일** 동지의 지, 인, 용에 매혹됐다구 했다지. **김정일** 동지의 비범한 자질과 품모를 글깨나 읽었다는 사람들보다 더 유식하게 간명하면서도 뜻이 깊게 말했소.》

최현동문 늘 **김정일** 동지의 천하를 그러안을 인정미에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우리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야 할 **김정일** 동지가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는것이 걱정된다고, 우리는 **김정일** 동지께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다고 자주 말하군 하오. 림춘추, 오백룡이... 나와 함께 백두산에서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정일** 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내세우는데서도 선구자적역할을 했소. 난 이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오!》

오진우를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눈길에는 한없는 믿음과 자애가 넘쳐흐르고있었다.

오진우는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고개를 수긋하고 말머리 어딘가를 내려다보고있는것 같았지만

눈길은 허둥거리고있었다. 이 자리에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싸운 전우들이 다같이 있어도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서 이런 과찬을 받으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오진우는 본시 과묵해보여서 얼굴표정을 보고는 심중을 잘 가늠할수 없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수령님을 따라 **김정일** 동지를 따라 걸어오는 자기의 한생이야말로 얼마나 값높고 긍지스러우며 행복한것인가!

가슴에서는 불덩이같은것이 이글거렸다.

...20대의 청년장군이신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던 저 왕청현 소북구, 15살나는 더벅머리소년 오창묵의 진정한 생은 그날부터 시작되였다. 너무도 어린 나이때부터 사랑에 주리고 정에 주리고 광명에 주려 수령님품에 와락 안기던 그날 참고참아오던 눈물을 다 쏟아 그이의 군복자락을 화락하니 적시였다. 원위를 쏘아잡을 총이 그리도 그림고 희한해보여서 벽에 걸려있던 수령님의 권총을 닦도록 만져보고 또 만져보았다.

그 품에서 떨어지면 또다시 인생의 막바지 천길나락속에서 영영 헤어나올것 같지 못했다. 그 이듬해 봄 수령님을 다시 만나뵈왔을 때는 무작정 대오를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다. 총길이보다 키가 작다고 대원들이 모두 웃었다.

수령님께서도 《작긴 작구만...》하고 나직이 외우시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떼를 썼다.

뺨도 채 굳지 않은 연약한 어깨에 총을 메겠다고 하는 자기의 그 생떼질이 수령님의 가슴을 련민의 정으로 아릿하게 만들고 한시도 마음놓지 못하시게 한다는것을 알기나 했던가.

그렇게 따라나선 혁명의 길, 《도로기》도 신을 줄 몰라 그에게 험한 발과 신발을 맡기던 저 로흑산등관의 허리치던 눈길, 장창 그런 사랑을 받으며 수령님을 따라 걸어온 수십만리의 로정.

거기에는 또 한분의 조선의 장군 백두광명성탄생의 경사를 온 세상에 알리며 밝고 창창한 조선의 미래를 확신하던 환희롭고 가슴벅찬 날도 있고 그이를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하던 력사의 날도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진우자신으로서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만 있는것은 아니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에 안겨 살아오면서 그분들을 위해 한몸 다 바쳐 일하며 적은 힘이나마 보태려했건만 이날 이때까지 언제한번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막중한 부담만을 더해드리지 않았던가.

한데도 수령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저 전사들을 사랑하고 내세워주지 못해 마음쓰신다.

오늘은 수령님 그대로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그 헤아릴수 없는 믿음과 사랑을 더해주시다. 만나실적마다 왕청출신이라 하시며 두세대에 걸쳐 조선혁명에 충실하다고 외우신다.

내 이제라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까지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며 후회없이 살려만... 이제 남은 여생을 다바쳐 **김정일** 동지를 더 잘 받들수만 있다면 무슨 원이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들자 막혔던 가슴이 트이는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힘이 온몸을 짜릿하게 하는것

갈았다.

오진우는 눈이 축축히 젖어 앞을 가려볼수 없을 때에야 자기가 울고있다는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다.

《오진우동무! 무슨 일이요?》

수령님께서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춰세우시며 그의 안색을 살피시었다. 오진우는 당황하여 머리를 외로 틀었다가 다시 들며 어쭙게 웃었다.

《아닙니다. 수령님, 제 오늘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말까지 타며 이런 행운을 받아안으니 자꾸만 살아온 지난날이 돌이켜져서... 보답은 없고 걱정만 없어드리는게...》

오진우는 말꼬리를 흐렸다.

《허허... 추억이 많아진다 그 말인데. 추억이 많아진다. ... 젊은 사람들은 꿈과 미래에 살고 늙은이는 추억에 산다더니 오진우동무도 벌써 추억으로 살 때가 됐는가.》

수령님께서는 말에서 내리시었다. 뒤따르던 부관이 고삐를 넘겨받았다.

오진우도 따라내렸다.

수령님께서는 뒤집을 지시고 방금전에 김정일동지께서 말을 타고 살갈이 달려나가신 길쪽으로 스텝스적 걸으시었다.

그러시는 수령님의 안광에는 어찌선지 아까와는 달리 좀 서운한 표정이 어리었다.

《오진우동무!》

수령님께서 오진우를 돌아보시었다.

두손을 앞으로 모아잡았던 오진우가 고개를 수컷한채 따라섰다.

《내 오늘 그러지 않아도 동무에게 말 좀 하려던 참이었소. 어찌된거요?》

《...》

《동문 벌써 혁명의 전열에서 물러설 생각을 하고있는게 아니요?》

《제가 말입니까?》

《그렇소.》

《아닙니다, 수령님!》

오진우가 머리를 번쩍 들며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수령님을 우러렸다.

《그럼 오늘 조용한 기회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당에서는 이번에 비여있는 인민군총정치국장직무를 동무에게 겸임시키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령님!...》

오진우는 흠칫 놀라기까지 하며 수령님을 우러렸다. 아직도 물기가 채 가서지지 않은 눈에는 어떤 고뇌의 빛이 력연하였다. 두볼편의 근육이 알릴듯말듯 떨리고 다시 무겁게 닫혀진 입술이 실룩거렸다. 그는 자세를 꼳꼳이 하고 머리를 약간 숙인채 그 무슨 속죄라도 하는 사람처럼 서있었다.

《보시오. 동문 여전히 대답이 없지 않소. 동무에게서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소. 동무야 나를 따라 항일전에 나선 때부터 돌격해오는 적을 맞받아나가라면 맞받아나가고 사지판에 뛰어들라 해도 웃으면서 뛰어들이지 않았소.

조국해방전쟁때도 그랬지. 난 지금도 동무의 그 모습을 잊을수 없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 맺혔던것이 내려가지 않구. ... 적후에 들

어가 싸우다가 천신만고하며 나를 찾아 최고사령부로 온 동무에게 정황이 급하다보니 하루밤 쉬우지두 못하고 더운밤 한끼 마주앉아 나누지도 못한채 그길로 임무를 주어 전선으로 떠나보냈소. 동문 그때도 꼭 임무를 수행하겠다고며 혼연히 떠나갔소.

그때의 일을 두고 김정일동지는 지금도 이야기하군 하오. 백두산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싸운 항일투사들이 정말 다르긴 다르다고 말이요.

당에서 주는 과업이라면 군말 한마디 없었고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들던 오진우가 아닌가!...》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는 자못엄하시었다. 그러나 자애깊은 눈길만은 변함없이 그의 온몸을 따듯이 살피고있었다.

《수령님!...》

오진우는 또 한번 수령님을 우러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목이 꼭 잠겨서 다음말을 잊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 오진우의 그런홍분하고 격한 심정을 능쳐주시려는듯 그의 한쪽어깨를 두드려주시었다.

《말하오. 일없소. 심증을 다 터놓소.》

《수령님... 제... 어찌... 수령님과 당의 신임을 놓고 흥정하거나 주저하겠습니까!》

오진우는 처음에는 어깨를떨며 좀 더듬더니 자신을 다잡고 말솜을렸다.

《철없던 시절부터 이날이때까지 수령님을 도와드리거나 일은 잘하지 못하면서 사랑과 배려만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중임을 맡아가지고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 또 막중한 부담을 끼친다면 난 어찌합니까. 수령님!》

오진우는 머리를 푹 떨구며 다시 어깨를 떨었다.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김정일동지는 그래도 나에게 늘 동무와 같은 항일의 로장들이 곁에 앉아만 있어도 큰 힘이 된다고 말하군하는데 ... 실은 이번에 오진우동무를 인민무력부장 겸 총정치국장 직무에 임명하자는 계기도 바로 김정일동지가 했소!》

《예?! 김정일동지께서 말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저같은 로졸을...》

오진우는 터져나오려는오열을 막으려고 한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귀에서는 구슬같은것이 솟아 주름많은 볼을 타고 굴러내렸다.

아! 내 지금껏 수령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지시라한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르고 집행하며 살아온것은 나에게그 무슨 특별한 기질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이런 류레없는 믿음과 사랑이 내 한생애에 스며여있어 두려움, 주저, 동요를 모르게 하고 그 어떤 일도 해낼수 있는 지혜를 주고 힘을 주었다.

수령님과 꼭 같으신 김정일동지께서 변함없이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데 내 무엇을 주저할것이 있는가!

《수령님,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오진우는 마치 지금까지 대답 못 드렸던 무엄한 행동이 자기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불찰로

하여 생긴것이거나 한듯 한발 나서기까지 하며 대답을렸다. 그 대답을 못 드리면, 그 대답이 지체되면 자신의 인생이 천길나락속에 굴러떨어질듯 한 조바심조차 생겨 허둥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수령님을 우러렸다.

《글쎄 그럴것지. 이제야 본래의 오진우를 다시 만나는것 같구만.》

수령님께서 기쁘시여 그의 아래우를 다시 살펴보시었다.

《수령님! 절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선뜻 하겠다고 대답을 드리지 못한것은...》

《됐소. 용서는 무슨 용서...》

수령님의 목소리는 우렁우렁하시였으나 거기엔 벌써 노기도 엄한 색깔도 없으시었다.

《수령님, 인민무력부장 겸 총정치국장이라는 두 직무를 담당수행하자면 문무를 겸비해야 하는데 전 수령님슬하에서 싸움하는 법은 좀 배웠어도 당사업이나 정치사업물계에는 어둡습니다.

이 세상에 문무를 다 겸비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진우는 이날보니 과묵한 사람이 아니었다. 말이 굳은것도 아니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었는지 이 며칠째 아니, 한생토록 가슴에 품고있던 것이 분화구를 찾아 터져나온것처럼 거침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대답을 못했던 말이요? 허허... 문무를 겸비해야 하는 직무여서라. 하하... 과시 오진우동무다운 표현이요.》

수령님께서 웃으시었다.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풀길없던 의문과 사랑하는 전사에 대한 섭섭함, 노여움... 그 모든것을 그 웃음에 담아 한순간에 다 날려보내시려는듯 웃으시었다.

그때 마침 경마를 끝내신 김정일동지께서 마주 걸어오시었다.

수령님의 그 호탕하신 웃음에서 벌써 기쁜 일을 예감하신듯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활달하신 걸음으로 수령님앞으로 오시었다.

《경마에서 우승한 김정일동무를 축하합니다.》

수령님께서 또 한번 크게 웃으시며 박수를 치시었다. 오진우도 머리를 번쩍 들고 박수를 쳤다.

《난 경마에서 진것으로 하고 떨어져서 이 오진우동무를 다시만나보았는데 할수 있다오. 해내겠다오. 김정일동무가 있기때문에 해낼수 있다는거요.》

수령님께서 곁에 선 오진우를 다시금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이자 뭐했는지 아오? 이 세상에 문무를 겸비한 사람은 나와 김정일동무밖에 없다는거요. 인민무력부장에다가 총정치국장까지 겸하자면 문무를

다 갖춰야 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재목감이 못된다는거요. 그래서 대답하기 힘들었다오. 허허...》

《수령님, 내 그럴줄 알았습니다. 이젠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소? 그 대답 한마디에?!》

《아닙니다. 오늘 말라는거랑 요전번 사격때랑 보니 오진우동지는 앞으로 나와 10년, 20년은 더 일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일해야 합니다!

전번날 총정치국장 임명문제때문에 처음말을 꺼냈을 때 오진우동지가 선뜻 〈알았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면 나역시 기쁘기는 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근심이 더 컸을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놓고 근심하고 일을 두고 걱정하는걸 보니 잘해낼수 있습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한점 티도 없이 고지식하게 변함없이 우리 당을 받들고 헌신하는 오진우동지와 같은 원로들은 나에게 더없는 힘이 되고 고무로 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밝은 안색과 말씀에서 오진우의 진심을 다 읽으신듯 꿇길듯 하다가 다시 솟구쳐올라 흘러내리는 눈물을 미처 감추지 못하고있는 오진우의 두손을 꼭 잡으시었다.

《오진우동무, 김정일동무는 동무를 보는 품이 벌써 달라. 우리 김정일동무의 말을 명심하구 빨찌산때의 그 마음, 그 기백, 그 열정으로 일합시다. 오진우동무는 김정일동무를 받드는 영원한 조직, 영원한 혁명원로로 살아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령님!》

×

그때로부터 오진우는 16년간 인민무력부장 겸 총정치국장이라는 직무에서 일하였다. 그는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시각까지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영원한 혁명원로가 되어야 한다던 수령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은적 없다.

그와 함께 그의 가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일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만큼 일하지 못한다는 자책 또한 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때문에 고뇌와 번민이 컸다. 그것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전사들만이 가질수 있는 고뇌와 번민이었다. 오진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에 오진우와 같은 로혁명가가 있었다는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을 따왔다는것보다 더 귀중한것이라고, 실로 그를 잃은것은 우리 혁명에서 매우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시며그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빛나도록 해주시었다.

종군작가의 전형으로 영생하는 시인

김병준

시인 김람인(본명 김익부)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서사시 《강철청년부대》를 창작한 시인으로 잘 알려져있다.

그는 해방후에 오랜 기간 창작활동을 진행하지도 못하였고 많은 시작품을 창작하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전선종군길에서 최후를 마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의 노래, 혁명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른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시인으로 주체적 시문학사에 남아있다.

...

오오, 나의 애마야

오늘 너와 나는

록색대지에서

창천을 우러러 살며

명일에 질주할 힘을 키우다

—그의 해방전 시 《청색마》에서—

1910년 1월 자강도 중강군의 외진 산골의 빈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망국민의 설움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고 자유로운 《청색마》의 네굽에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어 애라게 노래하던 시인이 값높은 영생의 삶을 지닐수 있는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그것은 위대한 태양을 모시고 태양의 빛발이 찬란한 《록색대지》를 발견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람인은 우리가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한 그해 11월 릉강대안인 중강진에서 표지에 붉은 기발을 그려넣은 동인문예잡지 <시건설>을 창간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동경하고 조선독립을 기원하는 혁명적인 시들을 많이 창작발표하였다.》

김람인은 이미 해방전 1930년대부터 북부국경일대에서 살면서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심을 깊이 간직하였으며 시문학건설의 새 출발을 지향하는 동인문예잡지 《시건설》을 창간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동경하는 진보적인 시작품들을 여러편 창작하였다.

그 과정에 창작된 대표적인 시작품들로서 《××안에서 봄을 맞는 님에게》, 《빼치까》 등을 실레들수 있다. 작품들은 시적계기와 소재는 각이하지만 그 정서적형상의 근저에는 한결같이 엄숙한 일제과쏘통치하에서도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국은 반드시 해방된다는 사상감정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그토록 고대하던 조국해방의 날이 왔다. 해방의 감격과 기쁨은 열정적인 시인의 심장에서 류달리 뜨겁고 세차게 끓어올라 시인으로 하여금 시 《해방》, 《대동강》, 《새 나라의 봄풍치》, 《독립문》, 《봄노래》를 비롯한 격조높은 작품들을 련달라 창작하게 하였다.

모란봉에 봄빛이 질던 주체37(1948)년 4월 어느날 시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날 인민군신문사를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을 김람인이 처음으로 만나뵈옵게 되었던것이다.

신문사의 문예담당기자로 일하는 김람인을 한 일군으로부터 소개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못내 반가와하시며 크나큰 격정에 들먹이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흐느낌을 거두지 못하는 람인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사업에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제기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김람인은 아무런 애로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빈터에서 신문사를 꾸리는데 왜 애로되는것이 없겠는가, 동무들은 나라사정때문에 말을 못하는것 같은데 그래서 안된다고 하시면서 거듭거듭 시인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애로가 없겠는가를 물어보시였다.

정말 아무것도 애로되는것이 없다는 시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집안형편과 가족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서 참으로 따뜻한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이날 밤 김람인은 잠들지 못하였다.

크나큰 걱정과 감동에 휩싸여 밤새도록 잠들수 없었던 그의 뇌리에는 새삼스럽게 주체36(1947)년초 평안북도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꿈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김람인은 뜻밖의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되었다.

주체36(1947)년설날 《평북일보》에 당시 평안북도당의 책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 한 불건실한자의 글이 실렸는데 우리 당의 사상을 외곡한 그 글을 본 김람인은 즉시에 반박론설을 써서 신문사에 제기하였다. 그 장문의 론설때문에 그자의 불순한 의도를 날날이 발가놓고 우리 당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던 람인은 부당하게도 출당철회되었다.

일시적으로 시련을 겪고있던 람인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신분은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해당 부문 일군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람인이 쓴 반박론설을
몹소 읽어보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필자가 일제시기 보천보전
투를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
창작을 하였으며 해방후에는 우리 당의 교양을
받은 사람이라는것이 이 글에서도 잘 알린다고
하시면서 아주 잘 쓴 글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
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동무를
평북도에 그냥 뒀두면 나쁜 놈들이 계속 못 살게
굴지 모르니 평양에 데려다가 그가 희망하는대로
문필활동을 시키자고 하시면서 그를 인민군신문
사에서 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이처럼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평양으로 올라와 조선인민군신문의 창간사업에
참가하게 된 김람인이였다.

길가에 버림받은 나를 안아준 품이 있어라
만민이 다 안겨도 비좁을리 없고
한생을 안겨도 식을리 없어

활개펴고 살수 있고 발펴고 잠들수 있는
우주같이 넓고 태양같이 따사로운
그 품은 당의품, 수령님의 품

—그의 시 《당의 품 수령님의 품》에서—

그렇다!

람인은 자신이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있음
을 온몸으로 감수하고있었으며 태양을 우러러 심
장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리라는 각오와 신념으로
충만되어있었다.

그의 혁명적지조와 신념, 혁명적수령관은 준엄
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더욱더 확고해졌
으며 종군서사시 《강철청년부대》의 갈피갈피에
서 표현되였다.

김람인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펜을
틀어쥐고 진격하는 인민군부대와 함께 혈전장들
을 헤쳐갔고 그 나날에 부대의 전투행로를 그대
로 시화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
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훌륭
히 일반화한 종군서사시 《강철청년부대》를 창작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모험적인 군사적《대공세》를 발
광적으로 준비하던 주체40(1951)년 6월초 어느날
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일군은 중요한 작전과 관련한 지시를 받게 되리
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
람인의 서사시원고를 보시며 작전지도우에 붉은
연필로 서사시에 반영된 종군로정을 표시하고계
시였다.

한동안 지도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
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에게 김람인이 정말 안 다

닌데가 없다고, 시인을 이미부터 잘 아는 사람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원칙성이 강하고 당의
립장을 지킬줄 아는 사람이라는 크나큰 믿음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
께서는 이 시에서는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이
어받은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기상을 아주 훌륭
히 노래하였다고 하시면서 시인은 전쟁초기부터
적후투쟁이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문필활동을 한 훌륭한 동무라고, 종군
작가의 전형이라고 참으로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였다.

그로부터 이들이 지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그 일군을 다시 부르시여 시를 한번 더 읽어보았
는데 잘되었다고, 시의 정치사상적내용이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말씀을 해당 일군으로부터 전
해들은 람인은 북받치는 걱정을 누를수 없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다시금 조선
로동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였으며 새로운 직
무에서 책임적인 사업을 맡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직무에 가기 전에 다시한번 더 전선종군
길을 밝아보겠다고 길을 떠난 시인은 다시 돌아
오지 못하였다.

주체40(1951)년 6월 중순 어느날 김람인이 전
선동부에서 애석하게 전사하였다는 보고를 받으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뜻밖이고 가슴이
아프시여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람인이 전사한 경위를 보고받으신 아버지수령
님께서서는 그는 앞으로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쓸
사람인데 너무 일찌기 희생되었다고 하시며 그가
서사시원고를 남기고 희생된것만큼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 세상에 내놓도록 하자고, 작품이 출판되
면 그의 유가족들에게도 보내주고 자신께도 한책
보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다.

그처럼 기쁨에 넘친 해방을 맞이한 때로부터
민주의 자랑찬 언덕을 넘어 전쟁의 불구름을 헤
친 우리 혁명대오는 전승의 개가 드높이 복구건
설의 터전을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진군
길을 다그쳐 승리의 높은 언덕에 올라섰다.

이 보람찬 혁명의 길우에서 많은 혁명가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름없이 묻혀버
린 그 혁명전사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시여 영
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였다.

그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종군작가의 전형
이라고 평가해주신 시인 김람인도 있다.

주체77(1988)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우리곁을 떠났으나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
령께 충직한 김람인의 작품집을 다시 출판하도록
하시고 그의 투쟁공로를 높이 평가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런 위대한 사랑들이 있어 김람인은 몸은 비록 죽었어도 고귀한 사회정치적삶은 살아있다.

시인은 그가 쓴 시편들과 함께, 종군작가의 전형이라는 값높은 부름과 함께 영원한 태양의 품속에서 영생한다.

...

끝까지 임무를 수행한

영예와 긍지도 높이

부대는 다시 원쑤를 소탕하러 나섰다

최고사령관이 부르는

새 전선으로

...

—서사시 《강철청년부대》중에서—

선군혁명대오에 김람인의 서사시가 오늘도 메아리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조선인민군의 대오에 종군작가였던 김람인의 모습이 뚜렷이 보인다.

아들과 딸

럼형미

씩씩하게 걸어가는 녀성병사들
보란듯이 불려세운 남성군인들
번쩍이는 하모니카 척 내밀며
다짜고짜 만져보고 가라네
장군님 보내주신 사랑의 하모니카
얼마나 멋들어진가

보기에도 눈부신 하모니카
처녀들 고운 눈에 부러움 어리는데
총각들의 빠기는 속마음인가
능청스레 불어대는 군가 한곡조

아무렴 아들이 아들이지
장군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더 사랑하구말구

고운 입술 오무리는
처녀들의 새초롬한 얼굴들
—우쭐렁대긴...
—하하하...

그 사연 들으신 장군님
호탕하게 웃으셨네
우리 딸들에겐 더 좋은것을 줘야지

세상에서 제일 예뻐지는
인삼크림이며 고급살결물을!
...

씩씩하게 걸어가는 남성군인들
보란듯이 불려세운 녀성병사들
희한한 크림팩 척 내밀며
무작정냄새를 맡아보라네
장군님 보내주신 사랑의 크림이
얼마나 향기로운가

살찐 인삼 그려진 희한한 화장품
동그란것 긴것 두개씩이나?!
뚜껑도 열기 전에 벌써 취한듯
총각들은 코만 벌름 입은 빙글썸—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녀병사들의 행복한 속삭임인가
—어때요!

딸은 예로부터 아버지의 딸
장군님께서선 우리 딸들을
더 교와하시지요?

고향집

리룡희

《언니야! 김정일화가 피어났어!》

환희로 높은 동생의 목소리는 나의 잠을 단숨에 앗아가버렸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우리 가정의 정성과 노력의 산물인 김정일화화분에 서둘러 다가갔다.

정말 갓 피기 시작한 김정일화를보니 2월 16일 아침에는 붉은 잎새 펼치고 아름다운 모양을 자랑할것 같다.

뭐니뭐니해도 김정일화키우기는 제몫이라며 아버지, 어머니, 언니도 밀쳐버리고 저 혼자 독차지하던 동생이 제일 환한 얼굴이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매여달려 응석을 부리다가도 화분앞에만 서면 어른스러워지는 동생의 모습은 실로 꽃가꾸기로 한생을 살아온 현숙한 원예사를 방불케 하곤 하였었다.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동생은 간절한 어조로 말하였다.

《언니야! 나 이 꽃 가지구 고향집에 가고파. 어제 밤 고향집에 가는 꿈을 꿔어.》

동생의 젖어있는듯 한 목소리는 나의 가슴을 쿵 울렸다.

2월과 함께, 4월과 함께 나이보다 마음이 먼저 크는 이 나라의 아이들이다. 아직 한번 가본적도 없는 이 어린 마음이 그토록 정답아 부르는 백두의 고향집.

누구나 잊지 않는 곳은 자기가 처음 태어난 고향이라 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잊지 못하는 곳,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곳, 꿈속에서도 언제나 가보는 백두밀영고향집!

이 세상 가장 정이 넘치고 친근한 말을 다 골라보아도 정녕 고향이라고밖에 달리 이룰수 없는 고장은 응석밖에 모르는, 아직은 내 집, 내 동무, 내 언니밖에 모르는 저 철부지소녀까지도 마음속에 안고사는 저 백두의 고향집이다.

나는 철없는 동생의 꿈세계에 이끌려 지난 겨울 백두산에 올랐을 때의 잊지 못할 추억을 떠올리며 고향집뜨락으로 들어선다.

그날에 나의 망막에 새겨진 고향집은 너무도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이였다.

백두산날씨 하면 누구나 눈보라 울부짖고 살을 에이는 혹한을 련상하겠지만 그때의 정일봉기슭의 날씨는 류달랐다.

흰빛과 푸른빛이 어우러져 이름 못할 아름다움을 뽐고있는 고향집의 설경.

흰눈을 띄이고 겹겹이 둘러선 이깔숲속의 넓지 않은 마당에서는 한낮의 해별이 봄날처럼 따스히

감돌고있었다. 그때문인지 우리들의 마음은 어머니 계시는 제집에 온듯 한 안정감에 휩싸였다.

백두산나무의 싱그러운 냄새가 넘치는 방안의 곱게결은 구름노전이며 앓은뱅이책상, 색날은 야전배낭, 금방 포개였은듯이 꼼꼼한 손길이 느껴지는 침구류들, 난생처음 보는 백두산특유의 부엌세간들... 모든것이 다 친근감을 자아내는 고향집풍경이였다.

고향집을 감돌아흐르는 맑디맑은 소백수는 동요시절의 꿈을 싣던 고향의 내물 같았고 사철푸른 잎나무들이 우거진 저 산세험한 숲은 군사놀이로 해지우던 그 시절의 솔솔처럼 안겨왔다.

정답고 소박한것이였어도 우리는 고향집의 유산들모두를 더없이 위대한것으로 새겨안게 되었으니 소박하면서도 위대한것, 바로 이것이 지금껏 만경대고향집, 회령고향집과 더불어 우리의 뇌리에 인찍혀진 백두산고향집의 모습이였고 그 집들이 안아키운 희세의 위인들의 모습이였다.

우리가 떠나고싶지 않은 뜨락에서 마음속 작별인사를 나누고있을 때 또 다른 행군대오가 고향집뜨락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처음에는 그리 높지 않으나 일매진 발구름소리, 다음에 보여오는 붉은 기발, 그다음에는 1,000여리의 행군길에서 무척 정이 들은 얼굴들.

곤장덕마루에 남먼저 올라서서 힘이 솟구치는 심장의 웨침으로 항일투사들의 모습을 그려주던 선동원동무며 달도 밝았던 선오산야영의 밤 《우등불이 밤을 태운다》하며 열정을 쏟던 시인이며 은은한 《사향가》노래로 우리를 모닥불가에서 조국산천을 그리는 항일의 유격대원들로 만들었던 너동무며...

고향집마당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들이 반가웁게 열싸안고 돌아가니 한고향내기로 된듯싶었다.

태어나 자란고향은 다르다 해도 백두대산줄기가 뻗어내린 이 땅의 아들딸일진대 어찌 마음속에 따로 둔 고향이 있으랴.

모두들 백두산바람에 더욱 굳세여졌다.

그래서 한 선반공처녀는 백두산에 올라 이렇게 소리높이 웨쳤을것이다.

오, 백두산 백두산아
네우에 한번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거니
나는 너의 딸, 백두산의 딸

고향집!

정을 담아, 긍지를 담아 우리모두가 터치는 그
부름에 심장의 목소리들을 합치려 지금 고향집의
작은 트랙으로 온 세계가 모여오고있다.

피줄도 풍습도 피부색조차도 서로 다른 외국의
벗들 누구에게라없이 이 집은 오직 《고향집》이
라는 말로 통한다.

사랑하는 고국에 저마다의 고향을 둔이들이 레
사로이 부르는 백두의 고향집!

이 말이야말로 소박한 이 집에 아니, 소박해도
인류의 행복을 안아올리고 광명한 래일을 예언해
준 위대한 집에 드리는 인류의 가장 값높은 칭호
가 아닌가!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날새도 고적에 애태우
다 날아날아 떠나고야마는》, 주소도 번지도 가질
수 없었던 인적없던 수림속에 백두광명성탄생의
첫 고고성이 울리며 휘황한 조국의 앞날을 기약
하던 때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 온 인류가
초점을 모으고 동경과 그리움의 삶을 불태우며
이 작은 귀틀집을 마음의 보금자리, 삶의 보금자
리로 정하고 살고있는것이다.

근대사의 갈피를 뒤져보아도 우리 겨레의 앞날
을 백두산에 다 말기자고 한 어느 명사의 말이
있다.

오늘은 백두고향집의 수천만 서로 다른 《거주

자》들이 목소리를 합쳐 웨친다.

인류의 미래를 백두산에 다 말기자고...

바로 인류의 마음속에 솟아있기에 세월의 폭풍
우속에서도 진함과 퇴색을 모를 고향집의 모습.

나와 동생 그리고 백두산답사대오의 낮익은 모
습들과 외국의 벗들... 이 고향집과 인연맺은 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광대무변한 세계를 한뜨락
에 품어안고 솟아있는 고향집에 대하여 나는 다
시금 생각해본다.

고향이란 바로 이런 곳이다.

육체가 태어나 자란 곳, 어린시절의 꿈이 흘러
간 곳만이 아닌, 오늘의 행복과 인생의 참다운 모
든것이 다 태어난 곳, 오늘뿐아니라 인류의 먼 래
일의 행복까지 다 약속되어있는 곳!...

그사이 눈이 퍼그나 내려와 쌓여 주위의 흰빛
은 더욱 짙어졌다.

그 흰빛에 더욱 두드러져 우리 집 창문가의
김정일화의 붉은빛이 새롭게 비껴든다.

백두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집집에 피워
가는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아름다운 풍
경, 김정일화의 붉은빛은 2월의 하늘가에 아름다
운 노을로 비껴간다.

가사

우리의 선군길 좋아

홍민식

가는 길 험난해도 이 길이 좋아
총대로 열여가는 이 길이 좋아
조국이 있어야 우리도 있기에
장군님 따라서 천만이 나섰네
아 우리의 선군길 좋아

부강을 떨치는 길 우리는 좋아
세상을 굽어보는 이 멋이 좋아
조국이 흥해야 우리도 행복해

장군님 받들어 우리 심장 불타네
아 우리의 선군길 좋아

태양이 빛나는 우리의 선군길
폭풍치고 눈비와도 승리만 있네
선군의 총대로 만단을 헤치며
장군님령도로 강성대국 세우리
아 우리의 선군길 좋아

금강산의 새 절경

김흥규

비로봉의 해돋이

김흥규

금강산 주봉
비로봉에
우리 장군님
서계시다

여기선
힘찬 구령인가
만이천봉이들이
소소리창끝을 세워 일떠선다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아득한 운무의 한끝
한점 빨간빛이 타더니
불나래 퍼덕이며 펼치는 노을
일만산악 기폭이 되어 날리는듯

오, 백두령장 우러러
금강의 일만 메부리
영접들어총 사열인듯
장군님 온몸에서 뿜는 환희의 미소
그 안광을 받아
장쾌하다 비로봉의 해돋이!
눈부시다 천하절경 해돋이!

산악을 흔드는 폭포소리

진주담

오재신

해빛받아 진주런가
달빛받아 보석이런가
우리 장군님 미소를 담아실고
춤추며 내리는 진주담

저 방울방울
저 구슬구슬

고였다간 넘치고
넘쳤다간 다시 고이며
물안개로 피어오르는
아 진주담

천하명승 금강산
만대에 빛내이시려는 장군님의 열정이 알알에
어려
흐르는 물방울도 진주보석

하마 쏟드리면 어찌랴
흘어지면 어찌랴

그 진주보석
하늘만큼 높은 장대에 꿰어 걸어놓으면
선군의 내 나라 얼마나 더 눈부시랴

바위에 대한 시

유영하

절묘한 바위들
다투어 제모습 자랑해도
저 단풍잎사이

그 이름도 류다른 병사바위 대포바위...
금강의 일목일초
목숨으로 지킨 포화속의 전사들

만이천봉이가 팔벌려
이 절경으로 불러왔는가

아 우리 장군님 오르신 비로봉
그마루에서 뻗어내린 계곡마다
천태만상 바위들 많아도

불수록 뜻깊은 병사바위, 대포바위...
천하제일명산 지키는 그 모습
조각처럼 다듬은 저 바위들
금강산 일만경치우에 또 한 경치
선군경치를 더 펼쳤구나

그 하나하나

김정곤

산수에 끌려끌려
방랑나그네 금강산을 오르는데
꿀물은 거꾸로 왜 내리기만 하겠소
내리는 물 탓하던 김삿갓 시 한수

팔담에서 미역감던 선녀들 옷을
나무군총각 어느 바위틈에 감추었던가요
밤샘하며 실꾸리처럼 풀리던
금강산의 전설 하나

장삼을 너털대며
절당을 뛰쳐나온 사명당
전장을 향한 길목은 어디바른가요
대사의 나비눈섭에 뿔던 분노의 불줄기...
그 하나하나...
선군령장의 넋을 받아
애국의 피 끓이는 력사의 재보로
비로봉 해빛속에 주옥으로 빛나오

귀면암이 장수바위 되다

신동식

바위생김새
하도 투박해 귀면암
선녀봉 옥녀봉 수려한 바위들
그 모양에 앵돌아져 돌아앉았다지

허지만 이 무슨 천지조화겠소
천출명장의 기상
비로봉에서 뻗어내려
귀면암어깨 스치자
스치자 하루아침에

귀면암 그 모습이 달라졌소
금강산을 수호하는
호걸장수로 우뚝 솟아올랐소

아서라 나라 지키는 장수가 1등남아지
돌아앉았던 선녀봉 옥녀봉이
단풍단장 곱게 연지곤지 찍고
홀린듯 귀면암에 눈웃음만 보내오

병사의 시

함영주

장군님 오르셨던 금강산
총잡은 이 병사 바라보니
조국의 아름다움과 함께 굳어지는
수호자의 자각

오 이 아름다움!
이 절경!

잃으면 치욕의 가시밭
지키면 영원한 인민의 명승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가
수호자의 이 주먹
금강산바위처럼
굳어진다

금강산의 둥근달

주경

달이 떴네
둥근달
장군님 오르셨던 비로봉마루에
두둥실 달이 떴네

오셨다 가신 자욱
못 잊어 쓰다듬으며
내리는 달빛은
은실이나
금실이나

달빛에 휩싸인
은사다리
금사다리는
천리은하수에 비껴

그이를 마중가는가

천가락만가락 내리는
그 달빛 한오리만 텅거도
옥류동의 맑은 물소리
그리움의 노래를 싣고
천리만리로 뻗어갈듯

아 우리 장군님
비로봉의 해돋이를 맞으시던
그 아침처럼
금강산의 달맞이도 하셨으면
달이 떴네
비로봉에 둥근달이 떴네

어머님과 금강산

오정로

이날을 맞자고
천년만년을
눈비로 씻고 다듬어 세웠는가
금강의 일만이천봉우리

피로 찾은 이 아름다움
너무도 귀중해
바위앞에서도 걸음 멈추시고
꽃송이에 불을 부비시는
김정숙어머님

백두밀림 우등불가에서
조국을 해방하고
금강산에 꼭 가보자던 전우들
함께 오지 못한 그 얼굴들을
꽃속에 그려보는가 단풍속에서 안아보시는가

뛰어내리는 폭포수
마중나오는 옥계수
사령부를 멀리 떠나
적후의 길에서 돌아오실 때면
반기여 달려나오던 그 모습들인듯

수령님명령 지켜
군복을 다 지은 너대원들
옥같이 부서지던 그 웃음을 닮아
돌우에 흐르는 물도 은구슬 옥구슬
마주 다가서는 바위들도
결전장에 나가던 그 어깨런듯 안겨와

《…최희숙 …리계순…》
희생된 투사들의 이름
부르고부르시며
소리없이 떨구시던 눈물
옥돌우에 진주구슬이 되어 구울고
그 마음 폭포가 되고 꽃이 되고 단풍이 되어
일만이천봉우리로 솟았구나

아 그래서 더 아름다운 금강산
절경앞에 투사들을 세운
어머님사랑으로하여
천하제일강산
인민의 절경으로
찬연히 빛나고있구나

종자탐구의 고전적본보기

박춘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의 핵을 옳게 밝히는것은 창작실천과 문예리론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무엇을 핵으로 보는가에 따라 창작을 옳게 진행하는가 못하는가,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가 높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좌우된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옳바른 해답을 줄수 있는 가치있는 철학적인 종자를 찾아내시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불멸의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많이 창작하신 작품들은 장군님께서 철학적인 사색과 탐구로 뜻깊고 의의있는 종자를 발견하신 시대의 명작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초상화》, 《우리의 수령》, 《우리 교실》,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우정에 대한 생각》, 《대동강의 해맞이》, 《조선아 너를 빛내리》, 《조국의 품》, 《축복의 노래》, 《나의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에서 철학적인 종자를 심오한 형상으로 꽃피움으로써 주체의 시가문학에서 참다운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체험하시였던 깊은 생활적충동을 바탕으로 창작되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뒤산에 오르신였다.

이때 한그루의 소나무를 앞에 두고 학생들은 평양의 모란봉에도 이런 소나무가 많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그것은 미국놈들의 폭격에 이미 다 불타버렸을것이라고들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란봉의 소나무는 결코 불타지 않았으며 곳곳이 살아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모란봉을 결코 불태울수 없다는데 대하여 격조된 감정에 싸여 강조하시였다. 이 강한 충격은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의 기초에 놓이게 되었다.

이 일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의 품, 아버지수령님의 품을 그리시며 시 《조국의 품》을 창작하시였으며 그것을 다시 가사로 만드시고 주체41(1952)년 12월 설맞이 모임에서 부르시였다.

...

바다우에 둥실 솟는 아침햇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인가요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리고 맑고 명랑한 감정, 조국의 산천초목 하나하나에 대한 열렬한 사랑, 이것은 명작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안겨주는 사상정서적색채를 이루고있다.

명작은 조국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조국의 참된 의미를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심오히 밝혀내고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인들이 조국에 대해 노래부르면서도 밝히지 못하였던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적알맹이, 조국은 곧 우리 수령님이시라는 사상적인 핵으로 작품은 사람들을 끝없이 공감시키고있다.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새로운 독창적인 알맹이를 심은 명작은 생활에서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생철학으로 심화된 참된 종자를 무르익히신 빛나는 본보기작품이다.

조국은 곧 우리 수령님이시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에 대한 견해와 관점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주체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조국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마련되는 어머니품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밑에 승리하고 전진해나간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삶이 꽃피나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조국을 빛내이는 결정적요인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된 조국이 마련되고 통성번영하게 된다는것이 혁명의 근본리치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인민의 요람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아버지수령님이시며 우리 나라는 김정일조국, 김일성조선이다. 혁명의 수령을 떠나서 참다운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주체의 원리를 구현한 과학적인 조국관인 동시에 이 땅우에 참다운 인민

의 조국, 사회주의조국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업적의 사상리론적총화이다.

조국과 수령을 잘 결합시키고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것을 명백히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관이 작품의 핵으로 심어진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결합된 조국에의 숭고하고 열렬하고 고결한 사상감정이 뜨겁게 굽어치고있다. 이처럼 명작은 내 나라, 내 조국은 어버이수령님 품이라는 무게있는 종자를 작품에 심고 명확하게 밝혀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가장 위대한 조국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시가의 사상예술적풍격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축복의 노래》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명작은 이 땅우에 전쟁의 포연이 자욱하던 전화의 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삼가 올리신 편지내용을 시적형상으로 옮긴것이다. 명작은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생동하고 완벽한 시적형상으로 노래하고있다.

명작의 사상주제적과제 즉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땀과 땀수 없이 하나로 통일되어있으며 수령님의 안녕은 곧 온 나라 인민의 행복이며 조국의 미래라는 귀중한 사상은 탐구된 생활의 씨앗, 생활의 심오한 본질을 체현한 사상적알맹이에서 뜨겁게 흘러나온것이다. 명작에서는 우리 수령님과 조국 그리고 군대와 인민은 사상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정서적으로 하나로 굳게 통일된것으로 노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시적사색은 가사창작에서만이 아니라 서정시창작에서도 뚜렷이 표현되었다.

동시 《우리 교실》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어린이들의 끝없는 행복과 기쁨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동심적인 감정속에 격조높이 노래되어있다.

명작은 짙막한 시형식속에 학교와 시대를 련결시키고 자연과 사회를 결합시키고있으며 어린이들의 생활과 인민의 운명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있다.

명작에 노래된 그 어느 하나의 자연과 풍경도, 그 어느 하나의 생활세부도 우리 수령님을 따라 배우며 수령님을 우러러 받드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흠모감으로 힘싸이게 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든 우리 어린이들의 끝없는 행복과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기쁨은 하나로 통일되어 명작의 모든 형상들에 차넘치고있다.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장엄한 감정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위업의 계승성에 대한 사회정치적문제성을 해명하는데로 사람들의 모든 사색과 감정을 집중시키고있다.

명작은 1절부터 혁명위업계승문제를 형상의 중심에 전면적으로 제기하고있으며 삼천리금수강산

이 한가슴에 안겨오는 룡남산마루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고 결의다지시는 그 주정토로를 통하여 사람들을 가사의 숭고한 사상감정세계에로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다.

사람들은 고전적명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기쁨과 걱정을 체험할뿐아니라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심장깊이 체득하게 된다.

...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

철학적심오성, 고도의 함축성과 비약, 격동적인 감정의 흐름, 열정적인 주정토로, 이것은 명작의 중요한 사상예술적특징을 이루고있다.

1절에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성에 대한 문제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우실 깊은 탐구정신과 결합되어 노래되었다면 2절에서 그것은 더욱 높이 일반화되고 고조되어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되고있다.

높은 시적일반화, 시대의 본질적인 사상으로 침투하는 깊은 사색은 2절의 모든 시행들을 관통하는 기본지향으로 되고있다.

1절에서 제시되고 2절에서 전개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계승에 대한 사상적알맹이는 3절에서 더욱 고조되어 주체혁명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온 누리에 빛내일 숭고한 주정토로로 높이 승화되어있다.

이 모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성문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누리에 빛내이는 문제가 작품의 모든 형상을 관통하고 작품의 모든 사상감정의 근저에 놓인 기본핵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

우리 문예사에는 고전적명작이 세상에 태어나기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계승성문제를 전면에 제기한 작품이 아직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문예사에서 처음으로 혁명의 계승성문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성문제를 문학예술이 들고나아가야 할 중요한 사회적문제에로 제기하시고 그에 대한 빛나는 형상적해명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고 고전적명작을 우리 문예사에서 영원히 빛을 뿌리는 불멸의 기념비적작품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서 또 하나 중심사상으로 되고있는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다. 이것은 고전적명작의 사상

적풍격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고전적명작들에서 언제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떼어놓을수 없이 하나로 통일되어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노래한 명작들마다에는 새롭고 특색있는 사상적 알맹이, 종자의 발견이 있고 그것이 심오한 시적 형상으로 빛나고있다.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에서 대동강의 해돋이는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때로는 청춘의 열정으로 상징되고 때로는 청춘의 환희로, 들끓는 심장으로, 주체의 붉은 노을로 상징되면서 독자들을 조국을 빛내이며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명작에서 조국은 다만 아름답고 수려한 그리고 풍만한 산천경계로만 소중한것이 아니라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수령님을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더욱 소중하고 더없이 귀중한것으로 노래되어있다.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것이며 또 바로 그것으로 하여 끝없이 자랑스럽고 찬란한것이라는 사상적핵은 시에서 빛나는 형상으로 꽃피나고있다.

명작에서 아침해 솟아오르는 대동강의 장쾌한 모습은 청춘의 희망을 꽃피워 조국을 온누리에 빛내여갈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열망과 혁명적량만으로 붉게 물들여져 더욱 불타고있다.

사회적문제의 심오성과 독창성 그리고 사상적 내용의 숭고성과 위대성,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모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주제사상의 근본특징을 이루고있으며 명작들의 정치사상적풍격을 돋구어주고있다. 이것은 비범한 예지와 깊은 철학적사색과 탐구속에서 발견하신 생활의 본질을 체현한 뜻깊고 의의있는 사상적알맹이의 발견에서 이루어진것이다.

명작들은 거의 모두가 3~4절의 짙막한 서정시와 가사들로 씌여져있으나 거기에는 우리 혁명이 걸어온 빛나는 력사가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행복한 오늘의 생활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또한 명작들은 짙막한 시형식속에 조국의 전력사를 웅심깊이 일반화하고있다.

심오한 종자는 높은 사상에술적풍격을 담보한다.

고전적명작들은 정치사상적풍격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예술적형상의 높이에 있어서도 완성된 경지를 개척하고있다.

시대를 폭넓게 일반화하는 전형화의 힘, 서정적 체험의 독창성과 심오성, 형상의 높은 진실성과 생동성, 이 모든것은 고전적명작들의 예술적풍격의 본질적특징을 이루고있으며 또 명작들의 완벽한 예술적품위를 규정짓고있다.

고전적명작들의 완벽한 예술적경지의 개척은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에서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명작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뜨거운 사랑의 품

에 안아 키워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러 못 견디게 그리워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흠모감을 생동한 형상과 깊은 정서속에 강렬하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 명작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이 때로는 위대한 수령님을 더 높이 모시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번져지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틀어쥐고 가사의 숭엄한 사상감정세계에 이끌어가고 있다.

명작에는 김정숙어머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 한없는 그리움으로 상징되고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흠모와 사랑은 그이께서 지니신 조국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랑으로 부각되었다. 풍부한 감정과 고상한 사상의 유기적인 통일 그리고 높은 일반화의 힘은 명작의 중요한 사상에술적특징으로 되고있다.

세월의 준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만가지 소원을 헤아려보시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주셨네

비와도 눈와도 먼길 떠나도
손잡아 이끄신 나의 어머니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길러준 그 품을 내 어이 잊으랴

기쁘나 힘드나 부르고싶은
정답고 미더운 나의 어머니
그 은혜 못 잊어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내 크며 알았네

명작은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으로 독자들의 심장을 뚫어번지게 한다.

뜨거운 눈물 없이는 읊을수 없는 절절한 감정, 은혜로운 어머니품에 대한 깊은 회고와 감회, 소박하면서도 고결하고 인자하면서도 근엄하신 어머니에 대한 뜨거운 형상은 명작의 모든 갈피갈피들에 흘러넘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렬하고 절절한 사상정서세계는 명작의 높은 사상에술적풍격을 확증해주고있다.

시형상의 숭고한 세계는 고전적명작 《우정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도 감명깊게 느낄수 있다.

명작은 형상의 중심에 우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적해명에로 사색과 감정을 집중시키고있다. 명작은 이것을 깊은 사색과 짙은 서정속에 구현하고있다.

...

동무여, 참다운 우정이란 무엇이라
가슴에 따로 둔 심장이 없는
비록 몸은 날날으로 되었어도
심장은 하나인 우리들의 녀이 아니라
그렇다, 우리들의 녀이다, 우정은

조국을 떠나 가지없고
집단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성스러운 위업에 향한 충실성
그것으로 맺어지는 우리들의 녀이다

밀어다오 나의 우정은
생사운명 같이 할
하나의 신념우에 피는 꽃
내 삶의 전부와도 같은것이여라

우정은 비록 몸은 날날으로 되었어도 심장은 하나인 우리들의 녀이며 수령을 떠나, 조국을 떠나서는 살수 없고 오직 충실성을 기초로 하여서만 맺어지는 우리들의 녀이라는 명작의 심오한 독창적인 사상은 시에서 때로는 깨우침으로, 때로는 서정토도로 다양하게 주어져있으며 풍부하게 구현되어있다.

시는 심장이 하나된 녀이라는 이 뜻깊은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부터 참된 진실한 우정이야말로 성스러운 위업의 길에서 맺어진 생사운명을 같이할 신념우에 피는 혁명의 꽃이라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내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충성의 노래》가 밝히고있는 수령님 계시여 오늘의 행복만이 아니라 래일의 찬란한 미래가 기약되어있다는 심원한 사상은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빛나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의해서만 세상에 이름 떨치게 되었다는 철학적인 종자로부터 흘러나오고있다.

가사 《충성의 노래》는 사상적으로뿐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공감되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꽃피워 우리 수령님을 대를 이어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한결같은 지향을 가장 숭고한 시세계에서 뜨겁게 형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지도하시면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생활에서 철학적으로 심오한 사상적알맹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생철학으로 심화발전시킨 명작창작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창작하는데서 주제를 훌륭히 창작완성하는것은 가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고리였다. 그것은 가극에서 일반적으로 주제가가 노는 중요한 위치와 역할에도 달려있었지만 이미 가극창작사업이 시작되어 수개월이 지나도록 창작가들이 이 가극의 핵을 이루는 주제가문제를 풀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었다.

주제가는 벌써 여러차례에 걸쳐 창작되고있으나 그 어느 하나도 위대한 장군님을 언제 어디서나 따르며 우러러 흠모하는 주인공의 숭고하고 순결한 사상감정을 노래에 절절하게 담아내지 못하고있었다. 이것은 창작가들이 주인공 강연옥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 티없이 맑은 충성심을 자기의것으로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데서 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자신께서 이 가극의 주제를 창작할 결심을 하시였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하루빨리 완성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쁘드리려는 참다운 혁명전사의 티없이 맑고 높은 충실성과 자신께서 실천적본보기로 작가들과 창작가들을 명가사창작의 길로 이끌어주시려는 굳은 결심은 이 명작을 낳게 하였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적후천리 밀림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리웁니다
...

명작의 섬세한 심리분석, 절절한 감정, 소박하고 정서적인 언어형상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며 아버지장군님을 못 견디게 그리는 너주인공의 절절한 사상정신세계에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따르며 절절하게 부르는 주인공 강연옥의 사상정서세계는 명작의 전반을 뜨거운 서정으로 진하게 물들이고있다. 나어린 조선인민군 처녀전사가 적후천리 밀림속에서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부르는 이 절절한 주제가 아버지수령님의 품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수 없는 전사, 수령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사는 주인공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높은 시적형상으로 일반화해주고있다.

철학적으로 심오할뿐아니라 예술적으로 완벽한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우리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그리움의 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종자가 형상의 기초로, 바탕으로 됨으로써 사상의 철학성을 보장하고 높은 예술적형상을 담보하였다.

이렇듯 일찍부터 문학예술의 비범한 천품을 지니시고 문학예술작품창작에 작용하는 원리들을 터득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시가문학창작에서 종자론구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태양의 꽃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형상

신경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 위인칭송의 꽃노래가 뜨겁게 흐르는 2월.

온 나라가 모여들고 세계가 찾아들어 눈계절에 희한하게 펼쳐놓은 **김정일** 화축전장에도, 위도와 경도, 나라와 제도의 계선을 넘어 위인흠모의 꽃이 만발하는이 세상 그 어디에나 환희와 열정에 넘친 태양의 꽃노래가 울려 퍼진다. 정녕 불멸의 꽃 **김정일** 화는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수십여년간 얼마나 많은 시와 노래를 낳았던가. 그 장중하고 아름다운 노래들속에 귀기울이면 《고향집에 피어난 **김정일** 화》의 선율도 들려온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의 감정이 밝고 약동하는 시적정서에 실려 절절하게 노래되고있는 가사 《고향집에 피어난 **김정일** 화》(정서촌 작)는 커다란 사상예술적감화력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의 본질과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반영한 가사는 사상이 깊고 정서가 넘쳐흐려서 들을수록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가사는 우선 불멸의 꽃 **김정일** 화를 두고 느끼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반영한 심오한 사상정서적내용을 담고있다.

가사가 안고있는 형상적묘은 단순히 꽃의 유래나 아름다움만이 아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기상이 비친 혁명의 성지에 피여 절세의 위인을 모신 영광을 긍지높이 자랑하는 태양의 꽃, 고향집뜨락에 활짝 피여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속에 숭엄한 정서를 안겨주는 신념의 꽃 **김정일** 화. 이러한 시적화폭을 통해 가사는 불멸의 꽃에 어린 형상적 의미를 뚜렷이 밝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열정우에 부각시키고있다.

백두밀영고향집에 피어난 태양의 꽃 **김정일** 화를 바라보는 시적계기에서 뜻깊은 대상들과 밀착되어 심화되는 정서적체험은 독특한 감정과 정서를 낳고있다.

정일봉의 노을빛이 하도 붉어서
꽃들은 송이송이 붉게 타는가
소백수의 물결이 하도 맑아서
잎들은 싱싱히 푸른것인가
...

보면볼수록 숭엄한 감정을 더해주는 **김정일** 화

의 모습을 고향집의 뜻깊은 대상들과 그 특징적인 자연현상들과 결부시킴으로써 가사는 련상과 상상의 나래속에서 독특한 정서적향기를 풍기면서 심오한 형상세계를 펼치고있는것이다.

붉은 노을을 비껴안고 하늘가에 높이 솟은 정일봉, 맑은 흐름이 더욱 푸르려 굽이치는 소백수 그리고 그 붉은빛과 맑은 기상이 그대로 력력히 어려있는 **김정일** 화!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의 충격과 격정으로 토로된 이 모든것은 혁명의 성지의 자연과 결합된 특색있는 상징인 동시에 심오한 철학적형상을 이루고있다.

정일봉을 하나의 거대한 기폭으로 감싸안은듯싶은 붉은 노을과 세차게 굽이치는 소백수의 맑은 물결에 대한 시적형상이 바로 그 심원한 뜻과 의미를 대변하고있다.

주체의 붉은 노을로 지구를 덮을 그날을 앞당겨오는것을 불타는 신념의 맹세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장에서 분출하여 더욱 부강번영할 조선의 미래, 인류사주위업승리의 휘황한 래일을 주체의 붉은 빛발로 찬란히 펼쳐놓는듯싶은 정일봉의 붉은 노을.

폭풍치는 눈보라와 백년강추위속에서도 용용히 흐르며 선군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조선의 영웅적기상을 파시하고 **김일성** 조선의 눈부신 래일을 예고하는 정일봉의 봄우뢰소리를 제일먼저 울려주는듯싶은 소백수의 맑고푸른 흐름.

이러한 정일봉의 붉은 노을과 소백수의 맑은 물결에 의탁되어 선명히 부각되는 불멸의 꽃에 대한 폭넓은 시적화폭은 **김정일** 화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철위인상이 력력히 어려있는 태양의 꽃이라는 진리를 가슴마다 인상깊이 안겨주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백두밀영고향집에 피어난 **김정일** 화를 우러르는 우리 천만군민의 사상감정의 정수가 집약되어있다.

가사의 1절에서 주로 혁명의 성지의 대상,특징적인 자연현상과 결부시켜 **김정일** 화의 형상적의미를 부각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생활정서속에서 절세위인을 모신 무한한 긍지와 격정을 노래하고있다.

너전사 웃으시던 정든 뜨락에
해빛처럼 눈부신 사랑의 꽃송이
투사들의 그 넋이 스민 땅우에
아름답게 활짝 핀 충성의 꽃송이

...

여기서는 총포성이 울리던 준엄한 그 나날에 조선의 미래를 안아키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다정한 그 미소가 어려오며 백두광명성 반들어올린 그날의 감격과 환희에 목메이던 투사들의 숨결이 금시 들려오는듯싶다.

김정숙어머님의 밝은 미소와 투사들의 환희속에 펼쳐지는 시적형상은 내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 2월의 봄과 더불어 영원한 우리 인민의 수령복에 대한 걱정을 바탕으로 하여 불멸의 꽃에 대한 정서적해명을 주고있다.

불멸의 꽃, 태양의 꽃 **김정일**화에 대한 매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칭송의 감정을 폭넓게 노래한 가사의 시적정서는 장군님께 한생을 맡기고 영원히 따를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형상적으로 반영하는데로 승화되어 이어진다.

백두산의 고향집에 천년을 만년을 피고 또 피여날 **김정일**화와 더불어 가슴마다 《일편단심 붉은 꽃》 피워갈 은 맹세를 절절히 웨치는 서정적 주인공의 목소리가 바로 그러한것이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위대하고 고매한 품모에 매혹되고 그 위대성을 진리로 절감하고있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욱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은 불멸의 꽃을 피우며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노래하고 천년만년을 이어 일편단심의 붉은 꽃, 신념의 꽃 **김정일**화를 키우면서 인생을 붉게 물들인다.

이러한 시적형상은 당국의 비운속에서 헤매이던 그 나날 울밑의 봉선화를 보며 피눈물을 뿌렸던 우리 인민의 어제날과 정서적대조를 이루면서 특출한 위인에 대한 흠모로 굽이치는 오늘의 시대적흐름과 우리 인민의 생활의 본질에 대한 깊이있는 예술적일반화로 된다.

위인에게 매혹된 걱정을 혁명의 성지의 대상,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혁명의 빛나는 력사와 결부된 절절하고 웅심깊은 감정으로 승화시켜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관계, **김정일**화와 뜻깊은 인연을 맺고 살며 투쟁하는 민족적정서를 진실하게 형상한데 이 가사의 정서적전인력이 있다.

가사는 또한 작품의 사상적내용에 맞게 시형상의 초점을 살릴수 있도록 서정구조를 섬세하고 치밀하게 조직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이 가사는 그야말로 한편의 정교한 서정시라고도 할수 있다. 그만큼 가사의 서정구조는 짜여있으며 매 절의 정서적구분이 명백하다.

가사의 매 절은 네행으로 이루어지는 대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일정한 정서적단락을 조성하며 동시에 의미의 폭을 점차 확대하면서 정서적내용의 상승을 보장하고있다. 그러면서도 매 절

사이의 정서가 은근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있다. 이것을 통해 가사의 정서가 치밀하게 련결된 서정구조를 타고 하나의 맥박으로 숨쉬며 흐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가사는 백두밀영고향집에 피여난 **김정일**화를 바라보며 숭엄한 사색과 감정에 잠긴 서정적주인공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시의 정서를 펼칠수 있는 생활적바탕으로 하고있다.

...

아 고향집에 피여난 **김정일**화
바라보면 내 마음도 붉어만지네

왜 붉어만지는가?

자체내에서 이러한 물음을 제시한 가사는 매련에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한데로 정서의 《계주봉》을 계속 이어나간다.

정일봉의 붉은 노을, 소백수의 맑은 흐름이 비껴있는듯싶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념원이 어리고 투사들의 녀이 스민 이 땅우에 피여난 **김정일**화, 만민의 흠모로 물결치는 영광의 땅에 천년만년 영원히 피고 필 **김정일**화...

시적감정은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오늘로, 미래로 교차되고 승화되어 이어지면서 위인칭송, 위인흠모의 열정으로 강렬하게 울려나온다.

가사는 이처럼 정서적순차성을 따라 매 절에서 해결해야 할 형상과제를 설정하고 해명하면서 절과 절사이의 련계를 유순하게 이어나가고있다.

매 절에서의 대구법의 독특한 활용을 기본으로 하여 절단위로 점진법과 결합시켜 의미의 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과정에 형상론리에 맞으면서도 집약화된 시형상이 창조되고 가사의 기본사상정서적지향과 내용이 뚜렷이 밝혀지고있다. 특히 하나의 대상을 놓고 1,2행과 3,4행이 대구적수법을 이루면서 조화롭고도 간결하게 시행조직을 엮어나간것, 가사의 1,2절과 3절의 유기적인 정서적련관속에서 위대성형상과 흠모와 칭송의 열정을 다같이 뚜렷이 살릴수 있게 감정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든것을 보면 잘 알수 있다.

가사 《고향집에 피여난 **김정일**화》는 위인칭송, 위인흠모로 충만된 우리 시대와 생활의 흐름속에서 체험한 사상정서적충격을 진실하고도 웅심깊은 시적형상으로 잘 살려냄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로 굽이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를 한껏 느끼게 하며 깊은 감흥과 여운을 주고있다.

선군시대와 더불어 온 세상에 빛을 뿌리며 더욱 만발하라, 불멸의 꽃이여!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하며 노래여, 더 높이 올려가라, **김정일**화와 더불어 영원할 불멸의 꽃노래, 태양의 꽃노래여!

우리 설명절

홍철진

덕담

딸의 손목 갈라쥐고
우리 부부 이른아침 세배길에 올랐네
오가는 사람마다
설날웃음 나누기에 여념이 없는데
누군가 반가웁다 내 어깨를 툭— 치네
돌아보니 아, 안경쟁이 대학동창 아닌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구
—자네두
내 딸을 버쩍 추켜안으며
세배돈 살짝 쥐여주겠지
—가만, 자네두 딸이 하나 있겠는데...
—딸이 하나라구? 이래 노니... 앞을 보게
딸 하나에 아들쌍둥이
망울진 눈빛들이 우르르 내 얼굴을 덮는데

나의 안해 귀가에 가만히 속살대는 친구
그리고는 어느새 바람처럼 사라지네
—뭐라고 했소?
—지금 산원에 간대요, 처가 어제 해산했다던지...
—뭐? 또...
—우릴 보구 계획미달자래요
아이들속에 묻혀 멀어지는 친구모습
우리 부부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아버지, 계획미달자라는건 뭐냐?
뻔히 올려다보는 딸애의 고운 눈에
우리 부부 얼굴이 화끈 더워지네
(계획미달자라구? 내 새해엔
진짜 복을 받을테다)

세찬

설음식엔 뭐니해도 찰떡이 으뜸일세
쫄쫄쫄 찰기돌고 쫄깃쫄깃 그 맛 좋아
팔고물을 묻혀놓고 쫄한 김치 곁들이니
쿵쿵 철썩 떡을 치며 땀흘린 보람있네

후더분히 양념올려 훌훌 불어 들이키니
또 한살 먹은 나이 떡국이 알려주네

×

×

김이 문문 떡국없이 그 어이 설날이라
가마에 찢 가래떡 돈있만큼 송송 썰어

너나없이 좋아하는 우리네 녹두지짐
옆집에도 한접시 옷집에도 한접시
아이들은 덩달아 밖에 나갈 생각 잊고
지짐그릇곁에서 떨어질줄 모르오

연놀이

설빔새옷 차려입은 우리네 아이들이
푸른 하늘 저 높이 연을 띄우네
새바람에 줄 끊길까 마음조이며
아이들은 조심조심 연줄 늘이네

솔개연이 높이 떴다 호랑이연 뭘하나
가오리연 치솟으니 꼬리연이 뒤따른다

어느 연이 제일높이 오르는가 보자
어른들도 갈 길 잊고 연놀이에 붙들렸네

연이 뜨니 우리 하늘 더 맑고 푸르구나
날아라 높이높이 저 하늘 끝에라도
설명절도 사랑의 길 걷고계실 장군님
멀리서도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랴

언제나 조국과 함께

김우협

기쁨이라면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따사로운 요람속에 안겨 사는
정다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내 누리는 기쁨

나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다면
내 조국이 없어 울며 헤매던 그날
언뺨을 적시던 그 차디찬 눈물

어머니조국이여

한세대에
조국없는 설움에 울며 살아보고
조국의 품에 안겨 살아보았기에
나는 안다
그대 얼마나 귀중한가를

간도피바다에 단 하나 누이를 잃고

세상밖에 던져진 나는 고아였다
하늘을 훌기며 저주도 홀로
땅을 치며 설음도 홀로
아버이 없는 우리 민족은 흩어진 고아였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었다

잊지 못하노라, 조국이여

이국의 거친 들에 숨겨가던
나를 안아일으켜준 은혜로운 그 손길
한밤 비쳐오던 백두산장수별의 그 빛발

전설같은 이야기 주고받으며

꺾어진 마음의 나래를 펴고
밤마다 그려보던 백두산!
그것이 수난의 날에 소생의 빛을 안겨준
그대 조국의 첫 모습이었다

아, 장군님 주신 땅에 첫 씨앗을 뿌릴 때
땅김이 서려오르던 사라진 그 밭이랑
채송화 핀 유치원의 트랙을 거쳐
내 귀여운 첫딸이 학교로 갈 때
눈물에 젖어 바라보던 푸른 하늘 푸른 들
그것이 소중한 나의 조국이였다

하늘땅에 불이 달린 결전의 날에
수령님 손수 피워주신 과일꽃바다
산을 넘어 들을 적시는 사랑의 젖줄기
그 어디를 봐도 나를 향해 미소짓는 땅
그럴 때면 피맺힌 옛 세월이 눈에 밟혀서
다시다시 가슴에 안아보는 행복한 땅
이 땅이 나의 조국이였다

그때문에 설레이는 들은 그리도 소중하고
그때문에 폭포치는 쇠물은 저리도 황홀하고
그때문에 그때문에 두번 다시 받아안은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빛내여갈 이 땅

아, 가장 크나큰 기쁨과 슬픔

뒤바뀐 두 제도의 증견자, 나는 노래한다
수난의 긴긴 세월을 넘어온 우리 인민에게

조국이란 한마디

사람도 땅도 산천도 한품에 안아키워주신
위대한 아버지수령님 품!

무엇이 아까우랴, 어머니 나의 조국이여

그대 위해 내 가슴 그리도 사투쳤기에
나의 생명은 오직 그대와 함께!
나의 행복도 오직 그대와 함께!

—1979—

경구 격언

- 《지식은 무기이지 목적은 아니다. 모르면서도 아는체 하는것이 창피하고 해로운 일이다》
- 《서가에 가득 책을 꽂아놓고 가난을 탓하지 말라》
- 《부자의 재산이란 바람속 초불과 같다》
- 《세상을 건지자고 글을 읽나니 가난한 살림을 기쁨으로 알라》
- 《학문이 깊어지면 속도 넓어진다》
- 《진리를 찾는데 재미를 붙이면 가난해도 굶주려도 근심하지 않는다》
- 《꽃의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 진다고 서러워할것 없다.》
- 《재능이란 꾸준한 인내력에 지나지 않는다》
- 《지식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며 과학과 더 깊이 친숙해질수록 과학을 더 사랑하게 된다》

위인의 《하루길》에 대한 감동깊은 서정의 세계

-시초 《그이의 하루길, 강행군 2천리여》를 두고-

김봉민

길!

길은 길이여도 단순히 길로만 보이지 않는, 불멸의 로고와 위대한 헌신으로 아로새겨진 위인의 길, 우리 장군님의 하루길!

×

지난해 10월에 창작발표된 시초 《그이의 하루길, 강행군 2천리여》(류동호, 문용철, 한광춘 작)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땅에 남기신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의 한 페이지를 강한 시적체험과 독특한 정서로 깊이있게 서정화하여 절음절음, 마음과 마음이 어버이장군님을 끝없이 따르며 그리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뚫어오르는 흠모의 열정을 격조높으면서도 웅건한 색채를 가진 시대적인 주정으로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시는 시대적열정의 산물이다.

시가 시대적소리를 가지고 시대적인 지향을 아름답고 힘있는 운율과 다감하고 열렬한 시적정서를 통하여 진실하게 노래하였을 때 그 충격은 비할바없이 큰것이며 그 정서적공감력은 사람들의 가슴에 흥분과 격정의 파동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시대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고 그 요구가 담긴 시는 그것이 크든작든 강렬한 시대적사명을 안고 독창적인 사색과 개성적인 서정의 세계를 탐구하는 시인의 높은 시정신이 발현된 시대의 웅당한 산물이다.

인민이 좋아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시작품들은례외없이 그가 내포한 참신한 서정세계로 하여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울수 없는 감동의 물결을 남긴다.

이러한 시의 서정세계는 시인의 시대에 대한 강한 열정과 진지한 사색, 진실하고 깊이있는 체험과 생동한 시적환상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시인의 열정과 사색, 체험과 환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심장의 《용광로》속에서 《류출》되는 시적사상의 뜨거운 정서적덩어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

한 열정속에서 뜨거운 시대적인 서정을 감수하게 하며 진한 사색을 통하여 시적서정의 깊은 뜻을 음미해보게 한다. 그리고 진실한 체험을 통하여서는 시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느끼도록 하며 내려치는 시적환상을 통하여서는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서정의 감미로움을 느끼게 하는것이다.

이처럼 강한 시대적열정과 창조적사색, 진실한 체험과 내려치는 창작적환상으로 충만된 시인의 높은 시정신세계는 사람들에게 시대의 주도적감정, 시대의 가장 정수적인 사상감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재음미해보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속성으로도 된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초 《그이의 하루길, 강행군 2천리여》는 아름답고도 격동적인 시적정서속에서, 진지한 사색과정과 진실한 체험세계속에서 시의 사상을 개성적으로 독특하게 밝힘으로써 시대적인 주정을 시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한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성과작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시대의 성과작인 시초에서 개개의 작품들이 보여주고있는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함으로써 작품을 통하여 드러나고있는 창작적성과 경험을 일괄해보려고 한다.

시초에서는 자강땅에 대한 현지도도를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루길에 대한 감동깊은 서정적 화폭들을 통하여 정녕 그이는 인민을 위해 헌신의 자옥을 새기고 또 새기시는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작품은 오늘 우리의 선군시대정신이 내려치고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 힘겨워하실 때 의지의 빛이 되고 신념의 동지가 되어준 의리의 인간들, 정신력의 강자들이 사는 자강땅에 대한 그이의 하루, 그 하루 수천리에 달하는 현지도도길의 로정들에서 강한 충격으로 시적계기를 얻고 그에 기초하여 매 작품들에서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하루에도 십만리, 백만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 하나의 일관한 사상을 줄기차게 내뿜고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시대를 안고 시대의 대하에 몸을 잠근 시인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을 느낄수 있으며 시인의 열렬한 가슴속 열정을 그대로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시인의 열정은 시초에서 이미 첫시 《불타는 해돋이》에서 그이의 영상을 우리러 한밤에 길을 떠나시여 굵이굵이 계곡을 돌아 놓고 험한

령을 넘어 정든 땅, 정든 고향을 찾으시여 《안개를 타고 왔다가 해빛을 안고가는/ 이것이 우리 빨찌산전법이라시며/ 하늘땅이 환하게 웃으시는》, 《눈부신 아침해돋이》의 위대한 모습으로 노래함으로써 시작부터 벌써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노래하는데로 형상의 각광을 집중시키고 정서적 초점의 눈초리를 모으고있다.

이렇게 시작부터 정서적초점을 아버지의 위대한 영상을 형상하는데로 집중시킨 시초는 다음 시 《크나큰 바다》에서 위대한 태양이 따스한 빛발을 비치는 이 땅에서는 외지고 척박한 산골마을에도 백리과원 과일바다가 물결치고 서해의 푸른 물결이 출렁이니 용해공들의 불같은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쇠물바다가 사뭇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위대한 생활력을 진한 서정적색채를 가진 감동깊은 형상으로 이어가고있다.

이렇게 시작부터 강렬한 정서적빛깔로 위대한 태양의 사랑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초는 이러한 승엄한 서정적양상으로 작품전반을 마감까지 관통시키고있다.

시 《그날 오후 4시》에서는 이 양상을 안고 진실한 체험속에서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사랑에 대하여 깊이있게 서정화하고있다.

진실한 시적체험은 시를 더욱 실감있고 아름답게 형상할수 있게 하는 시창작특성의 하나이다.

비록 크지 않은 시적대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인의 시적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는 더욱더 웅심깊고 아름다운 자기의 정서적색깔을 드러내게 되는것이다. 하기에 시를 심장의 문학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생활을 진실하게 체험하고 쓴 시는 그만큼 시적정서가 진하며 그 여운도 오래, 멀리도록 남는것이다.

시 《그날 오후 4시》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성과라고 찾아보는것은 바로 시인이 시적대상을 골라잡고 그것에 대한 체험을 진실하게 함으로써 시의 사상적알맹이를 감동깊은 시대적정서로 훌륭히 일반화하고있는것이다.

즉 시인은 우리가 늘상 맛보고보내는 오후 4시라는 자그마한 시적대상을 위인의 인민사랑을 위한 한순간으로 포착하고 그것을 진실한 체험속에서 시대적인 주정으로 잘 이끌어내고있는것이다.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오후 4시

오후 4시

어느날인들 오후 4시가 없으랴만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날의 오후 4시

조국을 위해

선군혁명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한몸을 깡그리 바치시는 무한한 헌신
이 새겨진 그 시간

오후 4시

...

어느날이나 오후 4시는 있어도 조국을 위해, 선군혁명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는 위인의 모습이 깃들어있기에 그날의 오후 4시를 무심히 생각할수 없는 서정적주인공의 강한 체험세계가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느껴진다.

시에서는 계속하여 《오후 4시》에 대한 진지한 사색과 체험에 기초하여 《사무치게 아, 더욱 사무치게/ 가슴을 치는 생각/ 이런 오후 4시에서 4시어로/ 그이의 한생은 / 끝나지 않은 강행군으로 이어지고》있다고 절절히 토로함으로써 서정의 열도를 높이고있다. 하여 시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헌신이 어린 《그날의 오후 4시》를 영원히 잊을수 없는 서정적주인공뿐아닌 전체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시대적열정을 감동깊이 노래할수 있었다.

이렇게 시에서 매일 있게 되는 《오후 4시》라는 시간에 대한 체험을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으로가 아니라 그 체험을 보다 시대적인 정서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시적일반화로 꽃피워 이런 순간과 시간들이 그대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들이 된다고 노래한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시인의 높은 시적체험세계와 아울러 그의 능동적인 시대적감각을 느끼게 되는것이며 또 시에서 말하려고 하는것, 즉 장군님의 이런 《오후 4시》들이 모여 끝나지 않은 강행군을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이런 날과 시간들이 위대한 사랑의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행복과 미래를 담보하여준다는 시대의 진리를 폐부로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작은 시적대상이지만 거기에 대한 시적체험을 깊이있게 한다면 거기에 시대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여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음 시 《우리 가정수첩》은 개성적인 서정담구로 대를 이어 계속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시대감이 나면서도 승엄한 정서적양상의 빛깔로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시는 시초안의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현지지도로정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아니라 그 길에서 그이께서 보아주시는 《우리 가정수첩》이라는 하나의 시적세부에 대한 정서적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분들의 크나큰 인민사랑을 독특한 탐구과정을 거친 개성적인 서정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시에서는 이제는 멀리 흘러간 그 세월 어버이 수령님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있던 애 어린 판매원처녀와 오늘은 장군님앞에서 그때처럼 눈물을 흘리며 서있는 상업관리소의 녀성일군의 모습을 나란히 대조시켜 보여줌으로써 수십년전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끝없이 이어지고있는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인민적사랑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서정적형상으로 하여 시는 인민과 어버이가 혼연일체를 이룬 내 나라,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히 변함없이 그이의 자식으로, 인민의 친근한 어버이로 되어있는 행복한 우리 조국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었으며 감동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서정의 세계속에서 울려나오는 시적사상을 더 강렬하게 전달할수 있었다.

...

인민의 참다운 충족은
생의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수령님께서 친히 입당보증을 서주신 그를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녀성혁명가라
부르시며
시대앞에 높이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아, 정녕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시였습니다
인민의 어버이 그 정이 안겨오고
그 사랑이 실려있는 《우리 가정수첩》
사람들 모여와 그 수첩을 번져보며
그이께서 보아주신 자기의 이름을 새롭게
태어난 이름인듯 들여다보며
뜨거운 눈물로 그 수첩을 적셨습니다

우리를 만난 전천땅사람들
감격에 젖어 말합니다
그이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우리 집에도 들려주시었다고
내 안해와 아이들의 신발문수까지 아시고
꼭 맞는 신발을 신겨주시고
꼭 맞는 새옷을 입혀주시고 가시었다고
...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이 나라에서만 이 꽃피날수 있는 크나큰 사랑에 대한 주정을 서정적주인공은 《우리 가정수첩》이라는 극히 평범한 대상에 깊은 뜻을 부여하고 거기에 위대한 사랑이라는 숭엄한 정서적색갈을 입혀 백두산위인들의 《이민위천》의 한평생에 대한 시대적인 서정으로 감동깊게 이끌어내고있는것이다. 하여 독자들은 그이께서는 비단 전천땅 한 마을의 《우리

가정수첩》만이 아닌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 가정수첩》을 다 보시며 그들의 작은 사연까지도 헤아려주시고 보살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똑같은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것을 뜨거운 눈물속에서 다시금 느끼게 되는것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수십년전 그날에나 오늘에나 변함없이 자애롭고 따뜻한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한평생을 길지 않은 서정적형상속에 집약시킨 시인의 재능에 탄복하며 이런 사상감정을 과거와 현재의 재치있는 련결로 우리 시대의 정수적인 사상감정으로 뽑아올린 시의 개성적서정탐구의 독특한 성과를 기쁘게 찾아보는것이다.

시창작은 본질에 있어서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 형상적사유과정이다. 때문에 시라면 어떤 시에서건 다른 작품에서는 찾을수 없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서정세계가 엿보여야 한다. 더우기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작품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들은 다매개 작품들에서 서로 다르게 탐구되는 수령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개성적인 서정세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수령의 품모에 대하여, 크나큰 인덕에 대하여 매번 새롭게, 뜨겁고 강렬하고 절절하게 음미해볼수 있게 하는 하나하나의 계기로 되기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시 《우리 가정수첩》은 개성적이며 독특한 서정탐구로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는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인민사랑의 참의미를 한층 더 가슴뜨겁게 되새겨볼수 있게 하는 좋은 창작경험을 보여주었다.

개성적이며 독특한 서정의 탐구로 시의 사상을 감동깊이 밝힌 작품으로 또한 시 《혈맥》도 들수 있다.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위대한 모습을 생동하고 뜻깊은 시적형상속에서 시대적의의가 있는 서정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은 우리 장군님께서 자강땅을 찾으실 때마다 오시고 가시는 길에서 시의 사상적알맹이를 찾아주고있다.

그것은 바로 그이께서 오시고 가시는 이 길이 바로 장군님과 자강도를 이으며 뜨거운 마음과 흠모의 정이 흐르는 그리움의 혈맥이라는것이다.

이런 독특한 종자를 시의 사상적알맹이로 찾아진 작품은 이 길이야말로 정이 끝없이 쌓여 흐르는 피줄기, 그리움이 다져지고 또 다져진 혈맥과도 같다는것을 시대감이 나는 개성적인 서정으로 특색있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서정을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아, 길이어
최고사령부와 자강도를 이으며
아득히 뻗어간 길이어
너는 위대한 심장과 이어진 대동맥처럼
순간도 끊어져선 살수 없는
정이 흐르는 피줄기
그리움의 혈액

...

시는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깨우쳐준다.

혈맥—그것은 심장과 이어져있어 순간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생명을 이어가는 피줄기이다. 서정적주인공은 이렇게 끊어지면 순간도 살수 없는 피줄기와 위대한 그 품에 자기의 행복과 미래를 다 맡기고사는 인민의 마음을 강하게 대조시켜 참다운 삶의 의미를 의의있게 밝혀주고있는것이다. 하여 그 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인민, 그래서 그이께서 다니시는 길에 정성껏 모래를 뿌리며 진정을 고이고 알알이 자갈밑에 뜨거운 마음을 끝없이 다지고다진 선군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개성적인 서정적형상속에서 독특하게 그려지고있는것이다. 또 이러한 길을 밟으며 자강도길에는 정이 있다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시며 자강도인민을 잊지 못하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영상이 눈물겹게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이다.

시에서는 이렇게 시대의 기본사상정서를 피줄기라는 생명유기체의 한부분과 잘 련결시켜 사람들이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고 느끼면서도 표현할수 없었던 시대의 진리를 웅심깊게 노래하고있다.

길은 길이어도 거기에 바쳐진 정성이 크고 거기에 담겨진 뜻이 너무도 크기에그 길을 길로만 노래하지 않은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인 서정세계에서 시인의 남다른 서정탐구와 시인의 가슴속 열정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

시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것은 거기에 담겨진 시적세계에 대한 새로운 서정의 탐구와 그로 하여 증폭되는 정서적감화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나하나의 시어에서 한문장한문장의 시적표현에서 시대정신에 대한 독특하고도 남다른 시인의 탐구, 그러한 노력의 자취가 엿보이고 그것이 하나의 시세계라는 서정적물결 위에서 흘러나오는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인 흐름을 가질 때, 하여 시인의 모습이 그 어느때보다도 진하게 드러날 때 시의 사상예술적매력은 시인이 의도한것보다 더 강한 여운을 남긴다.

다음 시 《하루길 2천리》는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시적으로 잘 정서화함으로써 시초의 사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시이다.

이 작품은 시초에서 제일 마지막시이며 시초의 사상적결론을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작품은 시초안의 다른 시들을 통하여 이미 쌓아두고있었던 정서적충동을 자기의 행과 행들에서, 련과 련들에서 마음껏 터뜨리고있다.

물론 앞선 시들도 우리 장군님의 현지도도길에서 낳은 가지가지의 전설들과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매 작품의 종자별 특성에 맞게 깊이있는 시대적정서를 내포한 웅건한 서정적형상으로 힘있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그러나 이 《하루길 2천리》에서는 이 정서적감정의 한부분을 앞선 작품들이 그려한것처럼 순간 순간 형상의 매 《길목》마다에서 느끼는 충격과 흥분으로 노래한것이 아니라 그이의 하루길 2천리를 눈물속에 다 바라보면서 느끼는 흥분과 이미 다른 시들에서 노래하면서도 다는 터뜨리지 못하였던 정서적감정을 결합하여 시대와 인민앞에 마음껏 토로하고있는것이다.

서정적주인공은 점심도 건느시고 이른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하루 2천리를 걸으신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생각하며 눈물짓는 인민의 모습을 《눈내리고 비내리고 폭양이 흐르는 길과 길/ 온 조국강산이/ 그이의 집》이였다고 뜨겁게 노래하며 《그이의 천만고생과 바꾼 이 길을/ 락원의 길이라》 부르며 걷는 인민, 하여 《뜨거운 헌신의 그 길우에/ 인민의 행복이 주렁져 설레는 소리/ 천리만리를 주름잡아 내닫는/ 빨찌산야전장군의 그 걸음 그 보폭을 따라/ 선군의 통마가 이 땅을 박차고/ 아득한 만리대공에 내려쳐 오르는 소리》가 울려퍼지는 조국의 모습으로 노래함으로써 선군시대에 대한 환희와 흥분의 마음을 매우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의 이 불같은 웨침과 환희는 우리 독자들에게 고지와 고지, 고개와 고개, 령과 령을 넘어 하루에 수천리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를 뜨겁게 돌이켜보며 그이의 뒤를 이어 끝까지 달리고 또 달리는 선군조선의 공민된 자각을 더욱 굳게 하여준다. 하여 시는 아버이 장군님께서 하루에도 수천리씩 이어가시는 위대한 태양의 그 길이 있음으로 하여 가는 곳마다에서 《강계정신》이 나래치고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노도치는 대하를 시대적정서감이 나게, 무게있고 격이 있게 노래할수 있었다.

이렇게 시는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시적으로 잘

서정화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력사, 인민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의의있게 형상하고있다.

이밖에도 시초안의 모든 시들이 다 깊은 시적 체험을 안고 개성적인 서정세계의 탐구로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무게있게 노래함으로써 명실공히 선군시대의 성과작으로 되고있다.

시초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안는것이 있다.

그것은 시인이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지한 사색과 정열을 바쳐 자기만의 고유한 서정세계를 탐구하려고 노력한다면 꼭 훌륭한 명작을 써낼수 있다는것이다.

참으로 시대의 목소리로 시대의 모습을 감동적인 서정세계로 노래한 시초는 그 사상예술적감화력에서나 견인력에서 나무랄데 없는 명작이며 이 작품을 창작한 시인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독자들은 더없이 매혹되고있다.

그이의 하루길! —그것은 단순히 수자로만, 길

이의 단위로만 쟁수 없는 위대한 태양의 자리길, 억년 드눌지 않을 거대한 인덕의 길이다.

하기에 시초에서는 그이의 하루길 2천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멀고먼 2만리, 2십만리, 2백만리의 한자옥에 불과하다는것을 의미심장하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이상에서 시초의 성과와 경험을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말하고싶다.

시대를 알고 시대를 쓰자.

시대의 사상감정을 느끼고 시대의 정서를 노래하자.

우리의 시인들은 마땅히 높은 시대적사명감을 간직하고 우리 시대의 참다운 노래, 위대한 수령을 모심으로 하여 위대한 사랑이 꽃피나는 나라, 애국과 충정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시대적현실을 더 아름답게, 열렬히 그려나가야 할것이다.

농민의 마음

리래식

눈가루 뽀얗게 말아올리며
기승치는 맵판 칼바람도
누비는 이 들너머 들이 있는 끝까지
거름듬뿍 이 손으로 다 내고싶은
내 가슴의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

지난해도
온 나라가 모두 떨쳐나
오곡을 살찌우며
가꿔온 이 들관

생각도 깊다
용해공들이 로앞을 떠나
이 들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던가
과학자들도 실험실을 떠나
논두렁길을 걷지 않았던가

그때문에 그들이
쇠물을 더 뽑아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그때문에 그들이
첨단기술은 더 돌과 못하지는 않았는지

해마다
용해공들이 넘쳐수행할 년간계획이
농민, 나로 하여 완수되지 못한다면
과학자 연구사들이 딛고오를
탐구와 사색의 봉우리들이
농민, 나로 하여 점령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
이 들에서 농민의 가책과 함께 흘러간것이라
그 시간으로 지은 낱알이
천톤을 넘고 만톤을 넘으면 무엇하고
사시절 들에 산 자부는 무엇하랴

땅을 절구고
씨앗을 물어도 이 손으로!
이삭을 익히고 거두는
농사의 그 모든 일을 다
농민, 나의 이 손으로!

하여 쌀로 공장을 돌리고
쌀로 과학을 떠밀고
쌀로 원군을 하리라
이 땅 어디 가나 들끓는 조국의 숨결에
애국의 뜨거운 박동을 맞출줄 아는
진짜배기 농민, 참다운 주인이 나는 되리라

아, 온 한해 이땅우에
깨끗한 냇을 바쳐 불타는 사랑을 바쳐
풍요한 가을을 제 손으로 안아올
농민의 마음 끝없이 달아오르거니
살을 에는 칼바람을 휘어잡으며
더 세차진 그 마음의 불길을 타고
무르익은 우리네 가을 너울쳐온다 파도쳐온다

래일에 대한 이야기

김충기

전망도

라치골 내창골 굽이굽이 돌아
돌물고개 복죽고개 넘고 또 넘어
장군님 오셨습니다
전선길을 주름잡던 그 걸음으로
계남땅에 또다시 오셨습니다

새로 지은 토끼우리며
개축한 염소호동도 돌아보시고
목장의 오늘과 래일이 집약된
전망도를 보여주신 장군님

목장이 인민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수 있겠는가
생산정형이며 가공능력까지
하나하나 실리를 따져보실 때

우린 알았습니다
목장을 운영해도 인민이 덕을 보게
유유제품을 만들어도 인민의 밥상우에 오르게

실리를 보장해야 한다시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확장된 목장의 전경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실지 덕을 줄수 있는가 보시려
장군님 또다시 찾아오신줄
최전연을 시찰하시던 그 야전복차림으로 오신줄

우리가 선군을 하는것도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라시며
전선길에서 구상하시던 전망도
달리는 야전차에서
쫓잡마져 못 드시며 그리시던 전망도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한껏 누리는 인민의 행복이
아, 다름아닌 장군님의 전망도인줄
강성대국 래일의 전망도인줄
뜨거운 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방목길의 서정

골가득 안개 피는
산촌의 아침
방목공 우리는 길을 떠난다
순이는 고개넘어 라치골
나는야 골깊은 내창골로

이제는 곱절이나 불어난
염소무리 절반씩 갈라
회초리 휘— 휘—
새 풀판 찾아가는 길
장군님 가르치심대로
순환식새 방목 떠나가는 길

돌아보니 어느새
등실 떠가는 흰구름마냥
모였다 흩어졌다 염소떼를 몰고
푸른 언덕으로 멀어져가는
순이의 빨간 수건

나도 몰래 어—

입에 대고 손나팔을 불면
이 골짜기에서도 어—
저 골짜기에서도 어—
정답게 들려오는 메아리 메아리

온종일 들어도 종다리소리같은
순이노래 못 듣고 어찌 지낼가
허나 다시 만날 그날엔
햇풀먹고 살오른 염소자랑으로
너와 나 밤깊는줄 모를게다

길을 떠나네
뒤에는 정든 방목지
앞에는 기다리는 새 풀판
더 좋은 래일

아, 우리의 방목길은 멀어졌어도
언제나 한길 걷는 그 마음속에
간직된 정은 더 가까와졌지
사랑은 더욱 깊어만지리

래일은 어떻게 오는가

함박눈 펄펄 내리는데
선전실 널찍한 앞마당에선
웃마을 아래마을 아이들
눈토끼를 만들기에 신바람났다

철이는 오십키로짜리
훈이는 백키로짜리
수박같이 큰 머리에 유리눈도 해 넣고
주먹같이 큰 코에 술잎수염도 박아 넣고
《계남1호》 《계남2호》
새 품종 이름까지 척—

가는이 오는이
결음을 멈추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꿈에서나 그리던

우량토끼들을 잠간새 빗어놓은
아이들의 사랑스런 모습을

어서 마음껏 펼치거라
너희들의 그 꿈을 꽃피워주려고
너희들의 그 래일을 앞당겨주려고
이 아침도 우리 장군님
눈덮인 최전연 령길을 넘으시려니

함박눈 펄펄 내리는데
선전실 널찍한 앞마당에선
아이들이 래일을 펼치기에 신바람났다
자기들이 주인될 목장의 래일
계손으로 안아올 강성대국의 래일을

장군님과 우리의 래일

또 하루 방목으로 해지우던
계남산마루에 달뜨는 저녁
안해는 치즈며
따끈한 우유를 올려놓는데

어려오누나
떠오르는 하얀 김속에
장군님 방목길을 걸으실 때
야전복자락을 감돌던 흰안개가

그날의 흰안개가
자꾸만 눈앞에 어려와
선뜻 들지 못하고
자꾸만 목메이는 이 저녁

어려오누나
불빛밝은 집집마다
기름진 밥상을 마주한
목장마을사람들의 모습이

또 산너머 먼 도시에서도
우리가 보낸 우유를 앞에 놓고
장군님은덕에 목메일?
가정주부들의 그 모습이

정녕 멀리에 있었던가
강성대국 큰집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살 그날이
오, 장군님은
눈앞에 보이는 래일을 우리에게 주셨거니

그 래일이
장군님 안겨주신 밝은 래일이
자고깨면 맞이할 아침인듯
마음조차 흥그러워지는
아 행복한 저녁이여

—계남목장에서—

속담

라래, 래만

- 건달군은 먹는데서는 건강하고 일에서는 환자이다
- 고기는 이를 잡고 그물은 사흘 말린다
- 공장의 태만분자는 전선에서의 탈주병
- 기대만 가지 고사하는자는 굶어죽는다

- 게으른자 바람시켜 문닫는다
- 남의 노력으로는 배부르지 않는다
- 무서운것은 곤란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 해이성은 많은 과오의 근원



진달래 꽃필때

김광남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흰눈덮인 평양교외의 비행장에서 려객기 한대가 가볍게 날아올랐다. 방향타에 새겨진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유난히 빛났다.

비행기동음이 은은히 들려오는 실내 좌석들에게 해외출장길에 오른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있다.

확성기에서 안내원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지금 우리 려객기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떠나 중국 베이징시를 향해 높이 7천메터, 시속 6백키로메터의 속도로 날고있습니다. 려행도중 편의봉사가 필요하거나 의료상 방조가 요구되시는 손님들은 좌석옆에 붙은 호출기로 안내원실에 알려주십시오. 손님들이 가시는 목적지까지 즐거운 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리룩할 때의 긴장감에서 풀려나 활기있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표정에는 미지의 외국려행에 대한 누를수 없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다분히 어려있었다.

김용남은 실내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심각한 눈길로 시창박을 내다보고있었다.

해빛에 번쩍이는 은빛날개밑으로 햇숨같은 구름들이 서서히 흘러간다. 흰눈덮인 농장벌이며 도시와 공장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대지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용남은 그것을 감상할만 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도병원 연구사인 그는 유럽의 어느한 의료기구주식회사로 가는 길이다.

그가 연구발명한 《휴대용피정화기》(건강반지)의 기술도입주문을 받은것이다.

건강반지는 조국의 의학계에서 림상적으로 검토되고 인정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피정화기술은 사람의 체내에서 피를 뽑아 물리화학적조작을 가한후 다시 혈관에 주입시키는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환자들에게 공포와 육체적부

담을 주고 치료비가 너무 비싸 보통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뿐아니라 치료효과도 시원치 않았다.

그런데 건강반지는 손가락에 끼고있기만 해도 가락지에 박아넣은 보석이 태양빛을 받아 전자기마당의 작용을 일으켜 특이한 빛을 손가락혈관에 비쳐줌으로써 병적상태로 기울어진 피의 지표들을 정상으로 복귀시키는것이다. 특히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경색, 동맥경화증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 특효가 있었다.

용남의 눈앞에는 건강반지를 착용해보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불면증과 머리아픔에 시달렸는데 건강반지를 끼었더니 머리아픔이 사라지고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던 로병할머니, 여러가지 심장혈관계통질환으로 자리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반지를 착용하고 병이 씻은듯이 나았으며 연구소문이 닳도록 찾아와 치료를 했었다.

실로 건강반지의 신비로운 효능은 그것을 연구발명한 자신으로서도 놀라울 지경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의료기구회사들의 초청을 받고보니 마음이 불안했다.

인종과 생활습성, 체질이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잘 적응되겠는지... 혹시 외국에서 이미 발명한것을 반복한것이 아닌지...

건강반지를 낀 그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어디 몸이 편치 않습니까?》

함께 가는 무역성일군인 박동무가 조심히 물었다.

《아니... 반지의 기술적문제를 좀...》

《그런걸 난... 공연히 사색을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별말씀을...》

이때 연푸른 제복을 입은 예쁘장한 안내원이 다과와 함께 오늘호 《로동신문》을 가지고와서 앞

탁에 올려놓았다.

차물을 마시며 신문을 훑어보던 용남은 하나의 사진앞에서 흠뻑 놀라 다시 보았다.

흰위생복을 입은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찍은 너인의 얼굴이 몹시 낯익었던것이다.

고뿌를 내려놓은 용남은 호기심에 겨워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군병원에서 약국장으로 일하는 남선옥이라는 녀성이 여러가지 고려약을 환자치료에 적용하여 거둔 성과를 소개한것이였다.

생각깊은 눈길을 사진과 기사에서 떼지 못하는 그를 보며 박동무가 빙긋이 웃었다.

《신문에 난 그 녀의사와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는게지요. …》

용남은 차물을 한모금 마시고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인생길에… 잊을수 없는 흔적을 남긴 녀인이지요. …》

비행기의 동음이 은은하게 들려왔다.

날개밑으로 흰구름이 서서히 흘러갔다.

×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용남은 학원에서 자랐다. 머리가 총명하고 공부를 잘한 용남은 앞으로 과학자가 될것을 희망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문학시간에 리수복영웅이 마지막으로 남긴 시를 배우고난 용남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 시는 용남의 백지장처럼 깨끗한 마음속에 한평생 지워버릴수 없는 뚜렷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학원을 졸업한 용남은 인민군대에 탄원했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행복도 조국의 운명보다는 귀중치 않다는 리수복영웅의 시가 적힌 작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그는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산악같은 파도를 헤치고 짙절한 바다물을 삼키면서 조국의 령해를 지키가던 나날, 코밑에 숨털이 보시시하고 어깨가 가냘프던 용남은 가슴이 짝 벌어지고 온몸이 구리빛으로 탄 림름한 해병으로 자라났다. 그는 군무의 여가와 휴식때면 참고도서를 꺼내놓고 수학공식도 풀어보고 외국어 단어를 익혀나갔다. 그것은 많은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해병군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몇해후 용남은 어뢰정중대 갑판장으로 근무했다.

어느날, 얼음장을 헤치며 해상군무에서 돌아온 그는 어뢰제작작업을 지휘하고있었다.

이때 갓 입대한 대원의 부주의로 공중에 들어올렸던 어뢰가 미끄러지며 떨어져내렸다. 그아래에서는 한 대원이 작업공구를 거두고있었다.

소리칠새도 없었다. 용남은 어뢰밑으로 뛰어들

며 그 대원을 외락 떠밀었다.

그찰나, 용남은 강한 타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용남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 처음 안겨온것은 상사견장을 단 까만 해병복우에 흰위생복을 입은 예쁘장한 처녀였다.

《아, 의식을 차렸군요!》

처녀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반짝이였다.

용남은 모진 아픔을 참으며 더듬거렸다.

《신—입병사가…》

초리긴 처녀의 속눈썹이 화살처럼 일어섰다.

간호원은 말하지 말라는듯 가늘고 포동포동한 손가락을 용남의 입술에 가져다댔다.

따스한 온기와 약물냄새가 상긋이 풍겨왔다.

《신대원도 어뢰도 다 무사해요!》

용남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의식을 잃었다.

부상은 심했다. 다행히 척추는 다치지 않았으나 강한 타박으로 내출혈이 심하고 허리근육과 신경계통, 내장기관의 일부가마비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그를 담당한 간호장 남선옥은 밤낮 침대곁을 떠나지 않았다. 욕창이 올라봐 덩지 큰 그의 몸을 안아 자주 돌려눕혔고 허리에 여러가지 찜질을 해주었다. 입맛을 잃은 용남이 입을 꼭 다물고 도리질을 할 때면 동생을 달래는 누나처럼 간절하게 속삭이였다.

《한숨가락만 더 넘겨요. 네, 그래야 다시 부대로 돌아갈게 아니나요.》

처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상냥하였으나 용남은 고집스레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았다.

하루는 간호장처녀가 꽃을 가지고 들어와 꽃병에 꽂으며 환희에 넘쳐 말했다.

《저길 좀 보세요. 진달래꽃이 폈어요.》

용남은 처녀가 가리키는 창밖 산기슭을 내다보았다.

《벌써… 진달래꽃이…》

《그래요. 진달래꽃이 폈어요. 난 진달래꽃을 무척 사랑해요. 진달래는 봄의 선구자일뿐아니라 인간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도 안답니다.》

《?!…》

《진달래꽃은 아름다움과 향기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병치료에 유용한 약재로도 쓰인답니다. 진달래꽃을 사랑에 절구어 만든 약술은 관절염에 특효가 있어요. 그리고 진달래꽃을 넣어 만든 지짐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이제 약음식을 만들어드릴테니 맛보세요.》

이튿날 선옥은 진달래꽃지짐과 진달래차를 만들어왔다. 밤을 꼬박 새운듯 처녀의 고운 눈이 빨강게 충혈되어있었다.

용남은 눈을 슴벅거리며 말라붙은 입술을 억지로 벌렸다.

말 잘 듣는 남동생처럼 그가 떠주는 음식을 공손히 받아먹었고 참기 어려운 치료조작들을 이를 악물고 이겨냈다.

팔과 몸을 어느정도 움직일수 있게 되자 용남은 중대동무들에게 부탁하여 참고도서들을 가져오게 했다.

책들을 베개밑에 깔아놓고 보다가 어느날 선옥이 눈에 띄었다. 처녀는 다짜고짜로 책들을 회수하여 간호원실로 가져가버렸다.

아무리 사정하고 달래어도 처녀는 눈섭 한오리 까딱않고 거절했다.

《그건 병원규정위반이에요.》

락심하고 기분이 상한 용남은 그날 운반해온 저녁식사그릇을 밀어치웠다.

《왜 그러세요?》

처녀가 근심스러워 물었다.

용남은 맥이 풀려 나직이 입을 뗐다.

《책보는 운동마저 빼앗으니... 어쩐지 소화가 잘...》

《누굴 속여보려는건가요? ... 책보는게 무슨 운동이란 말이에요?》

용남은 벌떡 어성을 높였다.

《동무도 의료일군이요? 환자의 심정도 모르면서...》

《뭐라고요?》

처녀의 눈섭이 활동처럼 휘여들었다.

용남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해주시오. ... 하지만 왜 그러도 몰라주오. 몸을 움직일수 없는 나에겐 그것이 유일한 정신적운동이란 말이요, 정신운동...》

《?!...》

용남이 정말로 두끼를 건느자 처녀는 한숨을 내쉬고나서 책들을 도로 가져왔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소설도 아닌 참고서들만 보세요?》

기분이 밝아진 용남은 어쩐지 처녀에게 자기의 소망을 털어놓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사실 내 어린시절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것이였소. 했으나 리수복영웅이 남긴 시를 배우고는 조국의 안녕이 있고야 청춘의 희망도 미래도 있다는것을 뜨겁게 느끼게 되었고 대학에 가라는 선생님들의 권고를 마다하고 조국보위초소에 서게 되였소.》

선옥은 감동어린 그윽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처녀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정말... 하지만 용남동진 자기의 몸상태가 어떤 위험에 놓여있는지 알기나 하세요?... 자칫하면 영영 종신불구가...)

며칠후 용남은 침대에 누워 책을 보다가 회진

나온 군의소장에게 걸렸다. 두툼한 눈섭이 회색한 소장은 간호장을 되게 추궁했다.

《이건 뭐요? 여기가 대학기숙사인줄 아오? 간호장은 뭘하고있소. 이건 직무태만이요, 직무태만...》

선옥은 눈물을 머금고 아무 대꾸도 못했다.

자기때문에 처녀가 꾸중받는것이 용남은 못내 가슴이 아팠다.

가까스로 옷몸을 일으킨 용남은 소장에게 전후사연을 다 털어놓았다.

그의 말을 다 듣고난 군의소장이 엄엄한 눈길로 책들을 바라보았다.

《흠... 정신운동이라... 그럴듯하게 꾸며대는구만... 그럴듯해... 그러니 책을 회수하면 또 입맛이 떨어진단 말이지. ... 거참, 야단인걸... 종소. 그것이 사실인지 어디 두고보자구. 이렇게 하기로. 모든 치료조작을 잘 지키고 매끼 식사를 다하는 조건에서 오전, 오후 1시간씩만 책읽는것을 허락하오. 그외에는 절대 안되오. ...》

《고맙습니다 소장동지!》

그후부터 용남에게는 《정신운동환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군의소장은 회진 나올 때마다 그를 보며 《이보라구, 정신운동이 잘 돼가요?》하고는 눈을 깜빡하며 빙긋이 웃곤 했다.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침대곁에 꿰어앉아 맥박을 재여보던 선옥이 그의 팔에 살며시 불을 댕채 깜빡 잠이 들었다.

(?!...)

초리 긴 검은 속눈섭을 흰 불우에 내리깔고 부르트긴 했으나 선이 고운 입술을 반쯤 벌린채 평온하게 잠든 처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으나 용남의 마음은 쓰렸다. 얼마나 지쳤으면...

자기의 원상회복을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온갖 정성을 다 바치고있는 처녀에 대한 측은한 감정이 샘물처럼 조용히 솟구쳐올랐다.

이런 처녀를 위해서라면 못할것이 없을것 같았다. 그가 술꼴이 잠든것이 다행스러웠다.

시간이 흐르자 목직한 처녀의 머리에 놀리운 팔이 저러나기 시작했고 점차 감각마저 무디어갔다. 조금만 흔들어도 처녀가 깨여날수 있었으나 용남은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설사 팔이 잘리운다해도 그로 하여금 잠든 처녀의 머리맡에서 팔을 빼게 하지 못했을것이다.

오히려 고이 잠든 처녀의 얼굴을 기쁨에 겨워 지켜보며 제발 깨나지 말것을 빌었다.

처녀는 제풀에 놀라서 깨어났다. 동시에 용남의 기쁨도 끝이 났다.

한동안 눈을 슴벅거리며 정신을 차린 처녀는 무슨 영문인지 깨달았다.

처녀는 와락 용남의 팔을 끌어안고 주물렀다.

《야... 참, 왜 절 깨우지 않았나요. ... 팔이 몸시

…》

용남은 저려드는 팔보다는 다문 얼마간이라도 처녀의 잠을 지켜주었다는 안도감으로 하여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좁, 더 자지 않구…》

《용남동진… 어찌면…》

처녀의 눈에 핑 물기가 어려울랐다.

용남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갔다.

음식도 제손으로 먹었고 선옥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바깥구경도 나가게 되었다.

용남이 퇴원할 무렵 토끼곰을 해가지고왔던 중대장의 안해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간호장치녀를 욕심스레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아저씨도 이제 장가를 들게 되겠는데 저런 처녀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용남은 말없이 웃기만 했다.

병실앞의 진달래가지에 연분홍꽃이 필 때 입원했던 용남은 붉은 감알이 익을 무렵 군의소정문을 나섰다.

그를 내려주며 선옥이 서운해서 말했다.

《좁더…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용남은 다정한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난… 선옥동무의 그 살뜰하고 진심어린 간호를 잊지 않겠소. … 정말 고맙소. …하지만 중대가 그리워 못 견디겠구만. …》

《…》

퇴원후에도 선옥은 적십자표식이 또렷한 위생가방을 메고 중대에 찾아왔다. 올 때마다 용남의 건강상태도 알아보았고 필요한 치료대책도 세워주곤 했다.

하루는 선옥이 주사를 놓으러 왔었다.

처녀가 주사기를 준비하는 동안 용남은 팔소매를 걷어올리고있었다. 주사기에 약을 채우며 선옥이 조용히 말했다.

《용남동지… 전 제대명령서를 받았어요. …》

《?!…》

용남은 기쁘다고 해야 할지 섭섭하다고 해야 할지 말귀가 떠오르지 않아 처녀가 하자는대로 팔을 내밀었다.

주사를 놓고난 선옥이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용남동지의 치료도 이것으로 마지막이군요. …》

용남의 가슴속에는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이상야릇한 감정이 따스한 봄빛을 받은 밀물처럼 조용히 차올랐다.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철썩거리는 파도소리와 갈매기의 울음소리만이 쓸쓸히 울릴뿐…

주사기를 거두면서 처녀는 그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다.

《저… 용남동지… 집에 가서 편지를 해도 되겠나요?…》

이렇게 묻는 처녀의 얼굴은 파리처럼 빨강계

익었다.

용남은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난생처음 처녀 앞에서 얼굴을 붉혔다.

선옥은 무슨 말인가 더 할듯 망설이다가 조용히 떠나갔다.

처녀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정작 떠나가고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몇달후 처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제대되어 XX군병원에서 간호장으로 일한다는 소식과 함께 언제든 집에 꼭 들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또박또박 박아쓴 글줄마다에는 숨길 수 없는 그리움의 감정이 맥박치고있었다.

이듬해 용남은 제대증과 함께 대학추천서를 받았다. 리수복영웅처럼 한생을 조국보위초소에서 살것을 결심했던 그였다. 하지만 당의 신임에 의해 대학에 추천받은 그는 대학으로 가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결심을 다지었다. 이렇게 결심을 다진 그의 눈가에는 집에 꼭 들려달라던 선옥이의 편지의 구절이 금시라도 보여오는데싶었다.

(이제 선옥이와 그의 부모들을 만나게 된다면… 하지만 나는 대학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가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용남은 처녀에게로 달리는 마음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

실내확성기에서 베이징비행장에 착륙한다는 안내원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려객기는 기수를 낮추며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각양각색의 고층건물이 솟아있는 베이징시가 손에 잡힐듯 내려다보인다. 잠시후 렬객기는 가벼운 충격을 받으며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활주로에 줄지어 서있는 각종 렬객기들이며 비행장건물들이 얼핏얼핏 지나갔다. 드디어 비행기는 멎어섰다.

보행사다리가 놓여지고 출입문이 열렸다.

우리 대사관속소에서 하루밤 묵은 용남의 일행은 이튿날 국제항공기에 올랐다.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인, 타반을 두른 이슬람교도인, 머리가 노랑고 눈이 푸른 유럽인들… 조국에서 우리 비행기를 타고와 우리 대사관에서 묵을 때까지는 미처 느끼지 못했었는데 국제려객기에 오르고보니 낯설은 외국에 와있구나 하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졌다.

비행기가 고도를 취하고 정상비행으로 넘어가자 박동무가 슬며시 그를 쳐다보았다.

《용남선생, 그 간호장치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후 어떻게 되였는지. …》

용남은 반쯤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해군복에 제대배낭을 멘 용남은 ㅅ역에 내렸다.

언제인가 선옥이 제대배낭을 메고 생각에 잠겨 지나갔을 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가로수들이

어리광부리듯 연약한 가지를 하느적거렸다.

군인민병원에 찾아가니 두툼한 안경을 낀 접수원아바이가 남선옥이 야간근무를 서고 집에 들어갔다고 알려주었다. 접수원아바이가 친절히 가리켜주는대로 선옥의 집을 찾아갔다.

읍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경치좋은 산밑의 마을이었다. 마침 우물가에서는 너인들이 물을 길고있었다. 그들에게 선옥의 집을 물어보니 울안에 복숭아가 가득 열린 집을 가리켰다. 흰 해병복에 까만 땀기를 날리며 가는 그를 보고 너인들이 수군거렸다.

《아마도 선옥이 신랑감인 모양이야!》

《저런 끝끝한 총각이 있었으니 그 술한 혼사말을 다 물리쳤구만! 선옥이가 좋아하겠다.》

마당가에 앉아 위생복을 빨고있던 처녀가 거품 묻은 손을 닦을새없이 달려왔다.

《용남동지!...》

뒤미처 선옥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황황히 마주나왔다. 아들이 제대되어 온것처럼 허물없이 배낭을 벗겨들며 반가와하는 그들을 보니 용남은 어쩐지 눈곱이 찌릿해났다.

처녀가 기쁨에 겨워 속삭였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

용남은 군복을 벗은 처녀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결단성있는 성미를 말해주는듯 활동처럼 휘여든 검은 눈썹, 도톰하고 선이 고운 입술, 하얀 목덜미에서 굽실거리는 파마머리, 군사복무에서 단련된 늘씬한 몸매, 어쩐지 군복을 입었을 때보다는 썩 나이가 들어보였다. 하지만 처녀의 온몸에는 감출수 없는 청춘의 싱싱한 활력이 차넘치고있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사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상자리가 좀 어떠세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지 않았소.》

《그동안 절 잊으셨던게지요. 회답편지를 안한걸 보면...》

용남은 빙긋이 웃었다.

《나야 군사복무를 하는 몸이었으니...》

《아이참, 용남동지다운 대답이군요!...》

정겨운 눈매로 그를 흘겨보며 선옥이 웃었다.

《배치는 어떻게 되었어요?》

《응. 리과대학에 추천받았소.》

《정말 기뻐요. 저도 그럴줄 믿고 학습장이랑 학용품들을 구해놓았어요!》

처녀의 눈은 환희와 기쁨으로 황홀하게 빛났고 흰 이는 행복하게 반짝이었다.

《?!...》

처녀에게 자기의 마음속결심을 말해주리라 벌렁던 용남이었다. 하지만 그리도 반가와하고 기뻐

하는 선옥이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성의껏 차려준 식사를 하고난 용남은 옷방에 올라가 잠시 눈을 붙였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누구인가 머리맡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있었다. 선옥이 어머니였다. 순간, 자기가 부상당했다가 의식을 차렸을 때 머리맡에 앉아있던 선옥의 모습이 떠올랐다.

용남은 깊은 감동과 함께 알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에 스며드는것을 막을수가 없었다.

내가 오지 말았어야 할걸 그랬구나. ...

그날 저녁 선옥의 집에서는 있는껏 정성어린 음식상을 차렸다. 가까운 이웃들도 찾아왔다.

집안은 무슨 대사집처럼 흥성거렸다. 화기로운 저녁식사가 끝나고 이웃사람들이 일어서자 용남은 덩달아 일어서며 배낭을 잡았다.

《왜 그러세요?》

선옥의 눈이 둥그래졌다.

《난... 밤차로 떠나야...》

어머니가 놀라서 이마의 주름살을 모았다.

《이보라구, 지나가던 길손도 하루밤 재울라니 모처럼 찾아온 사람을 이밤으로 그냥 보내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나. ... 아직 할 말도 다 못했는데. 판생각말구 옷방에 올라가 꼭 쉬라구.》

선옥이 상긋이 웃으며 그의 팔소매를 잡았다.

《어서요!》

처녀의 목소리는 그의 몸과 마음을 사슬처럼 휘감았다. 용남은 자석에 끌린 쇠볼이마냥 처녀가 이끄는대로 옷방으로 올라갔다.

선옥은 군의소시절 그를 돌봐주던 때처럼 허물없이 이불장을 열고 침구들을 내리쳤다.

잠자리를 퍼주고난 선옥이 결눈질로 슬쩍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편히 쉬세요. 전 병원으로... 밤근무를 나가요.》

처녀가 나간 후 용남은 자리에 누웠다.

기차를 타고 오느라 몹시 피곤했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눈앞에는 처녀의 모습이 얼른 거리며 사라지지 않는다. 샘물처럼 조용히 솟구치는 사랑의 감정과 아버지, 어머니의 따스한 인정에 끌리울수록 그의 마음은 불안스러웠다. 사랑과 인정에 끌려 한번 다진 결심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 아니다. 절대로 그럴수는 없다.

용남은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다.

이리뒤척 저리뒤척하던 용남은 동창이 푸름해져서야 슬קות이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선옥이 들어오길 기다려 늦어서야 식사를 끝낸 용남은 어머니와 마주앉았다.

선옥은 자리를 피해 부엌에 내려가 그릇을 가시고...

《이보라구...》

어머니는 주름잡힌 눈을 찌프리며 용남을 쳐다

보았다.

《우리 선옥인 막내딸이라네. … 언니도 오빠도 다 시집장가를 갔고… 나와 선옥이 아버지도 이제 나이 많네. 그래서… 혼사를 서둘렀는데 저애가 어디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자네가 찾아왔으니 난 마음이 놓이겠네. …》

용남은 더 침묵을 지킬수 없다는것을 통절하게 느끼며 무거운 입술을 뻗었다.

《전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선옥동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대학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

어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제대군인들이야 가정을 이루고도 공부를 할수 있지 않겠나. 더구나 뒤받침해주는 안해가 곁에 있으면 더 좋은게 아닐까. …》

《어머님, 저는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입니다. 고마운 어머니조국이 나를 안아 키워주었고 오늘은 또 대학으로 불러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정을 이룬다면 사사로운 가정생활에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전 청춘시절에 공부를 많이 하여 지식을 쌓아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큰일을 해놓고 가정을 이루고싶습니다!》

용남의 목소리가 어찌나 절절했는지 어머니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내 이제야 알겠네. … 우리 선옥이가 어찌서 자네를 것처럼 따르는가를… 그러니 기어이 떠나려나?》

이때 부엌에서 설것이를 하고있던 선옥이 조용히 올라왔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용남동지 마음인들 오죽하겠나요. … 용남동지, 어서 떠나세요. 전 … 언제까지든 기다리겠어요. …》

처녀의 긴 속눈썹에는 구슬같은 눈물이 맺혔다가 천천히 불우로 흘러내린다.

예리한 칼날이 용남의 심장을 찌르는듯 했다.

처녀가 못 간다고 울면서 잡아 끌기라도 했더라면 이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것이다.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진정한 사랑마저 물리치고 기어이 떠나려는것인가. …

《아, 내가 잘못 생각했소. 난 선옥이결을 떠나지 않을테요.》

조금만 더 지체한다면 처녀의 발치에 꿰어앉아 이렇게 토설할것만 같았다.

다음순간 용남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사랑하는 처녀의 아름다운 눈동자에 반하여 이게 뭔가. … 용남은 단호하게 배낭끈을 쥐었다. …

비행기의 동음이 고르롭게 들려왔다.

시창밖으로 암회색구름덩어리들이 스칠듯이 지나간다. 갑자기 시창이 검컴해지며 실내가 어두워졌다. 천정의 조명등이 밝게 켜졌다.

용남은 의아한 눈길로 시창밖을 내다보았다.

박동무가 안심시키듯 침착하게 말했다.

《비행기가 짙은 구름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시후 비행기시창이 환히 밝아졌다. 흩어진 구름사이로 푸른 하늘이 거울조각처럼 바라보이고 해빛이 부채살처럼 비쳐왔다. 비행기날개가 은빛으로 번쩍인다. 생각에 잠겨 신문을 들고있던 박동무가 머리를 쳐들었다.

《그것이 그 처녀와의 마지막작별이었습니까?》

용남은 머리를 흔들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

용남은 리과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했다.

선옥은 자주 소포를 보내주곤 했다. 그가 정성껏 보내준 학습장이며 학용품들을 쓸 때마다 처녀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라 마음이 뒤숭숭해지었다. 용남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떠오르는 처녀생각을 높은 학구열로 밀어내려고 애썼다. 식당에서 밥술을 뜨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사색의 빈공간속으로 잡생각이 끼여들지 못하게 오직 공부에만 열중했다. 학기마다 우수한 성적으로 진급한 용남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대학생들의 학과경연에도 참가하여 최우수성적을 쟁취하였다.

어느해 봄날, 선옥이 대학에 찾아왔다.

용남은 강의휴식참에 정문으로 뛰어나갔다.

러행가방을 들고 정문앞에 서있던 선옥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주왔다.

처녀의 얼굴은 봄하늘처럼 환했다. 그러나 용남은 웃고있는 처녀의 눈가에서 가느다란 실주름을 찾아보며 가슴이 알찌근해났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난 용남은 손목시계를 보고 나서 잠시 망설였다.

《저… 선옥동무… 강의시간이 다 되었구만. …》

《그럼 어서 올라가세요.》

《선옥동문… 우리 호실에 가있는게 어쩡소?…》

선옥이 방긋 웃었다.

《걱정마세요. 저도 도병원에 불일이 있으니…》

《그렇소? 그럼 저녁 5시에 정문앞 소공원에서 만나가요. 오후엔 학부에서 조직한 특별초빙강의가 있으니…》

처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초빙강의가 끝나니 4시였다. 약속한 시간까지는 1시간이 남아있었다. 용남은 습관처럼 도서관으로 뛰어갔다.

…레이자빛의 단색성은 태양보다 수억배나 강하다. 보통자연빛에 비하면 백만배나 더 좋은 간섭성을 가진다.

레이자빛의 지향성을 써서 극히 작은 넓이에 모이게 할수 있는데…

참고서의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읽기도 하고 학습장에 발취도 하면서 책장을 번지기에 여념이없던 그는 누구인가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머리를 들었다.

한학급생인 제대군인 명동무였다.

《허참, 이런 친구 봤나. 정문밖에서 멧쟁이처녀가 눈이 까매서 기다리는데...》

용남은 놀라서 시계를 보았다. 저녁 7시가 다 되어온다. 부랴부랴 책들을 거두어안고 정문으로 뛰어갔다.

소공원의 의자에 앉아있던 선옥이 일어서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 도서관에 가서 그만...》

그들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다.

선옥이 웃을듯말듯한 그 인상적인 표정으로 그를 슬쩍 결눈질해보았다.

《제가... 보낸 편지들은...》

《받았소. ...》

《그런데...》

처녀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용남은 바깥세상을 처음 구경하는 사람처럼 공원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이며 연분홍살구꽃들을 정신없이 바라보며 중얼거렸던것이다.

《어, 벌써 꽃이 피었는가!...》

《?!...》

선옥은 그의 옆구리에 떨어질듯 가득 끼여있는 책들을 결눈질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부하기가 몹시 바쁜 모양이군요.》

《아니, 힘든줄은 모르겠소. 다만... 시간이 모자라는게 안타까울뿐이지. 참, 부모님들은 다 건강하시오?》

선옥이 힐난조로 말했다.

《부모님들은 용남동지소식을 더 궁금해해요.》

그들의 대화는 자주 동강이 났다.

용남의 머리속에는 방금전 도서관에서 보았던 글줄들과 자료들이 삼삼히 떠올라 입속으로 중얼거리기도 하고 처녀의 물음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는 어줍게 웃기도 했다.

《선옥이, 이해해주오. 난 지금 새로운 결심으로 제 정신이 아니요. ...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특이한 빛인 레이자를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리용하고있소. 나는 그 빛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 리용하고싶소. ...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데 말이요. 난 그것을 위해 한생을 깡그리 바치고싶은 심정이요!》

용남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는 처녀의 눈빛은 깊은 동정과 련민으로 젖어올랐다.

시내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난 그들은 다

음날 저녁시간에 다시 만날것을 약속했다.

처녀를 러관까지 바래주고 돌아서려는데 선옥이 무슨 말인가 할듯 머뭇거리다가 자제하는듯 머리를 흔들고나서 그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기만 했다. 용남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려는듯...

결단성있는 처녀의 대담한 눈길에는 서글픈 애수와 그 어떤 결심이 어려있었다.

이튿날, 용남은 약속한 시간을 몇분 앞두고 소공원으로 나갔다. 선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제 함께 앉았던 의자우에는 진달래꽃 한송이가 놓여있을뿐...

(?!...)

용남은 진달래꽃을 집어들었다. 그윽한 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이 가슴속에 흘러들었다.

...병실에 차넘치던 꽃향기, 따끈하게 끓여주던 진달래차, 달콤한 진달래꽃지짐, ... 봄의 선구자, 인간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아는 진달래꽃을 제일 사랑한다던 선옥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한동안 깊은 회억에 잠겼던 그는 선옥이 좀 늦어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늘 들고다니는 책을 펼쳐들었다. ...

독서에 열중했던 용남이 흠칫 놀라 시계를 보니 약속한 시간보다 한시간이 지나갔다. 이상한 예감이 든 그는 접수실에 찾아갔다.

그의 학부와 이름을 물어보고난 직일관이 편지한장을 주었다. 눈에 익은 선옥의 활달한 필체다.

《?...》

다급히 편지를 뜯었다.

《용남동지, 떠나가면서 몇자 적습니다. ...》

(?...)

《저는 온밤 뜬눈으로 새웠어요. 언제 봄이 왔으며 어느새 꽃이 졌는지도 모르고 분초를 아껴가며 공부에 열중하는 용남동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들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어제는 나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빼앗겼겠지요. 절 용서하세요. 저 하나만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보다 숭고한 용남동지의 리상과 목표를 보지 못했던 저를 말이에요. 전 깨닫게 되었어요. 뜨거운 학구열, 지칠줄 모르는 과학탐구로 꽉 차있는 용남동지의 마음속엔 나의 사랑이 끼여들 자리가 없다는것을... 하지만 사랑에 대한 선택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를 잊으시고 마음껏 공부하세요, 창공을 날으는 자유로운 매처럼. 나도 용남

동지처럼 내가 택한 길을 따라 가려고 해요.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단호히 이 길을 택한거예요. 꼭 성공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겠어요.

안녕히...

19××년 ×월 ×일 남선옥》

가슴속에서 심장이 툭 떨어져내리는것 같았다.

용남은 역으로 달려나갔다. 처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탄 열차는 이미 떠나갔던것이다.

용남은 흰구름 떠흐르는 먼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처녀가 영영 떠나가버린 후에야 용남은 자기가 선옥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던가를 통절하게 느껴보며 돌이킬수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을 찔었다.

당장 기차를 잡아타고 따라가고싶었다.

용남은 저도 모르게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수첩을 꺼냈다. 적어넣은 열차시간표를 찾던 그의 눈에 문득 리수복영웅의 시가 띄웠다.

...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영웅의 시구절이 오늘따라 더욱 강렬하게 그의 망막에, 심장에 새겨지는것이였다.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영웅!... 시련우에 영웅의 모습이 그려지며 그가 자기를 준절히 꾸짖는것만 같았다.

용남동무, 과학은 조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생명선이요, 조국의 강성부흥을, 아름다운 미래를 과학으로 받들어야 할 동무가 아니요. ...

용남은 스스로 얼굴이 뜨거워났다. ...

한쪽손에 쥐고있던 시든 꽃이 맥없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용남은 보풀이 인 작은 수첩을 더 짹 틀어쥐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선옥이, 나를 이해해주오. 난 동무를 잊지 않을것이야!)

러객기는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여전히 날고 있었다. 시창밖으로 검푸른 대지가 내려다보인다. 깊은 생각에 잠겨 말이 없던 박동무가 조용히 입을 뗐다.

《선생이 연구한 특수빛처럼 과학탐구에서도 하나의 목표를 지향해나가는 집중성이 필요한것이죠. 그러니 선생은 과학탐구와 사랑을 바꾸었군요!...》

용남은 절레절레 머리를 저었다.

《과학탐구도 사랑을 위해서가 아닐가요. ... 나의 필생의 목표인 과학탐구를 위해 사랑을 잃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이끌어주었지요!》

박동무가 고개를 끄덕이였다.

《선생은 정말 의지가 강한분입니다.》

《아닙니다. ... 나는 약자였습니다. ...》

《?...》

《솔직히 말한다면 난 그때 사랑때문에 삶의 목표를 잃을가 두려워했지요. ... 내가 만약 강자였다면 그 처녀를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공부도 하고 과학연구도 하였을것입니다. ... 그런데 난... 그 두가지를 다 하기엔 의지가 너무도...》

《...》

용남은 다 식은 차물을 조금 마시고나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처녀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했었지요. 그 처녀가 떠나간 다음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도병원연구소에 들어가 3년을 더 과학탐구를 했습니다. 레이자빔을 환자치료에 리용할 목표를 걸고 건강반지연구에 모든걸 다 바쳤습니다. ... 나는 바랐던, 안 바랐던 그 녀자에게 사랑의 빛을 쬔습니다. 그 빛을 갚는 길은 오직 하나 높은 실력가가 되어 무엇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해놓고 땀땀한 마음으로 그 녀인앞에 나서는것이였습니다. ...

특수빛에 의한 피정화반지를 연구하는 과정에 수백수천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기어이 성공하게 된것도 그런 자각과 희망이 나를 떠밀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

《그후 다시 만나보았는가요?...》

용남은 신문에 난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고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축하전보를 보내왔을뿐입니다.》

용남의 일행은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의 어느 한 나라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비행장에는 그를 초청한 의료기구주식회사역원들이 마중나와있었다.

이튿날, 의료기구주식회사의 사장과 역원들 그리고 이 나라의 권위있는 의학자, 실업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휴대용피정화기》(건강반지)의 림상검토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반지의 림상검토에 참가했던 심사위원들은 한 사람같이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감탄했다.

《대단하다, 최첨단기술이다!》

《피정화기술에서의 기적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체류기간 용남은 국제특허국에서 《건강보호를 위한 피정화방법과 기구》라는 건강반지의 국제특허를 받았다.

그날 저녁용남은 도시의 밤구경을 나가자는 안 내원들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쓰파에 혼자 앉아 신문에 실린 남선옥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얼마후 용남은 조국을 향해 귀로에 올랐다.

려객기의 시창으로 밝은 해빛이 흘러들었다.

손가락에 낀 반지가 명롱하게 빛났다.

비행기날개밑으로 가없이 펼쳐진 대양과 대륙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쭉 벌린 앞가슴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모신 용남은 큰 숨을 몰아쉬며 지구를 굽어보았다.

×

의학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열리는 회의장은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대표들로 흥성거렸다.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를 신념과 량심으로 높이 받들고 의학과학기술의 돌파구를 열어나간 참가자들의 들끓는 열의가차넘치는 가운데 회의는 진행되었다.

회의일정대로 답사와 견학을 하고 숙소로 돌아온 용남은 호실창가에 서서 봄빛 푸르러가는 시내정경을 내다보고있었다.

이때 조용히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안경을 낀 30대 중반기의 녀인이 방에 들어섰다.

군청색조선옷을 단정하게 입은 녀인의 가슴에는 훈장들이 번쩍거렸다.

의아한 눈길로 녀인을 쳐다보던 용남이 흠칫 몸을 떨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선옥동무!》

녀인이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래요, 선옥이예요!》

두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맹렬히 부딪쳤다.

용남의 가슴은 놀라움과 반가움, 환희의 격파로 터지는듯 했다.

아! 선옥이란 말이지, 선옥이!...

그는 녀인의 모습을 훑어지게 응시했다.

결단성있는 성미를 말해주는듯 활등처럼 휘여든 눈썹, 꼭 다문 선이 고운 입술, 옷을듯말듯 슬쩍 결눈질해보던 인상적인 눈표정, 재간있게 빚어놓은 조각상처럼 균형잡힌 얼굴과 단정한 옷매무시는 예나 다름바가 없었다.

용남은 눈시울이 확 달아올라 두눈을 습벅거렸다.

《축하전보를 보내주어 고맙소. ... 나도 신문에 실린 선옥동무의 연구성과를 보고 얼마나 기뻐던지...》

용남의 가슴우에서 빛나는 박사메달과 훈장들을 바라보는 녀인의 눈굽에도 밝은 눈물이 어려올랐다.

그들은 주체사상탑이 바라보이는 대동강유보도로 나갔다. 따뜻한 해별을 함께 받으며...

그들은 진달래꽃이며 복숭아꽃, 살구꽃들이 피여있는 유보도의 자그마한 의자에 가서 앉았다.

지난날의 추억이 봄향기처럼가슴속에 흘러들었다. 그들은 제나름의 생각에 잠겨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마치도 서로 마주보는 눈동자속에서 하고싶은 말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오는것만 같았다.

녀인을 만나게 되면 오랜 세월 가슴깊이 엉겨있던 가슴아픈 심정을 토설하리라 별렸던 용남이였으나 정작 만나고보니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알고싶으면서도 차마 나오지 않는 말을 힘들게 뱉다.

《애들은... 몇이나 되오?》

《...》

처녀시절 성이 났을 때처럼 녀인의 속눈썹이 화살처럼 꽃꽂이 일어섰다.

《부탁이요. ... 제발 노여움을 풀어주요. ... 그래

남편되는분은 어떤 사람이요?》

너인의 속눈썹이 바르르 떨렸다.

《어쩌면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데요?…》

너인은 저르기 흥분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내 심장속엔 한사람밖에는 없었어요.》

선옥은 웃을듯말듯 한 그 인상적인 눈길로 용남을 슬쩍 결눈질해보며 말을 이었다.

《용남동지에게는 언제나 과학탐구가 첫째였지요. … 사랑과 가정은 그 다음이었고…》

용남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청춘시절 선옥의 고백을 듣던 때처럼…

《아, 그러니 선옥동문 아직도…》

너인이 방긋이 미소를 지으며 말머리를 돌렸다.

《생각하세요. 대학공원의 의자가… 용남동진 그때 내가 묻는 말엔 엉뚱한 대답만 하셨고…》

《죄다 생각나오, 죄다… 선옥인 그때 진달래꽃 한송이를 그 의자에 남겼었지. …》

《전 용남동지가 봄의 선구자인 진달래꽃처럼 과학탐구의 길에서 선구자가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도 용남동지처럼 살려고…》

용남이 성급히 너인의 말을 잘랐다.

《그러면 그때 남긴 편지는?!…》

《그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그 시절이 있어 오늘이 있고 우린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았나요!》

《동문… 아… 어쩌면…》

용남은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짝 메여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난생처음 그 정신의 힘을 느끼게 된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행복했다.

용남은 끼고있던 반지를 뽑아쥐고 너인의 손을 잡았다.

멀리 흘러간 그 시절, 의식을 차린 자기 입술에 말하면 안된다고 살며시 가져다댔던 손, 한순가락, 두순가락 진달래꽃음식을 떠넣어주며 정성다해 보살펴주던 곱고 통통한 손이었다.

긴긴 세월, 오직 환자들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 바쳤을 약냄새 배인 너인의 손에 용남은 반지를 끼워주었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반지가 유난히 반짝이였다.

아름다운 사랑의 빛발처럼…

선옥은 말없이꽃 한송이를 꺾었다.

향기 그윽한 진달래꽃을…

가사

병사의 모습

전복실

산새들만 우짖던 깊은 산중에
우람찬 발전소 일떠세우고
병사들 소문없이 떠나갔어요
발전기의 동음소리 뒤에 남기고
아 별처럼 빛나는 불빛을 보면
뜨겁게 어리어와요 땀에 젖은 병사의 모습

밤하늘에 용접의 불꽃 날리며
새거리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병사들 또다시 떠나갔어요

행복의 노래소리 가슴에 안고
아 밝은 해빛 따사로운 창문을 열면
가까이 어리어와요 잊지 못할 병사의 모습

조국을 지키는 한길에서도
병사는 언제나 앞장에 섰고
조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도
병사의 자욱이 새겨져있네
아 그림처럼 아름다운 조국땅우에
어데나 어려있어요 장군님병사의 모습

풍자작가 썬커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른 나라의 문학에서 이룩된 진보적인것 가운데서 우리의 문학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것은 주체적인 립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영국비판적사실주의작가 윌리엄 메이크피스 썬커리(1811—1863)는 자기와 같은 시대의 그 어느 작가보다도 부르조아사회를 가장 신랄히 비판한 풍자작가였다.

썬커리는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비판대상인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도 한결음 더 나아가 황금만능주의가 낳은 영국부르조아지의 속물근성을 예리하게 발가내고 폭로함으로써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뿐아니라 서유럽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 자기의 창작적개성을 뚜렷이 보여준 작가였다.

썬커리는 1811년 6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디아의 칼컷타에서 영국인세무관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다섯살나던 해에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하자 1817년에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으로 비교적 유족하게 지낼수 있었던 썬커리는 런던에서 카르터지안의 수도원에서 보통교육과정을 마치고 1828년에 케임브리지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

썬커리는 벌써 대학시절부터 평론활동에서 자기의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대학시절 썬커리는 대학신문의 편집원으로 있으면서 판화, 만화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리고 째째이 풍자시들을 창작하여 작가적기를 쌓아나갔다. 드디어 썬커리는 예술학을 전공하고싶은 욕망을 안고 1830년 대학을 중퇴하고 피체가 있는 와이마르공국에 갔으나 얼마 안있어 다시 귀국하였다. 조국에 돌아온 그는 변호사가 될 작정으로 법률공부를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신문사의 편집원, 외국통신원으로 활동하였다.

썬커리가 여러 신문사에서 동인으로 활동하던 1830년대초로 말하면 영국에서 차티스트운동이 성숙되어가고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 노동운동의 영향밑에 많은 량심적인 부르조아지식인들은 급진적정치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썬커리도 그중의 한사람이었다. 썬커리의 급진적정치관은 초기 그

의 정론활동에서 군주정치를 비판하고 부르조아 공화국을 지향한데서 표현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부르조아사회의 모든 부패와 악덕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적태도를 가지고 돈외에는 아무런 권위도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부르조아사회를 장마당으로 규정하였다.

썬커리가 작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것은 1840년대초부터였다. 이 시기는 영국에서 부르조아사회의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 등 모든 병폐가 날날이 드러나고 국내에서 자본주의적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더욱더 앙양되던 시기였다. 이속에서 그는 부르조아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날카로운 창작의 예봉을 돌리면서 소설창작에 달라붙었다.

이 시기 썬커리는 당시 풍자잡지 《펜취》에 련속 작품들을 발표하여 문단의 이목을 끌었다. 썬커리가 작가로서 인정을 받은것은 잡지에 풍자소설 《영국의 속물들》이 련재되기 시작해서부터였다.

1846년~1847년사이에 련재된 풍자소설 《영국의 속물들》(그후 이 작품은 《속물들의 책》으로 다시 간행되었다.)은 썬커리에게 작가적인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이 작품에서 썬커리는 웃사람에게는 아침하고 아래사람에게는 호령을 하며 돈과 권세앞에서는 쪽을 못쓰면서도 겉으로는 점잔을 빼는 영국부르조아지의 위선적인 속물근성을 신랄하게 풍자조소하였다.

이와 함께 작가는 《캐더린》, 《지마의 일기》, 《베리 릿든》, 《펜취상의 소설가들》 등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여 영국부르조아사회의 진면모를 야유하였다.

그후 장편소설 《허영의 시장》(1845~1848)에서 영국부르조아사회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풍자와 비판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작품은 1810년대초~1820년대말 약 20여년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돈이 모든것을 좌우하는 부르조아사회의 취약성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특히 작가는 이 작품에 《주인공이 없는 소설》

이라는 의미심장한 부제를 달아놓음으로써 부르조아사회에서는 다름아닌 돈이 주인이며 인간은 돈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자기의 사상적주장을 명백히 하였다.

장편소설 《허영의 시장》을 창작한 뒤 작가의 세계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차티스트운동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작가는 부르조아사회와 타협하는 길로 나갔다.

1850년에 창작한 소설 《펜데니스》가 바로 이러한 작가의 사상이 반영된 작품이다. 불합리한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사회에 부딪쳐보기도 하지만 종당에는 사회와 타협하고야마는 주인공 펜데니스는 곧 썩어리자신이였다. 이어 작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계급투쟁을 도외시하면서 창작에서 후

퇴하였다. 소설들인 《헨리 이즈먼드》(1852), 《뉴컴일가》(1855), 《버지니아사람들》(1859)이 그 대표적실패이다.

작가는 자기의 세계관적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1863년 12월 사망하였다.

작가는 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부르조아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회의주의, 염세주의에 빠져있었으나 총적으로 볼 때 영국부르조아사회의 사회악을 예리하게 풍자조소한 예리한 비판자였고 신랄한 풍자작가였다.

리강일

병사는 조국의 대지우에 편지를 쓴다

정동찬

야간행군의 땀을 건고

또다시 명령을 기다리는 철참

멀지 않은 부락 여기저기서

다투어대는 닭울음소리

문득 두고온 고향에 못 띄운

회답편지의 마무리에 대한 생각

며칠전에 받은 어머니편지

또 며칠후 받은 선생님편지

두툼한 봉합편지 만져지는 가슴을

전호벽에 대인채 생각도 많아...

내 어이 받기만 하랴

고향의 뜨거운 부락과 인사를

쉬이 보낼수 없는 나의 회답편지에

마치도 좋은 생각 보탬하려느냐

새날이 건듯 들어주는 저 푸른 들

나의 돌격선 전방의 황토길과 강변에서

피어나는 봄의 아지랑이처럼

무수한 글줄들이 떠오르는구나

이제 흉장을 박차고 내달릴

나의 담당 전투구역

막아설 철조망에 돌파구를 열어갈

나의 배밀이와 무르팍걸음

도하지점의 강물과 진펄을 차며 내달릴

나의 발자욱 발자욱들이

내 마음의 마디마디 글줄이 되어

보내지 못한 편지의 공백속에 날아들듯

빈말로써가 아닌

심장의 피로써

한치한치 이 몸을 땅과 부대끼고

이름모를 골짜기의 한가닥 물과 입맞추며

뜨거운 속삭임으로 쓰는 나의 편지를

고향이여 스승이여 알아다오

그런 위훈의 길지 않은 편지를

오, 병사는 조국의 대지우에 쓰노라

병풍덕

정금녀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십여년전 소녀시절에 짓지 못했던 글짓기숙제를 하려고 한다.

1

나의 고향은 함경남도의 어느 깊은 산골마을이다.

소나무숲이 하도 아름다와 풍송리라 부르는 마을소재지에서 사계절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배골천을 따라 참나무숲사이로 뻗은 발구길로 30리, 새초가 무릎을 치는 오솔길로한 20리가량 더 올라가면 명당골이라고 부르는 양지바른 골짜기가 나진다.

...아득한 그 옛날 봉건통치배들이 산천경개 수려하고 언제나 양지바른 이 골짜기에 저마다 제 가문의 묘자리를 보았다고 그 지명도 명당골...

해방전엔 왜놈들의 사냥터로 지목되어 겨울에도 불고기냄새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병풍덕이라고 부르는 무연한 등판이 나진다.

참나무가 빼곡이 병풍처럼 빙— 둘러서 바람이 자고 언제나 따뜻한 이 등판에서 머루와 다래덩굴이 많은 골짜기로 몇발자국 내려가면 겨울에도 얼지 않고 뽕뽕 솟아나는 맑은 샘물이 있는데 그 옆에 자그마한 귀틀집 한채가 보인다. 새초이영을 폭신히 이고 키작은 통나무굴뚝에서 연기가 물물 피어나는 귀틀집, 여름이면 트락에 우유틈안개가 어리광을 부리고 두귀 벌쭉한 커다란 개 두마리가 사립문앞에 앉아있는 그 귀틀집이 바로 내가 태어난 집이다.

심산속의 작은 귀틀집,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폭포소리... 산새들의 지저귀이 끝없고 밤이면 산짐승들의 울부짖음소리 그칠새없이 들리는 곳, 아버지의 등에 업혀 방목지에 가면 누렁소와 염소떼, 방목공 삼촌들이 부는 하모니카소리...

유년시절 나는 이것이 인간세상의 전부인줄 알았다. 그중에서도 어린 마음을 유혹하며 드문히 찾아오는 유일한 상대는 철림이라는 총각이었다.

나보다 다섯살이나 우인 철림오빠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 병풍덕에 올라오곤 했는데 나는 그를 때없이 기다리곤 하였다.

어느날 내가이 등판에 하얗게 피는 들꽃으로 머리치장을 하고 꽃다발을 만들며 흙으로 이겨만든 《떡》을 《큰상》에 가득 차려놓고 소꿉놀이를 하는데 마침 철림오빠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나는 손벽을 찰짝 치며 반겨맞았다.

《오빠,나 〈새각시〉 놀음 할라는데 오빠가 새서방 할래?》

나에게 재미나는 그림책을 안겨주던 철림오빠 어처구니 없다는듯 눈을 흘겼다.

《뭘 새서방? 이거 끝다끝다 하니깐 이젠 너하구 소꿉놀이하잔? 싫어!》

나는 그만 앵돌아져 쿵쾅쿵쾅 눈물을 쥘었다.

철림오빠 나를 얼리지 못해 찢찢 땀다.

《자, 여기 새서방 있잖니?》

손등으로 툭툭떨어지는 눈물을 씻으며 옆자리를 보니 흙을 빚어 대강 만든 오토기가 투박한 가슴에 꽃을 달고 《의젓》하게 앉아있었다. 그 모양이 너무나도 우스워 나는 그만 킁— 깔깔깔... 하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놀음에 팔린 나는 아버지가 오는것도 몰랐다.

《허허... 그런데 큰상에 고기가 없다— 이것 참 안됐구나. 애들아, 이제 이 등판에 〈음메〉를 많이 길러 이담에 너희들의 진짜 큰상은 고기로만 차리자. 그땐 너희들이 이 등판의 주인이 될게다.》

아버지는 나를 안고 빙그르르 돌았다.

당달아 철림오빠가 헤벌쭉 웃더니 들고있던 들꽃다발을 하늘높이 올려던졌다. 꽃가지들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며 《큰상》에 내려앉았다.

나는 소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리소재지에 있는 할머니네 집에서 학교에 다녔다.

사람들도 많이 보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저녁이면 불밝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는 인적없는 깊은 산속에서 살고있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껍 의아하게 생각하곤 하였다.

어느날 저녁 나는 할머니에게 우린 왜 산속에서 살고있는가고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야기해주었다.

《너의 아버지 군대에서 제대되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병풍덕에 자진해가 방목지책임자가 되었단다. 잔칫 하구 네 엄만 이 집에서 살았는데 몇달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네 아버지를 기다리다못해 막달잡힌 몸으로 아버지를 찾아서 병풍덕으로 올라갔지. 내가 그만큼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두... 거기서 그만 너를 낳았단다. 쫓쫓...

해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겁해서 올라가보니 네 엄만 갓난 너를 싸안구 조밥에 산나물국을 먹고 앉아있는게 아니겠니? 예구, 기차지...

젖이 모자라는지 아이는 왕왕 울어대는데 같이

올라갔던 리당비서는 〈어머니, 이 병풍덕이 운이를 정조입니다.〉 하지 않겠니. 그 말이 그리두 좋은지 네 아버지는 머리를 긁적이며 벌썬 웃더라. 네 아버지때문에 리병원에 있던 네 엄마두 병풍덕의 담당사가 돼서 놀러앉구말았단다. 그래서 너까지 거기서 살게 된거다.》

나는 할머니가 옛말처럼 들려준 그 이야기를 되새기며 토요일저녁이면 방목지에서 내려온 말발구를 타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병풍덕의 집으로 올라가 하루밤 자고는 일요일 오후에 내려오곤 하였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늘 가지고 노는 종달바구니에 철따라 산열매를 담아가지고 마중을 나오곤 했다.

어느 가을날엔 그 바구니에 머루와 다래를 담아가지고 십리정도 마중나왔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쭉구가 주단처럼 깔린 발구길을 내달리며 그동안 헤여졌던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아버지, 이젠 나 다 쓸줄 알아요. 머루, 다래, 소, 염소, 양, 노루, 사슴, 뱀, 곰, 너구리, 오소리 그리구 병풍덕...》

아버지는 종달새처럼 끝없이 재잘거리는 딸이 너무 고와 입가에 웃음을 담고 나의 볼에 입맞춰 주었다. 그리고는 바구니에서 까만 머루송이를 꺼내서 내 손에 쥐여주었다.

《요건 딱 우리 금이 까만 눈갈애. 요 머루가...》 하면서 까맣고 윤기도는 머루 한알을 나의 입에 넣어주었다.

나는 새콤달달한 머루알을 꼭 깨물며 아버지에게 다래를 내밀었다.

《요건 아버지가 좋아하는거, 염소방울, 다래는 염소방울이야.》

내가 내미는 다래를 꼭 씹던 아버지는 염소방울과 신통히 비슷한 다래를 처음 보기라도 한듯 새삼스레 다시 보며 《그것 참 신통히 염소방울이로구나. 그럼 엄만 뭘 좋아할까?》 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엄만 오미자예요. 오미자! 방목공 삼촌들이 힘들어 한다고 오미자시럽, 오미자차...》

《그래, 그래. 금이는 머루, 아버지는 다래, 엄만 오미자, 좋구나!》

더없이 만족해진 아버지는 나의 손목을 잡고 숨가쁜줄 모르고 등판에 올라섰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산열매 익어가는 냄새에 특유한 염소냄새까지 어울려 이 등판에서만 맡을수 있는 《병풍덕냄새》가 바람결을 타고 물씬 풍겨왔다.

《금이야, 저기— 저 묵어있는 등판을 풀판으로 만들자. 정말 등판이 기름지구나. 이제부터 아버지 할 일이 많다.》

아버지의 목소리엔 신심이 넘쳐있었다.

그러던 어느해...

내가 즐겨 기다리는 국어시간에 선생님은 《아버지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짓게 하였다.

《학생들의 아버지들은 일터와 초소는 서로 달라도 당을 받들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훌륭한 분들이예요. 자, 그럼 작문을 짓겠어요. 훌륭한 아버지를 그려보며 잘 지으세요.》

술렁거리던 아이들은 인차 조용해지고 교실엔 연필 달리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리었다.

나는 학습장에 《아버지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써놓은채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어느 아이라없이 얼굴엔 아버지에 대한 긍지가 넘쳐있었다.

나의 눈길은 교실을 조용히 거니는 선생님의 눈길과 마주쳤다. 선생님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의미있게 끄덕여보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려보았다.

아버지는 지금 뭘 하실가. ... 방목길에 올랐을가. ... 아니면 발을 절룩거리는 염소를 치료하느라 절구에 약초를 찧고계실가. ...

나는 눈을 감고 손톱으로 책장을 긁었다.

...추운 겨울날,

《금이야, 문 열어라.》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이어 활짝 열어제긴 부엌문으로 눈을 깜빡이는 노루를 안고 들어서는 아버지...

어머니는 놀랐고 나는 눈을 동그렇게 떴지.

《이놈이 눈판에 먹을게 없어서 맥을 놓고 쓰러져있는게 아니겠니? 금이야, 이 병풍덕의 짐승들은 다 우리와 한식구들이다. 우리 산판에 마른풀을 달아주자.》 하시면서 아버지는 노루의 다리를 주물려주었지. 엄마하고 나는 쌀가루미음을 노루에게 먹이며 며칠동안 간호하여 끝내 완쾌시켜 숲속으로 보내주었고...

이것도 아버지의 자랑이 아닐가. ... 피, 그게 무슨 자랑이람,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럼 누가 먼저 작문을 발표하겠습니까?》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니 아이들이 저마다 손을 들고있었다.

먼저 저기 앞자리에 앉은 명혁이가 일어섰다.

《우리 아버진 농장 관리위원장입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냈습니다.》

순간 교실엔 박수갈채가 터졌다.

나는 부러운 눈으로 그 애를 바라보았다.

다음은 은별이라는 아이가 일어나서 인민군대 군관을 하는 자기 아버지의 군모에 빛나는 붉은 별을 자랑하였다.

《참 잘 지었습니다. 다음은 금이학생의 작문을 들어봅시다.》

아이들의 시선은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나는 의자를 빼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아직 작문을 짓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금이가 작문을 못 지었나봐.》
《아버지가 병풍덕 염소방목공이니깐.》
《깊은 산속에서 무슨 훌륭한 일을 하겠니?》
《아버지의 자량이 없는가봐.》
나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움을 느끼며 학습장에 얼굴을 묻고 주저앉아버렸다.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닙니다.
금이학생의 아버지인 우리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인적없는 산속에서 남모르게 구슬땀을 흘리고계실거예요. 이제 병풍덕에 염소들이 구름처럼 뒤덮이고 산마다 산짐승들이 옥실거리면 우리 고향은 살기좋은 낙원이 됩니다. 금이학생은 훌륭한 아버지 대한 작문을 꼭 지어야 해요.》

나는 눈물이 아롱진 눈을 습벅이며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실망한 나에게 믿음어린 눈길을 주었지만 나는 손상당한 자존심으로 하여 견딜수 없었다.

나는 울면서 병풍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아버지는 방목지에 없었다. 며칠째 승냥이의 흔적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있었다.

바로 며칠전에 새끼염소우리가 맹수의 습격을 받았던것이다.

여기저기 피자옥이 랑자하고 몇마리의 새끼염소가 없어졌다. 그리도 사납던개들이 꼬리를 사타구니에 끼우고 우리에서 나을념을 안했다. 염소들이 공포에 떨고있었고 물어뜯어 너덜거리는 출입문널판자가 후—밀려드는 바람에 불안스레 흔들거렸다. 어떤 피물의 작간일가...

즉시 아버지의 몸매 사냥무기가 휴대되었다.

《승냥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직하나 휘파람소리같이 울렸다.

(이 병풍덕이 리로운 짐승들의 원무장이 되려면 승냥이굴을 없애여 그 잔인무도한 피물의 씨를 말려야 한다.)

그래서 승냥이굴을 찾아떠난 아버지가 아직도 방목지에 내려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혼자서 썸터를 손질하고있었고 방금 방목길에서 돌아온듯 한 철림오빠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때 철림오빠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병풍덕 방목공이 된지 며칠 안되었다.

나는 쿵쾅쿵쾅 울며 국어시간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나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심중한 표정을 짓더니 《우리 금이가 아버지의 자량이 없어서 작문을 못 짓다니... 금이야, 아버지인 이 병풍덕을 보물산으로 만들려고 애쓰고계셔.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이 병풍덕에서 사는거야.》 하는것이였다.

《남들은 여기가 아니래도 다 훌륭하게 살아요. 난 다른 애들이 부러워요. 우리 아버지 왜 이 산속에서 이렇게 사나요. 나두 훌륭한 아버지를 자랑하고싶어요.》

나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철림오빠가 맥없이 풀숲에 털썩 앉았다.

《금이야,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였는가 아니였는가 하는것은 후날 이 병풍덕이 말해줄거야. 우리 힘껏 아버지를 도와드리자꾸나. 자, 이젠 집에 들어가서 썸터를 만들자. 오늘 저녁엔 아버지가 꼭 오실게다.》

나는 나의 하소연엔 아랑곳없이 아버지만 《두둔》하는 어머니가 야속하여 깨끗하게 손질해놓은 우물에 검불을 집어넣으며 심술궂게 굴었다.

그러나 물이끼오른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수면에 떨어진 티검불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정가ροι이 맑아졌다.

지울같은 샘물은 희망에 넘쳐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무엇이 못마땅한지 돌아앉아 씩씩거리는 철림오빠의 뒤잔등, 아직도 눈물이 아롱진 나의 얼굴까지 그대로 비껴담았다.

바로 그날 밤.

나에게 가슴아픈 상실이 닥쳐올줄 어이 알았으랴.

썸터를 다 만들고 아버지를 기다리며 방금 뜬 어가지고 온 참나물물 손질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허리를 펴지 못하였다.

나는 너무도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나는 마당에 뛰어나와 아버지를 부르며 발을 동동 굴렀다.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목지에 남아있던 철림오빠가 뛰어왔다. 어머니는 아픔을 참느라고 파랗게 질린 입술을 피지게 깨물고있었다. 철림오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하기만 하였다. 점점 날은 어두워왔다. 그러나 아버지 오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부르며 엉엉 울었다. 아버지를 부르는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다시 들려왔다. 어머니는 진땀을 흘렸다. 모진 아픔이 어머니를 괴롭혔다. 철림오빠가 결심한듯 밖으로 뛰쳐나가 말을 끌고왔다. 어머니를 발구에 싣고 병원으로 가려는것 같았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희미해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방목지를 비워서는 안된다고 너무도 말리는 바람에 철림오빠는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새벽녘에야 집에 들어섰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놀라와 온몸을 우둘우둘 떨었다.

어머니는 급기야 밭구에 실려 군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슬픔은 너무도 뜻밖에 순간에 닥쳤다. 나는 어머니를 다시는 볼수 없었다!

《아!...》

아버지는 너무도 억이 막혀 주먹이 으스러지게 땅을 내리쳤다.

며칠후, 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귀틀집의 사립문을 나섰다.

바래주러 나온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했다.

까닭모를 설움이 온몸을 휩싸며 나를 울게 만들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뒤를 자주 돌아보았다.

나의 자그마한 발자국이 수없이 찍혀진 산속의 작은집 프락에 체소한 아버지가 외롭게 서있었다.

2

얼마동안 그리도 아버지한테 무관심한것 같던 할머니가 요즘엔 밤마다 잠자리를 뒤채며 끙끙 앓음소리를 내더니 하루는 방목지에서 휴식하러 내려온 철림오빠를 집에 불러들이었다.

《생각같아서는 〈산속귀신〉이 되라고 내버려두구 말자구 했는데 자네두 보다싶이 청청 젊은 사람이 한뼉 저렇게 살수야 없지 않나? 혼자 산지 벌써 일년이 되었어. 곁에서 자네가 좀 노력해주게. 여기 마음고운 너자가 하나 있는데 애 애비가 산에서 내려와야 마주 세워보기라도 하겠는데... 그래, 어찌겠나. 자네가 수풀 좀 해줘야지...》

그러자 철림오빠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듯 팔을 휘저었다.

《내가 말한다고 병윤반장이 내려올것 같아요?》

《그럼 이 일을 어찌면 좋겠나?》

할머니는 돌아앉아 웃심으로 눈굽을 훔쳤다.

《걱정마세요. 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그 너자를 데리고 가겠어요.》

숙제를 하다가 그들의 말을 엿들으니 새 어머니를 데려오자는 소리였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설움을 터뜨렸다.

《싫어요. 새 엄만 싫어요. 아버지가 병풍덕에서 내려와 할머니네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 되겠는데 왜 새 엄마를 데려오자고 그래요?》

《이 철없는것아, 네가 싫다면 싫은거냐?》

나는 엉엉 울면서 할머니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할머니, 아버지도 가만 있는데 할머니가 왜 그래요? 데려오지 말자요. 난 싫어요.》

할머니는 나의 머리를 꼭 쥐여박았다.

《생떼같은 사람을 죽였지. 예구, 네 애비가...아니... 내탓이야, 어이구...》

할머니의 푸념소리는 어린 나의 가슴을 허뼛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너자를 만나보지도 못했다.

철림오빠도 끝내 그 너자를 설복해내지 못하였던것이다.

그 일이 있던 뒤 마을에는 아버지가 선을 보지 못한채 너자한테 채웠다는 소문이 짜— 하게 퍼졌다.

그 소문을 가지고 할머니는 밤마다 아버지를 욕했다.

그러나 나는 좋았다. 이붓어머니를 데려오지 못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늦가을에 잡아들자 할머니는 양털로 실을 뽑아 아버지의 폭신한 내의를 만들었다.

나는 그걸 가지고 병풍덕으로 올라갔다.

저기 등판에서 풀을 뜯고있는 염소들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날것 같아 뛰어갔다.

바로 내 코앞에서 배뽕뽕염소가 저혼자 남남 풀을 뜯어먹고있었다. 내가 발자국소리를 죽이며 가만가만 다가가려는데 어데선가 획— 날아온 돌멩이가 염소의 코등을 딱 때렸다. 후닥닥 놀란 염소는 울음소리를 지르며 가벼운 코김을 내긋더니 돌멩이가 날아온쪽으로 허둥지둥 뛰어갔다.

《철림오빠로구나.》

철림오빠 돌팔매로 염소들을 잘 길들여 방목을 쉽게 하는 《재간》을 가지고있었다.

《〈배돌석오빠!〉—》

나는 손나팔을 하고 철림오빠를 불렀다.

철림오빠는 등판의 밋밋한 바위우에 앉아 무슨 쇠줄을 꼬며 있다가 나를 보고 웃음지었다.

《금이야? 너 내가 방목나온걸 어떻게 알아맞추었니?》

《요거 있잖아?》

나는 돌던지는 시늉을 해보였다.

《췌,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아. 다시한번 〈배돌석〉이라고 불렀다간 알지?》

철림오빠 내 눈앞에 주먹을 흔들어보였다.

《응, 알아. 근데 뭘 만드나?》

《몰라두 돼.》

《야, 맛있는 냄새—》

《오 참, 내가 잊었구나. 자, 돌배다.》

철림오빠는 훌치기의 아구리를 풀었다. 그안엔 서리맛아 무르익은 노오란 돌배가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야! 돌배.》

나는 손벽을 짝 치며 돌배 한알을 꺼내들었다.

꼭지를 쥐고 통알을 그냥 입안에 넣은채 몇번 씹으면 새콤달짝지근한 속살이 녹아내리는속에 허끝을 굴려 새까만 씨를 툭툭 뱉으며 먹는 서리맛은 돌배맛을 어느 열매에 비길가. ...

《자, 이젠 들어가자.》

철림오빠가 나무가지를 꺾어 회초리를 만들더니 염소들을 쫓았다.

아까 돌팔매에 얻어맞은 염소도 회초리에 쫓기였다.

《어마나… 오빠 피 나와. 코등이 부었어.》

《일없어.》

휘파람을 불던 철림오빠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다.

저녁에 아버지가 약초를 절구에 찧더니 즙을 내어 그 염소의 코등에 발라주었다.

나는 나무가지우에 돌아앉아 기타를 치며 흥얼거리는 철림오빠를 끝지 않은 눈으로 흘겨보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뜻밖의 광경에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아버지가 철림오빠의 팔을 움켜쥐고 철림오빠는 거기서 풀려나오려고 애를 쓰고있었던것이다.

《놓으라요. 이걸 봐요.》

《너 아직도 잘했다는거냐?》

나는 속이 콩알만 해졌다. 철림오빠가 돌팔매로 염소방목을 한다는것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챈것 같았다.

방목공들이 달려나와 아버지를 말렸다.

아버지의 손에서 간신히 풀려나온 철림오빠는 억울한듯 하소했다.

《하 참, 어처구니 없어서… 내가 짬짬이 놓았던 옹노가 자꾸 없어진다 했더니 저 홀치기에 들어가있는게 아니겠어요?》

철림오빠는 아버지가 메고있는 홀치기를 가리키며 씩씩거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가 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제가 기르지 않는 산짐승이라고 그렇게 막 잡으면 못써.》

《뭐라구요? 그래, 이 병풍덕의 산짐승이 다 반장동지거라구 제것처럼 그래요? 소나 염소는 농장재산이 돼서 못 다친다쳐도 제 노력을 들여 산짐승이야 왜 못 잡아먹어요?》

《소나 염소뿐아니라 여기 병풍덕 산짐승도 다 나라의 재산이야. 그러구 더 중요한건 여긴 방목지야. 방목지 주변에 무슨코 놓이야?》

그 말에 철림오빠는 눈을 치뜨며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바지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획 돌아섰다.

《에익, 좁쌀같은 사람하고 이 산속에서 어떻게 산단 말이야.》

철림오빠는 hing—하니 합숙으로 들어가더니 자기 소지품이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나왔다.

그러나 아버지의 억센 손아귀에 붙잡혔다.

《못 가, 그 정신으로는 여기에서 한걸음도 가지 못해.》

나는 아버지가 야속하였다.

남이야 산짐승을 잡아먹던말던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나서서 미움을 받는단 말인가. …

저녁녘에 철림오빠가 어디서 구했는지 술 한병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저녁보도를 들으려고 라디오에 전지약을 끼우던 아버지는 술냄새를 풍기며 구들에 올라서는 철림오빠를 의아히 쳐다보았다.

《반장동지, 그건 좀 밀어놓으시구 나하구 얘기나 좀 합시다.》

《무슨 일이나?》

철림오빠는 라디오를 끄당겨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다.

《이 산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바랄게 있어요? 아 술직히 말해보자요. 나두 뭘 좀 해보자고 이 방목지에 자진했어요. 그래 이 천고밀림속에서 산짐승 한마리가 뭐라고 그렇게 옥옥거려요?》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찾았다.

철림오빠는 목이 답답한지 작업복 옷단추를 끄르며 벌개진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난 금이가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요. 그 애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한단 말이예요?》

철림오빠의 말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나의 가슴을 아프게 지쳤다.

그날 저녁 나는 이담에 크면 병풍덕을 떠나 도시에서 살리라 마음 굳게 먹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그런다구… 누가 반장동지한테 혼장이라도 한 개 주겠어요?》

철림오빠의 그 말에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아버지를 따라 비칠거리며 일어서던 철림오빠는 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옹노를 빼앗는다구 내가 못할가?...》

정말 그 옹노가 일을 치고야 말았다.

산짐승이 걸리라고 놓은 옹노에 뜻밖에도 방목하러 올라온 중승아지가 걸렸던것이다.

《소가 걸렸다—》하는 방목공들의 부르짖음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아버지는 너무도 억이 막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늘을 향해 뻗뻗해진 네다리, 희뜩 뒤집혀진 눈알을 부릅뜨고 아직도 입에서 거품을 부각부각 피여올리며 마지막숨을 튕는 누렁소… 옹노에서 빠져나오려고 어찌나 세차게 요동쳤는지 주변의 잡관목들이 마구 꺾어지고 부식토가 뒤섞여진 흙이 여기저기 마구 뿌려져있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중승아지의 목을 꼭 조인 쇠줄을 풀려고 팔을 뻗치었다. 두손이 와들과와 떨렸다.

척 늘어져있는 덩치 큰 누런 짐승이 틀림없이 방목지 소이며 그것이 자기가 놓은 옹노에 걸려 죽었다는것을 인식한 철림오빠는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이걸 어쩌면 좋아요. 이걸 어쩌면… 메돼지 코를 놓았는데 소가… 야...》

그러나 현실은 팽팽하였다.

농장에 이 사실이 보고되고 법기관에서 방목지에 올라왔다.

마을에서는 방목지에서 옹노를 놓아 소를 잡았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비난의 화살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방목공이 된 지 얼마 안되는 애송이청년이 아니라 그 방목지를 책임진 아버지에게 날아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적없는 깊은 산속에서 그따위 짓을 하여 제리속을 채우자고 병풍덕에서 내려오지 않는거라고 아버지를 헐뜯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너무해요.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나섰다.
마을에 퍼진 그 소문을 듣고 짹짹 퍼붓는 비를 맞으며 병풍덕으로 달려간 나는 염소먹이풀을 지고 산비탈을 내리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너무도 억이 막혀 오열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돌처럼 날아갔다.

비속에서 날 띄여본 아버지가 지게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무엇때문에 그 벌을 아버지가 받아야 하나요. 예?! 이렇게 비를 맞으며 풀지게를 진다고 누가 알아나 줄것 같아요?!》

나는 너무도 분하여 풀지게를 꽉 밀쳤다. 그 바람에 작시미에 의지하여 비탈길에 서있던 풀지게는 옆으로 기울면서 넘어지고말았다.

《저런...》

아버지가 황급히 지게를 일으켜 세우려고 몸을 구부렸다.

그런데 숲속에서 철림오빠가 불쑥 나타났다. 그는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었다.

《반장동지, 절때려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흑흑... 이제 반장동지마음을 알았어요. 흑흑...》

쏟아지는 비를 다 맞으며 비와 눈물이 범벅된 얼굴을 팔소매로 문대는 그의 모습은 내 마음을 흔들여놓았다.

아버지는 피가 터져 형질오래기로감은 손가락이 보이는 두손으로 그를 힘껏 껴안았다.

《그만해라. 감기 들겠다. 들어가자, 철림아. 산골사람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시려고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눈과 비를 맞으시고 계시나. 그런데 그 녀원을 우린 아직도 풀어드리지 못하고있으니 죄중에서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니. 철림아, 우리 이 병풍덕을 기름지게 가꿔서 짐승들이 옥실거리는 우리 고향에 어버이수령님을 꼭 모시자.》

나는 너무도 가슴벅차 래일의 병풍덕을 황홀한 심정으로 그려보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후 나와 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너무도 뜻밖의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

하늘이 통곡하였다.

그 통곡소리에 천고수림의 아름답리 거목들이 곡성을 터뜨리는듯 무섭게 태절했다.

이어 제국주의자들의 더욱 악랄해진 고립압살책동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조국앞에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

옆친데 덮치는격으로 며칠간 억수로 퍼부은 강한 폭우에 염소우리가 무너졌다. 그 바람에 우리안에 있던 새끼 뱀 어미염소 몇마리가 서까래에 깔려죽었다.

죽은 염소들을 끌어내어 발구에 실어 마을로 내려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머했으랴...

물푸레나무같이 단단하던 아버지는 끝내 자리

에 눕고말았다. 아버지는 몸을 떨며 고열에 시달렸다.

나는 너무도 안타까와 아버지의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만 흘렸다.

이때 철림오빠가 들어섰다.

《우리두... 가구 말자요.》

《어디루?...》

《어디진 어디예요. 병풍덕에서 내려가고말잔 말이예요. 난... 더 못 참겠어요.》

아버지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여앉았다.

《철림이... 그래선 안돼.》

《홍, 뭐가 안돼요? 방목공들은 떠나가구 염소들은 죽어가구 저렇게 염소우린 무너지구... 좀 있으면 겨울이 닥쳐오겠는데 사람먹을것도 없는 이 등판에서 저것들의 겨울사료는 어떻게 마련하구 우리 힘으 염소우린 어느 세월에 다시 지어요?》

철림오빠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으며 주먹으로 구들바닥을 내리쳤다.

《철림이... 우린 여길 떠나면 안돼.》

《뭐요?! 야—참, 다른 사람들두 와서 고생해보라지요. 하루에도 몇번씩 내려갈 생각이 치밀어도 날 위해준 반장동지를 저버리지 못해 참았어요. 가구 말자요!》

아버지는 눈을 부릅떴다.

《싫으면 그만두라요. 난 갈테예요!》

《철림오빠!》

나는 트락까지 따라나와 애원에 차서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놔둬라! 갈테면 가라!》

아버지의 고향소리에 철림오빠가 흠칫했다.

《좋은 날엔 기발을 흔들며 맹세 다지구 어려운 붉은기를 제버리고 달아나겠니? 아버지 그렇게 못산다. 이 병풍덕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다.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 제기발을 잡수시며 한지에서 쪽잠을 주무시며 가고 또 가시는 전선길뒤에 이 병풍덕두 있다. 죽어두 아버지는 이 등판을 지키다가 죽어야 한다.》

《아... 으음...》

마당가에서 철림오빠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디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툼과 망치를 꺼내들고 무너진 염소우리쪽으로 스택스적 걸어갔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병풍덕에 뿌리내린 한그루 억센 거목처럼 나의 눈에 안겨들었다.

3

아버지는 예전대로 방목에 전념했고 묵어있는 골짜기의 풀판을 개간하여 알곡사료를 심고 가졌다.

아버지의 그 모습은 청년들을 감동시켰다.

병풍덕 풀판조성으로 농장에 돌격대가 무어졌다.

등판에 붉은기가 날리고 나팔소리가 울렸다.

고난을 맞받아 병풍덕은 다시 흥성이기 시작하였다.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갔던 방목공들도 다시 병풍덕으로 달려와 아버지의 가슴

에 안졌다.

어느덧 나도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나는 졸업기념으로 병풍덕에 기념식수를 하고싶었다.

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에게 한아름이나 되는 나무모를 가져다주었다.

분홍꽃아카시아나무였다.

아버지가 정성들여 심고 가꾼 나무모였다.

나는 삽을 들고 나섰다.

철림오빠와 함께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세우고 흙을 떠넣으며 힘든줄 모르고 심었다.

《잘 심어야 돼. 쾅쾅 밟아줘야 해.》

철림오빠가 자꾸 잔소리를 했지만 나는 좋았다.

보슬비까지 내린다. 새로 심은 애기나무에 은구슬을 뿌려주며 드넓은 병풍덕초원에 무슨 약속인가 속삭이는듯 첫 봄비가 술근술근 내린다.

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등판을 바라보았다.

나는 두손바닥을 활짝 펴고 어린애처럼 비를 받으며 깔깔 웃었다. 힘들지만 정말 뜻깊은 기념식수였다.

이 나무들이 커서 숲을 이루면 우리 고향 병풍덕이 얼마나 더 아름다와질까! 이 등판에도 내가 심은 나무들이 자라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끝없이 즐거웠다.

나는 곁에서 나무를 심느라 여념이 없는 철림오빠를 돌아보았다.

《오빠, 좀 쉬고 하세요.》

《응.》

철림오빠는 목에 걸었던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문대며 빙긋 웃었다.

이제는 이 병풍덕이 정들어 어데도 못 간다고 말하는 오빠이다.

나의 눈엔 장난기가 남실거렸다.

《오빠, 오빠 병풍덕을 뜨려고 하나?》

《뭐?!》

《그럼 왜 마음드는 처녀 하나 골라오지 않나?》

철림오빠는 어처구니없는지 머리를 젓히고 소리내어 웃었다.

《야, 누가 너보고 이 오빠 걱정을 해달라던? 아버지 걱정이나 해라!》

(아버지걱정?)

나는 얼굴이 빨개서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가 뭐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인줄 알아?!》

《너 아직도 철 들자면 된장 몇독을 더 먹어야겠구나.》

나는 너무도 분하여 발을 동동 굴렀다. ...

밤은 깊어...

쾅... 쾅...

조심스레 울리는 절구질소리...

나는 꿈속에서처럼 어렴풋이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아버지가 약초를 찌는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불을 젓히고 부엌을 내려다보았다.

절구질소리는 밖에서 들리었다.

아버지는 나의 단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추운 밖에서 절구질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나는 몽클해지는 가슴을 누르며 밖으로 나왔다.

《벌써 잤나?》

나는 대답대신 아버지의 손에서 절구공이를 뺏어들었다.

그런데 절구에 담겨진것은 찰수수쌀이었다. 아버지는 그걸 가루내고있었다.

《금이야, 오늘이 네 생일인데 이결루 네가 좋아하는 수수지짐을 해먹자. 헌데... 아버지 새벽에 삼봉리 염소목장으로 우랑종자염소를 가지러 떠나야겠구나. 미안하다. 저녁에 꼭 오마.》

눈물이 솟구쳤다. 아버지의 지성에 목이 메었다.

나에게 어머니의 애뜻한 사랑을 부어주지 못해 애쓰시는 아버지가 눈물겹게 고마웠다.

나는 아버지가 삼봉리로 떠난 다음 어제 심던 나무를 마저 심으려고 생각하였다. 무슨 일이트 아버지가 기뻐할수 있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많이 하고싶었다.

그런데 뜻밖에 점심때가 좀 지나서 할머니가 말밭구에 이사짐을 싣고 병풍덕에 올라왔다.

《내가 더 늙기 전에 네 아버지를 힘차라는것 도우려고 왔다.》

할머니의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를 진심으로 리해한 고마운 진정이었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이야!》

나는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 이튿날 아버지는 먼길을 다녀온 피로도 풀지 못하고 사냥총을 메고 마당에 나섰다.

요전에도 찾다가 못 찾은 송냥이굴을 이번 걸음엔 무조건 들추겠다고 버르었다.

커다란 사냥개 두마리가 주인의 거동을 살피며 토방에서 움쭉 일어났다.

한놈은 가슴팍이 짝 퍼지고 두다리가 든든한 《곰》이였고 다른 놈은 축기빠른 귀를 곤두세우고 경리한 두눈을 굴리며 거동이 재빠른것으로 하여 아버지가 《노루》라고 부르는 사냥개였다.

《혼자 가도 되겠느냐?》

《어머니, 걱정마세요. 여기서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니다. 못다 심은 나무도 심고 밤엔 염소 새끼 낳이도 봐줘야 하길래...》

《아버지, 조심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개소금을 바른 꿩기밥이 들어있는 배낭을 메워주며 걱정했다.

아버지는 송냥이의 소굴을 찾아 떠났다.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엔 꼭 오마고 약속한 아버지는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며 온 방목지사람들이 밤을 밝혔다.

다음날 철림오빠는 아버지를 찾아 떠나겠다고 신들메를 조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것 같아 가슴이 불안하게 뛰는걸 억제할수 없었다.

그런데 이때 문밖에서 《끄응... 쾅... 쾅...》하는 사냥개의 울음소리가 들리었다.

《아버지!》

나는 저도 모르게 부르짖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나 문밖에 서있는건 배가 등가죽에 붙은 《노루》 뿐이었다.

개는 나를 보고 반가운듯 공공거리며 힘들게 꼬리를 젓더니 부엌으로 훌쩍 들어가는것이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리 숲속길을 살펴봐도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새 바람처럼 방목지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철림오빠는 거기에도 아버지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나의 가슴은 싸늘하게 얼어들었다.

부엌에 들어갔던 《노루》는 뜻밖에도 물에 적신 수건을 입에 물고 마당으로 나왔다. 나를 한번 일별한 개는 수건을 입에 물고 사립문을 나서더니 숲속으로 댕다 달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개의 행동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그 개 노는 꼴이 심상치 않다. 아버지한테 일이 생긴 모양이다.》하는 것이었다. 나와 철림오빠는 개를 뒤쫓아 달렸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짊으며 허둥지둥 달려가던 나는 우뚝 멈춰섰다.

방목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숲속길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심장의 피가 푹 멎어버리며 온몸의 맥이 짹 짹지는 듯 하였다.

아버지는 진대나무앞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었다. 일어나려고 얼마나 모태기였는지 옆에 있는 잡관목줄기를 짹 틀어잡은 손은 그대로 나무줄기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결에 두다리를 번딘고 아버지를 묵묵히 내려다보며 보초를 서듯 자리를 뜨지 못하는 《곰》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나를 더 아연케 만든 것은 《노루》의 행동이었다.

어칠어칠 아버지곁에 다가간 《노루》는 제가 물고온 수건을 아버지의 조갈든 입술우에 얹어주며 알발로 아버지를 자꾸 건드리며 끼익끼익 울었다.

짐승들의 행동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웠다.

나는 아버지의 가슴에 와락 안겼다.

《아버지!》

잠시후 아버지는 눈을 떴다.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그리던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직이 속삭이였다.

《이젠... 일없어. 나쁜 짐승은 다 죽어버렸어. ... 금이야... 철림아... 우리 여기에 사슴두 방목하자. 래년부턴 꿩두 기르자구 해. ...》

철림오빠는 말없이 아버지의 목을 그러안았다.

철림오빠의 잔등에 업힌 아버지의 발목에서 신발이 벗겨져 툭 떨어졌다. 나무가지에 찢겨 신 끈이 끊어지고 찢어져 너덜거리는 로동화였다. 바닥이 닳아서 형체를 알아볼수 없는 그 신발자국은 병풍덕의 락엽속에 고스란히 묻혔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의 그 자국이 얼마나 뚜렷한 생의 흔적이었는가 하는것을 다 알지 못하였다.

4

아버지의 머리에 흰서리를 얹어주며 세월은 흘렀다.

어느사이 나도 의학대학 학생이 되었다.

졸업을 하루 앞두었던 어느날 철림오빠가 불쑥 나를 찾아왔다.

《금이, 아버지의 보증으로 난 오늘 입당했어. 나도 이젠 병풍덕의 당원이야!》

걱정과 흥분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빠!...》

축하의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목구멍이 짹 메였다.

아버지를 따라 방목공이 된 그날부터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함께 나누며 한집안식구처럼 정든 철림오빠였다.

그런데...

철림오빠만 만나면 왜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릴까. ...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즐거운데 이글거리는 눈을 마주보기는 왜 그리 두려울까. ... 어마나! 내가 지금 철림오빠를 사랑하는게 아니야?! 이걸 어쩌나. ... 오빠를 어떻게...

나의 얼굴은 확확 달아올랐다. 그러나 가슴속엔 그가 짹 차있다는 생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렇다, 나의 심장속엔 이미 그가 짹 들어차있었다.

《금이, 이제 병풍덕에 큰 염소목장이 생긴대. 명당골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우유가공공장이 일떠서고 배갈천물을 끌어 발전소를 세운대. 얼마나 멋있어! 금이, 군당책임비서동지는 병풍덕건설의 총대장이 되겠다고 나하고 약속했어. 우리가 어릴 때 곱다구 안아주던 그 리당비서아저씨 말이야. 금이, 아버지의 한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난 그 주추돌우에 억센 기둥을 세울테야.》

철림오빠는 고향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억센 손아귀로 나의 작은 손을 짹 잡았다. 나는 행복감에 가슴을 들먹이였다. 《금이, 병풍덕으로 빨리 가자. 아버지가 나의 입당을 축하하여 꿩을 날리겠다고 하셨어. 그러구 할머니 내가 좋아하는 농마국수에 녹두지짐을 지지겠다고 금이를 데리구 오라고 했어.》

《어마나!—》

기쁨이 온몸에 물결쳤다. ...

그 이튿날 아침.

즐거운 웃음을 한바리 실은 말발구는 정다운 방울소리를 울리며 내 고향 병풍덕으로 향했다.

울긋불긋 철쭉꽃이 만발한 숲속길에 들어서자 딱따구리의 특이한 장단소리에 맞추어 산새들이 저마다 고운청으로 노래불렀다. 다람쥐가 숨박꼭질을 하듯 재롱을 부리면서 길을 가로막으며 숲속으로 사라졌다가는 다시 나타나곤 하였다. 길옆의 두릅나무엔 언제봐도 거꾸로 매단 돼지발쪽같은 두릅이 소담하게 피어있었고 어데선가 향기롭고 아릿한 더덕의 독특한 냄새까지 풍겨와 기분울 한층 더 돋구어주었다.

병풍덕의 자연풍경을 감상 못하고 발구우에서 수의축산에 필요한 참고도서를 열심히 읽던 철림오빠가 생각난듯 《참, 오늘이 〈똥보〉 예정일이로구나.》하면서 말고빠를 잡아당겼다.

말은 병풍덕을 향하여 네굽을 안고 달렸다.

어느덧 밤은 깊어 철림오빠의 입당을 축하하여 할머니가 차린 특식나누기도 끝나고 조용한 병풍덕에 어둠의 폭신한 이불이 덮여졌다.

나의 단잠을 깨울세라 조심히 요포깃을 여며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나는 눈을 떴다.

아버지는 전등불밑에서 책을 보고계셨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에 쥐여진 저 사진은 무

엇일까...

나는 잠기가 실린 눈을 깜빡이며 슬며시 상반신을 일으켜 나에게 지어주는 질은 전등불빛의 그림자를 리용하여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어지간한 거리차이가 있어 정확히 볼수는 없었으나 료괄적으로 녀자의 초상사진임을 가려볼수 있었다.

아니?!...

나는 황황히 요포를 뒤집어쓰고 돌아누웠다.

눈물이 배개잇을 적시었다. 분명 아버지는 고독을 느끼고있었다.

자신의 온넛을 깡그리 병풍덕에 바치며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들지 않는 강쇠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딸도 모르게 꺼내보는 녀자의 사진이 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아버지는 지금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랬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아버지는 너무나도 외로웠다.

내가 어쩌다 병풍덕에 올라가면 아버지는 작업복이나 내놓고 속옷들은 개울에 나가서 자기손으로 빨군 하였다. 음식도 언제 한번 따끈한걸 잡수어보지 못하고 식은밥이 있으면 한술 뜨고 방목길에 오르는 날이 많았다. 내가 며칠만이라도 학교를 안 가고 아버지의 시중을 들 기미만 보이면 호되게 추궁하였다. 그래서 나는 꼼짝 못하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길에 오르곤 하였다. ...

아버지에게 안해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이제야 나는 가슴아프게 느꼈다. 이때에야 나는 비로소 이 산속에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다.

그렇다. 아버지도 인간이다! 아버지도 남들처럼 가지고싶고 누리고싶고 느끼고싶어하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다.

그런데 나는 왜 이제야 그걸 느낀단 말인가.

깊은 산속 자그마한 집에서 한생을 외롭게 사신 아버지가 가슴아프게 생각되며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는 그 녀인을 데려오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다음날 나는 방목길에 나선 아버지를 배려우고 나서 구석에 놓여있는 앉은뱅이책상에 다가갔다.

어느책일까. ... 분명 어느 책갈피에 있겠는데...

나는 책꽂이에서 《염소사양관리일지》를 펼쳐들었다. 거기에는 이백마리도 넘는 염소들의 이름과 성미, 식성 그리고 새끼낳이 예정일까지 다 적혀있었다. 정말 희한했다. 그 책에는 사진이 없었다.

다른 책 몇권을 뒤적이던 나의 눈길은 책꽂이의 맨 끝에 꽂혀있는 색바랜 두툼한 노트에 가뒀었다. 뽑아드니 아버지의 일기책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 병풍덕에서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고있다는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그 책갈피에서 나는 아버지가 꺼내보던 사진을 발견하였다. 아 사진은, 나의 어머니사진이었다!

《!...》

아직도 잉크의 물기가 그대로 느껴지는듯 한 책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여보, 당신은 이 병풍덕에 잠시 피었다 진 이름없는 들꽃이었소. 그러나 그 들꽃이 풍긴 향기는 너무나도 짙구려. ...》

나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 병풍덕을 위해 한떨기의 이름없는 꽃처럼 피었다 진 어머니! 그 눈동자에 비친 모습은 이 등판을 한생토록 가꾸는 아버지의 모습이였으리! 《아버지!》

나는 아릅드리 소나무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태어나고 어머니의 땃이 깃들어있고 아버지가 한생토록 가꾸는 내 고향 병풍덕이 이때처럼 아름답고 정답게 느껴져보기는 처음인것 같았다.

독, 토르르...

나의 발앞에 솔방울이 하나 떨어졌다. 무심히 올려다보니 두귀를 쫓긋 세운 청서가 눈을 울롱하게 뜨고 귀엽게 내려다보고있었다.

끝없이 즐거웠다. 행복감이 가슴을 포근하게 해주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어머니처럼 병풍덕의 의사가 되어 한생 아버지와 함께 이 등판을 가꾸리라 마음다졌다.

졸업후 나는 병풍덕건설돌격대원이 되어 현장치료대로 고향에 달려왔다.

병풍덕은 새로 태어났다.

오솔길이 넓게 다져진 도로가 되고 작은 귀틀집 한채와 초라한 염소우리밖에 없던 등판에 휴양각을 방불케 하는 현대적인 염소우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아담한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생겨나 산속의 도시를 방불케 했다.

이 아름다운 병풍덕이 행복의 상상봉에 올랐다.

전선시찰의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 고향 병풍덕에 찾아오시었다!

하늘을 메우며 숲으로 날아가는 뿔무리속에 흰구름마냥 떼를 지어 방목길에 오르는 염소무리를 호뜻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아버지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외진 산속에서 한생을 바쳐 조국의 향토를 가꾼 아버지를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아버지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나는 철림오빠의 손목을 잡고 노을빛에 곱게 물든 내고향 등판을 달렸다.

《오빠! 난 소년시절에 짓지 못한 글짓기숙제를 할래요. 아버지의 한생을 세상에 자랑할래요.》

《응, 금이! 나는 이 병풍덕에서 인간의 한생은 후세가 총화지어준다는 철리를 심장으로 느꼈어. 우리 아버지처럼 한생을 값있게 살아 우리의 후대들이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하게 하자구.》

그는 나를 끄당겨 꼭 품안았다.

아! 병풍덕!

이제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가꾸게 될 래일의 병풍덕은 또 얼마나 아름다와질것인가!

×

나는 여기서 미숙한 나의 글을 마치려고 한다. 이 글이 발표되면 지금도 모교에 계시는 나의 옛 담임선생님과 조국의 방방곡곡 혁명초소에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고있을 그날의 동창생들이 감회깊이 읽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펜을 놓는다.

리원명과 《동야휘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조선민족은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하는 이 땅에서 자주성을 위한 창조적활동을 벌여오면서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수많은 창조하였다.

그가운데는 19세기에 리원명에 의하여 편찬된 대표적설화집의 하나인 《동야휘집》도 들어있다.

리원명(1807~?, 자 치명, 본관 룡인)은 19세기에 활동한 사람이다.

리원명은 어려서부터 량반관료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유교교육을 받아 22살나던 해에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선 량반관리로서 별다른 저서를 남긴것은 없고 오직 《동야휘집》 하나만이 남아 전해지고있는데 이 책은 그가 인생말년인 1869년에 편찬한 책이다.

8권 8책으로 구성된 《동야휘집》에는 199편의 작품들이 주제별로 수록되어있다.

리원명은 서문에서 《동야휘집》을 쓰게 된 목적과 동기를 밝히면서 이렇게 썼다.

《우리 나라 패설은 그 작자들이 속속들이 배출되어 제각기 듣고 본것을 두루 모아 책을 이루었는데 제나름의 제목을 달아 각종 모양새를 갖추었고 짙막한 이야기와 잡다한 기록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있으나 전기들이 대부분 빠지고 사적들을 고증할수 없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내가 긴 여름철에 병치료를 하던차에 우연히 〈기문총화〉, 〈어우야담〉을 얻어 보았는데 자못 눈을 번쩍 띄게 하는것이 많았다. ... 그래서 이 두 책에서 이야기가 길고 옛일을 상고할수 있는것들과 기타 다른 책들가운데 실린 그와 비슷한 양상의 이야기들을 아울러 윤색하여 기록하였다. 여기에 향간에서 고담으로 전해지고있는것들을 채집하여 문장으로 꾸며 간간이 끼웠다.

매 편의 머리에 제목을 얹힌것은 대개 〈소설〉적격식을 따랐것이고 매 편의 끝에 의견을 붙인것은 대략 〈사전〉의 례에 따른것이다.》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리원명이 《동야휘집》을 편찬한 기본목적은 지난시기에 활동한 많은 사람들의 사적을 전하는 전기적이야기들이 많은 경우 류실되어 지금에 와서 그때의 사실을 상고할수가 어렵게 된 실정에서 그것을 폭넓게 수집하여 후세에 남기려는데 있었다.

그는 이전 시기에 나온 설화작품들을 수록함에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전사하지 않고 문헌들에서

채집한것은 윤색하고 향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문장으로 새로 꾸며 전반적작품들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이로부터 《동야휘집》은 이전 시기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되어 전해지고있던 설화들을 하나로 모아 묶은 설화집으로서 다른 설화집들과는 다른 구성과 매 작품들의 예술적형상에 있어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전 시기 설화집들을 보면 개인의 견문에 의한 기록이라는 특성으로부터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산만하게 수록되어있는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동야휘집》은 작품집서두에서 작품체목을 밝히고 그밑에 해당하는 주제에 따라 총 13부로 나누고 그안에서 다시 구체적내용에 따라 85개의 소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13부에는 《은수부》, 《유현부》, 《장상부》, 《절의부》, 《기예부》, 《방술부》, 《도류부》, 《성행부》, 《인사부》, 《부녀부》, 《잡식부》, 《술이부》, 《습유부》가 속하며 매 부마다 다시 2~10여개의 소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실례로 이름난 장수와 재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장상부》에는 15편의 작품이 실려있는데 이것은 다시 《현상》, 《천장》, 《명장》 등의 소항목으로 갈라져있고 녀성들의 깨끗한 사랑과 지혜, 은혜갚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부녀부》는 《기혼》, 《가연》, 《이적》, 《지식》, 《재혜》, 《투한》, 《구한》, 《기우》 등의 소항목으로 갈라져있다.

이렇게 《동야휘집》은 이야기작품의 구체적대상과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수록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설화창조의 전반적인 양상은 물론 매 작품의 주제까지 명백히 제시해준다.

이것은 작자인 리원명의 높은 미학적견식과 안목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시기에 달성한설화집편찬에서의 성과를 뚜렷이 하여준다.

이러한 《동야휘집》에는 우선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애국투쟁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실려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 《하늘소를 타고온 늑은이가 장막안에 들어가 계책을 올리다》, 《버드나무아래 장군의 충직한 절개》, 《어깨에 검은 박을 멘 의병들》, 《명나라 장수를 꾸짖은 평양로인》 등을 비롯하여 여러 작품들을 들수 있다.

《하늘소를 타고온 늑은이가 장막안에 들어가 계책을 올리다》는 임진조국전쟁시기 도원수 권륜이 하늘소를 타고 다니는 하찮은 늑은이의 말을 귀담아듣고 진을 행주산성으로 옮겨 왜적을 크게 이긴 내용을 담고있다.

《버드나무아래 장군의 충직한 절개》에서는 우

리 조국땅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 침략군들이 이 땅에서 내몰기 위하여 싸운 김웅하, 김웅해 두 형제의 투쟁사실을 담고있으며 《명나라 장수를 꾸짖은 평양로인》에서는 다른 나라의 한다 하는 이름난 장수가 평양의 이름없는 수수한 늙은이에게 쫓겨가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기개와 슬기를 긍지높이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반침략애국주제작품들을 보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들의 대중적이며 희생적인 투쟁과 그들이 지니고있었던 굴할 줄 모르는 기개와 뛰어난 슬기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동야휘집》에는 다음으로 우리 인민의 뛰어난 재능을 반영하고있는 작품들도 실려있다.

여기에는 《비단치마를 내놓으니 고승이 값을 다투다》, 《붉은 붓대를 준 로인에게서 비결을 넘겨받다》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이 실려있다.

《붉은 붓대를 준 로인에게서 비결을 넘겨받다》는 명필로서의 한석봉의 이름이 그의 부단한 노력으로, 깊은 산중에 있던 두 로인의 가르침과 그들이 준 붓으로 하여 그리고 사신으로 중국에 갔을 때 베이징의 한 각료의 집에서 쓴 글씨로 하여 더 유명해진 력사적사실을 반영하고있다.

이 작품은 한석봉이 명필이라는 말만 들어오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글씨솜씨를 눈앞에서 보는 듯이 그려놓음으로써 한석봉이야말로 명필이라는 우리 민족의 긍지를 가지게 하며 비단족자에 금박을 떨구었다고 성을 내는 각료에게 《저도 뛰어난 못하여도 붓글씨로 이름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며 비단족자에 떨어진 금박을 글씨속에 숨겨버리는것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겸손성과 순박성, 뛰어난 재능을 잘 보여주고있다.

《비단치마를 내놓으니 고승이 값을 다투다》는 겸재 정선의 그림솜씨를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는 좋은 작품이다.

정선은 산수화에서 이름을 날린 우리 나라의 유명한 화가로서 그가 그린 그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한다.

정선의 그림이 얼마나 인기있었는가를 이 작품에서는 한 재상이 베이징의 화가들이 정선의 그림을 진귀한 보배로 여긴다는것을 알고 정선에게서 받은 그림 몇장을 중국에 팔고 그 값으로 3천여권의 책을 사서 장서에 꽂 채웠다는 사실을 전하고있다.

또한 정선의 그림을 놓고 중국의 화가와 중이

서로 사겠다고 값을 올리는것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의 뛰어난 재능과 민족적 긍지를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이처럼 《동야휘집》에는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문장가들과 서예가, 화가들의 실화를 생동한 화폭으로 담고있다.

《동야휘집》에는 또한 우리 나라 녀인들의 깨끗한 사랑과 절개, 지혜 등을 찬양한 작품들도 실려있다.

《옥가락지를 맞추어보아 안해와 만나고 아들을 구하다》는 작품 하나만을 보아도 한번 맺은 언약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우리 녀성들의 사랑에 대한 깨끗한 감정을 엿볼 수 있는바 남편에게서 받은 옥가락지를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기다려 끝내는 남편을 만나는 최씨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나라 녀성들의 깨끗하고도 아름다운 마음과 고상한 미풍량속을 형상깊게 보여주고있다.

《동야휘집》에는 이밖에도 《베옷 입은 사람과 마주 앉아 하늘 운수를 말하다》, 《마을로 돌아다니며 청당비결의 침구술을 시험하였다》와 같이 천문, 지리, 의학과 관련한 작품들도 수록하고있다. 《동야휘집》은 이러한 작품들을 전하면서 단순히 객관적인 립장에서 사실을 전달하는식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성격을 보다 뚜렷이 하는 방향에서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여 형상력을 높이고있다.

이 책에 실린 적지 않은 작품들이 앞선 시기에 나온 설화집의 설화들과 많은 경우 중복되고있기는 하지만 문장이 조화롭게 다듬어지고 묘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소설적경지의 예술성을 보이고있는것은 바로 작자의 예술적감수력과 창작적 능력에 의하여 작품들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쳤기때문이다.

《동야휘집》은 시대적제한성과 편찬자의 계급적 제한성으로부터 임금을 우상화하고 량반지배층을 내세우며 미신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실려있지만 그가 담고있는 좋은 내용과 새로운 구성방식 등은 19세기 우리 나라 산문문학의 발전적면모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며 특히 이 시기에 달성한 설화문학의 성과를 대표하는 가치있는 문헌유산의 하나이다.

리광천

운동주의 애국적인 시세계

해방전 우리 나라 시인들가운데는 일제의 식민지파쇼통치에 대한 견결한 저항정신을 간직하고 반일애국으로 삶을 빛내이며 창작활동을 벌인 사람들이 많다.

운동주도 그중의 한사람이다. 그가 창작활동을 벌인 1930년대 후반기~1940년대 전반기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폭압책동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이런 준엄한 환경에서도 조국과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죽는 순간까지 반일의지를 굽히지 않고 민족의 얼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심정을 담은 시들을 창작하여 해방전 진보적시문학의 마지막시기를 장식한 애국시인들이 적지 않게 배출되었다.

운동주는 이국에서 살면서 반일의식,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창작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인 리유로 왜놈들에게 붙잡혀 감옥에서 최후를 마친 사람이다.

운동주 [주체6(1917)년~주체34(1945)년]는 북한도 명동촌에서 출생하여 나라잃고 수난당하는 겨레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는 주체24(1935)년 가을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하여 지내는 나날에 정든 고국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었으며 반일민족의식을 자래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재능 있는 애국시인 운동주도 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중퇴한 사람이였다.》

운동주의 숭실중학교 중퇴는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이 학교가 거부한탓에 폐교된때문이었다. 그후 그는 주체32(1943)년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일본의 후꾸오까형무소에서 옥사할때까지 민족적지조를 지켜낸것으로 하여 잘 알려지게 되었다.

운동주는 룡정 은진중학시절이었던 주체23(1934)년에 첫 서정시 《삶과 죽음》을 쓴 때로부터 주체31(1942)년까지 8년남짓한 기간에 120여편의 시작품을 써내었다. 이 작품들은 운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려 전해지고있다.

시집의 제목은 조국해방의 그날을 확신하며 그 어떤 광풍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겨레의 아들로 몇몇이 살려는 시인의 순결한 애국정신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준다. 이러한 지향세계는 《서시》[주체30(1941)년], 《새로운 길》[주체27(1938)년], 《별헤는 밤》[주체30(1941)년], 《별뚝 떨어진데》[주체30(1941)년], 《길》[주체30(1941)년] 등의 작품들에서 뚜렷이 밝혀지고있다.

...

이제 닭이 해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컨으로
휘연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

산문시 《별뚝 떨어진데》의 한 대목이다. 여기서 표현된 새벽은 당겨울 재생의 새벽을 사무치게 고대하는 우리 겨레들의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있다. 또한 동시 《별헤는 밤》에서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하나씩을 붙여》보면서 깊은 추억과 아름다운 공상과 꿈과 환상의 나래를 펼쳐 희망이 이룩되는 그날에 대한 동경과 확신을 노래하였다. 우리 겨레의 희망이 실현되는 그날에 대한 시인의 확신은 서정시 《길》에서 조국해방으로 향한 그 길을 찾으려는 열정으로 이어진다.

《잃어버렸습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 《길》에서 시인은 잃어진것을 두고 끝없이 모대긴다.

...

내가 사는것은 다만
잃은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잃어진것을 찾는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다는 이 심각한 자각에는 조국의 아들로서 잃은 조국을 찾는 거기에 자기를 바쳐가리라는 절개굳은 투지와 애국의 열정이 세차게 굽어치고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정시 《서시》의 이 전문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이 살려는 시인의 변심없을 삶의 신조는 모진 고통과 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한것이여서 비장한 정서와 무게를 나타내고있다. 시인은 《별이 바람에 스치》을수록 더 빛을 낼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진 시련과 광풍을 맞받아 《주어진 길》을 기어이 가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하려는 신조를 가지고 짓밟히고 신음하는 겨레를 위해 모든것을 바쳐 살려는 의지를 다시금 가다듬는다.

이것은 깨끗한 량심과 순결한 피로 시인이 다지는 순정의 애국열의를 잘 보여준다.

시인의 조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동요 《기와장내외》〔주체25(1936)년〕, 《조개껍질》〔주체24(1935)년〕에서 상징화된 대상에 의탁하여 독특하게 표현되고있다. 다시말하여 《기와장내외》에서는 비오는 날 저녁에 잃어버린 외아들을 생각하며 구슬피 운다는 대렬지붕우의 기와장내외의 형상을 통하여, 《조개껍질》에서는 잃어버린 제 짝패와 떠난 바다물소리를 그리워한다는 조개껍질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을 빼앗긴 슬픔과 비애, 그 품을 못 견디게 그리워하는 향수의 감정세계를 파헤치고있다.

조국의것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시인의 애착심은 평양승실중학교시절에 지은 서정시 《식권》〔주체25(1936)년〕에서도 강렬하게 드러나고있다.

식모가 함숙생들에게 끼니때마다 주는 세개의 깨끗한 흰 그릇에는 《대동강물로 끓인 국》, 《평안도 쌀로 지은 밥》, 《조선의 매운 고추장》이 들어있다. 시인은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이 음식들을 먹으면 누구든 구미에 꼭 맞아 《우리 배를 부르게》한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것이 제일이라는 이러한 정서적주장의 바탕에는 조선의 문화와 풍습, 전통을 아끼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숭고한 애국적지향이 뜨겁게 흐르고있다. 때문에 여기서 시인이 지닌 열렬한 애국정신을 깊이 느낄수 있는것이다.

운동주의 애국적인 시세계는 수년에 허덕이는 겨레에 대한 뜨거운 동정심을 반영한 작품들을 통해서도 밝혀지고있다.

수난당하는 겨레에 대한 동정과 사랑은 조국애, 민족애의 구체적표현이다. 운동주의 시가운데는 민족의 가슴아픈 모습을 깊은 동정속에 노래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일제 식민지통치의 악랄성을 예리하게 고발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산문시 《돌아와 보는 밤》〔주체30(1941)년〕, 서정시 《무서운 시간》〔주체30(1941)년〕, 《슬픈 족속》〔주체27(1938)년〕, 《또 다른 고향》, 《장》〔주체26(1937)년〕 등은 그 대표적시들이다.

흰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시 《슬픈 족속》 전문)

《흰저고리 치마》에 가리워져있는 녀인의 《슬픈 몸집》은 암담한 현실생활에 조들려 심각한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는 우리 겨레의 비참한 모습을 집약적으로 암시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시의 제목을 《슬픈 족속》이라고 단것만 보아도 이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또한 서정시 《무서운 시간》에서 서정적주인공은 《한번도 손들어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몸 둘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것》이라고 하면서 살아서 몸둘곳 없고 죽어서도 누울 자리조차 없게 된 겨레의 참담한 처지를 통해 일제의 암흑통치를 예리하게 단죄하였다. 이러한 시들에 비껴있는 어둡고 침침한 비애의 정서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며 시련과 고난을 박차고 겨레의 참된 삶을 찾으려는 의지가 잇닿아있다.

산문시 《돌아와 보는 밤》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켜두는것》은 암흑의 세상과 같은 《낮의 연장이기에 너무나 피로운 일》이라고 개탄한다. 이처럼 낮에 받은 모진 충격으로 하여 고통속에 모태기던 서정적주인공은 거기에 주저앉거나 포로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다듬는다. 시의 마지막에서 《하루의 울분을 씻을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기느라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간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사상》은 자기를 격려하며 당대 현실에 맞서 굳세게 살려는 민족적자존심과 반일의식을 넘두에 둔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운동주의 시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서 민족적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고 민족해방의 그날까지 굳세게 살며 애국의 순정을 바쳐가려는 시인의 정신세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해방전 진보적시문학의 마지막장을 의의있게 장식할수 있게 한 작품들로 되고있다.

그러나 시인의 애국적인 시세계는 민족적지조를 지켜가려는 그자체에 머무르고 민족해방을 이룩하기 위한무장투쟁에 뛰어들려는 지향으로 승화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운동주의 시세계에서 표현된 애국적성격의 특성과 제한성이 있다.

변성철

《조선문학》 축전상 시상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96(2007)년 제11차 《조선문학》 축전상 시상 모임이 있었다.

입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련시 《첫눈내린 강반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 계관인 박사 김만영

단편소설 《타격》 조선인민군 문예창작사 부장

《김일성상》 계관인 박운

단편소설 《왜가리떼 날아들 때》 4.15문학창작단 작가 김영희

단편소설 《백산의 종소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한정아**

단편소설 《폭설이 내린 뒤》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리평**

장편산수기행시 《인민사랑의 절승—칠보산》 함경북도 화대군 리근지

평론 《붉은기의 천만리에 새겨진 력사의 진리》 김형권신포사범대학 어문학부장 부교수 학사

김화

유래

《B. C》, 《A. D》

《B. C.》란 《기원전》이라는 말의 영어략칭이다. 《B. C.》에서 《B》는 《앞에》, 《앞서》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 《Before》의 첫 글자를 딴 것이고 《C》는 《구세주》 즉 《예수》를 의미하는 영어고유명사 《Christ》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따라서 《B. C.》 즉 《Before Christ》란 《예

수가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으로 된다.

《기원전》을 《B. C.》로 표기한다면 《기원후》는 《A. D.》로 표기하는데 이것은 《Anno Domini》라는 단어에서 첫 글자들을 따서 표기한 것이다. 《Anno Domini》는 영어인데 우리 말로는 《주의 해》라는 뜻이다.

조정남